

# 성사: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만남

다널드 우얼 추기경,

및 라널드 롤러, 토마스 컴포드 롤러, 클리스 스텝나 공저

젼 설리번 편집

2010

## 서론

“내가 세상 끝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 예수님은 이 약속을 제자들에게, 더 나아가 우리들 각자에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지상에 계시는 동안 수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예수님은 요르단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하느님의 사랑하는 아들로써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시며 공적활동을 시작하신 것이다. 그 후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주시고, 죄인들을 화해시키시며, 병든 이들을 치료하시고, 죽은 이를 일으키셨으며, 수많은 군중들에게 빵과 당신의 말씀을 먹이셨다. 당신의 수난 전날 밤 예수님은 성체성사를 제정하시고 성직을 세우셨다. 그리고는 당신의 고통, 죽음, 부활로 이루어진 파스카의 신비 속에서 예수님은 영원히 남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서 당신의 몸과 피를 아버지 하느님께 바치셨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느님께로 올라가신 후 교회의 변호자이며, 인도자이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징과 놀라운 일들에 대해 읽거나 들었을 때 이 복음서 이야기들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인 것처럼 생각하게 될 지도 모른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도 그랬음에 틀림없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삶과 수난, 죽음과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경탄한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시대의 사람들만을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당신께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아니었다. 그분의 모든 구원의 말씀과 구속 활동은 모든 시대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하느님 계시의 총만함인 예수님의 구속활동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가톨릭 교회의 일곱 성사는 예수님의 수난, 죽음 그리고 부활의 신비를 바탕으로 한 그분의 구속활동이 모든 시대 모든 신앙인들을 위해 현존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다. 예수님이 이

성사: 그리스도와의 지속적 만남

세상에서 활동하신 것은 약 2,000 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성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징과 놀라운 일들은 모든 시대를 걸쳐 계속 되는 것이다. 우리는 “성사들은, 말하자면, 예수님이 스스로 구세주로서 생명을 주고 축복을 내리시며, 새롭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며, 생명의 빵의 양을 늘리시는 그의 구속활동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확대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들 이다.”라고 믿는다.

성사에 관한 이 간추린 교리서는 교회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더 심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를 초대한다. 이 책은 또한 성사의 은총을 통해서 지속적인 회도와 일상생활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초대하고 있다.

우리는 교회의 성사 각각에 대한 여러분의 사고가 전례의 본질,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 교회 내의 성사생활 등에 대한 가톨릭적 이해 내에서 형성될 수 있도록 교회의 일곱 가지 성사에 대한 소개글로 이 책을 시작하고 있다. 그런 다음, 각각의 교회 공동체가 삼위일체의 은총에 참여하는 독특한 수단으로서의 일곱 가지 성사에 대한 설명이 주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는 그분의 지체인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분을 알고,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한다. 우리는 하느님 사랑의 선물인 자유와 권능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 일곱 성사에 관한 이 간추린 교리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사적 현존을 통해 그의 인격체와의 관계를 심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일곱 성사는 실재하시는 하느님과 그분의 생명을 주는 사랑, 즉 은총을 개개의 사람들이 알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위한 가톨릭 교회의 수단들이다. 이 간추린 교리서를 친구이자 안내자로 삼아, 여러분의 지식과 신앙적 사고가 은총의 순간으로 매번 다시 태어나기를 바란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서, 여러분 가족의 삶 속에서, 늘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

## 1 장

### 전례: 파스카 신비와 성사생활

(가톨릭 교회 교리서 1076-1130; 1179-1206; 1667-1676)

종교의 핵심은 하느님을 찾는 것이다.“주님께 청하는 것이 하나 있어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우러러보고 그분 궁전을 눈여겨보는 것이라네”(시편 27:4). 하느님을 찾는 개별적 노력은 특별히 기도 안에 집중되어 있고, 우리의 개인기도는 널리 퍼져 공동체기도 안에서 동료들의 기도와 합류한다. 공동체 기도가 약동하는 교회의 기도이고, 하나로 뭉친 사람들의 기도일 때 그것이 전례가 된다.

전례란 무엇인가? 전례는 “그리스도의 신비체, 곧 머리와 그 지체들이 완전한 공식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전례헌장 7).

이 장에서는 전례와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현존, 파스카의 신비, 성사의 의미, 교회 안의 준성사의 용도에 관하여 논하겠다. 다음 장부터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일곱 성사를 개별적으로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성사: 그리스도와와의 지속적 만남

## 전례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

전례기도는 공동체기도 이상의 것이다.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는 전례헌장에서 기도와 공동체 의식과 성사성이 전례 안에서 융합한다는 것을 재차 설명하였다. 공의회는 하느님을 찾음이나 상봉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전례 안에 하느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존하심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사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을 찾고 발견하게 된다.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 주신 것입니다”(1 요한 4:10). 그래서 하느님은 대기하고 계신다. 피하거나 만남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다. 제거되어야 할 장애는 우리 안에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교회에, 특별히 전례 행위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미사의 희생제사 안에 현존하신다. “당신 친히 그 때에 십자가에서 바치셨던 희생 제사를 지금 사제들의 집전으로 봉헌하고 계시는 바로 그분께서 집전자의 인격 안에 현존하시고, 또한 특히 성체의 형상들 아래 현존하신다. 당신 능력으로 성사들 안에 현존하시어, 누가 세례를 줄 때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다. 당신 말씀 안에 현존하시어, 교회에서 성서를 읽을 때에 당신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다. 끝으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마태 18:20)고 약속하신 바로 그분께서 현존하신다”(전례 헌장 7).

그리스도는 당신의 지체들이 모여서 공동기도를 바칠 때에도 현존하신다. 전례는 교회가 주로 예배할 목적을 보이는 것이다. 전례에서 머리와 그 지체가 성부 앞에 모인다. 이때에 인간은 고립된 개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합치되니 백성들과 하느님께서 맺으신 계약으로 둘러싸인다. 예배에는 공동체 전체가 구경꾼으로서가 아니라 참여자로서 협조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당신 말씀에도 현존하신다. “교회에서 성서를 읽을 때에 당신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다”(전례헌장 7). 교회는 하느님의 풍요한 말씀에 보다 더 쉽게 접근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전례: 파스카 신비와 성사생활

모든 성사 거행은 이제 말씀의 전례로써 시작한다. 말씀의 전례는 독서 외에 묵상과 기도를 위한 침묵도 포함한다. 말씀의 전례는 실제로 기도의 도장(道場)이며, 들음, 묵상, 신심을 통해서 친밀한 관계로 올라가는 길이다. 하느님을 찾음은 모든 기도, 특히 전례의 중심이므로 전례 행위를 지도하고 형성하는 것은 기도여야 한다. 기도 없는 예식은 전례가 아니다.

전례에서 그리스도는 성사적 현존의 모습으로서 보다 훌륭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모든 현존은 성바오로가 하느님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파스카의 신비 또는 단순히 ‘신비’라고 부르는 것의 일부이다(콜로 2:2, 4:3 참조).

##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

“우리의 신앙과 성찬 전례의 원천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파스카 신비를 통하여 당신을 내어 주신 바로 그 사건입니다”(사랑의 성사 34)라고 교황 베네딕트 16 세는 사도를 위한 권고문인 『사랑의 성사』에서 말하고 있다. 교회는 진정으로 그리스도교 전체의 중심을 파스카의 신비에 둔다. 그리스도는 인류구원을 “특히 당신의 복된 수난과 저승에서 살아나신 부활과 영광스러운 승천의 파스카의 신비,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 죽음을 없애시고 부활로 생명을 되찾아 주신 그 신비를 통하여 성취하셨다”(전례헌장 5).<sup>ii</sup> “그 때부터 교회는 파스카 신비를 거행하기 위해 한데 모이기를 결코 게을리 한 적이 없었다.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루카 24:27)을 읽고, 그분 죽음의 승리와 개선을 재현하는 성찬례를 거행하고,<sup>iii</sup>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느님께’(2 코린 9:15) 감사드리고, 성령의 힘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다’(에페 1:12)”(전례헌장 6).

전례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승리와 개선이 재현된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다음에 나오는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 두 문항을 이해하게 된다. “전례는 교회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성사: 그리스도와의 지속적 만남

동시에 거기에서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다”(전례헌장 10). “전례 참여는 신자들이 거기에서 실제로 그리스도교 정신을 길어 올리는 첫째 샘이며 또 반드시 필요한 샘이기 때문이다”(전례헌장 14) 등이 그 문항이다. 만약 전례가 단순히 상징적인 예식이라면 이와 같은 주장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오직 전례가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를 계속적으로 재현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 하느님 계획의 실현

파스카 신비는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이다. 그리스도께서 중심이며 정점을 이루는 계획은 인간의 역사에서 점차로 밝혀지고, “땅에 있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한데 모으실”(에페 1:10) 때 절정에 이를 것이다.

이 구속 계획에 대하여서는 앞서서도 말한 바 있다. 그 계획은 ‘때가 차니’(에페 1:10)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써 완성된 것이다. 그리스도는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죽음을 부수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키셨다. 그로 인해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렇게 잔인하고 불의한 집행으로 보였던 것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의해서 참된 안목과 우주적 전례 안에 놓이게 되었다. 골고타는 새로운 대사제가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위한 희생제물을 바치는 우뚝 솟은 산이며 지성소로 보인다. 벌거벗고 십자가형을 받은 종은 이제 아론을 대신하여 멜키체덱의 제도를 따른 인류의 대사제로 등장하였다 (히브 7; 창세 14:18 참조).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것들을 주관하시는 대사제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람 손으로 만들지 않은, 곧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는 더 훌륭하고 더 완전한 성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성소로 들어가시어 영원한 해방을 얻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

전례: 파스카 신비와 성사생활

곳에, 곧 사람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느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히브 9:11-12,24).

묵시록도 이 전례를 역사의 절정이라고 묘사한다. “나는 또 어좌와 네 생물과 원로들 사이에, 살해된 것처럼 보이는 어린양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살해된 어린양은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영예와 영광과 찬미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묵시 5:6,12).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으셨다가 부활의 영광 속에서 살아나시고, 천국의 지성소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보편적 전례에서 합당한 제사를 바치시고, 당신 자신을 성부께로 합치시키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 서로 간에 단합을 이루게 하신다.

## 성사 안에 그리스도

이와 같은 전례, 모든 이들을 구원한 이 단 한 번의 제사, 예배 중에 가장 완전한 이 행위가 교회에 맡겨졌다. “그러므로 전례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수행하는 것이다”(전례헌장 7). 이 전례에서 예수님 자신이 모든 성사의 원천이고 구원이고 보이는 표지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화되신 분으로 (요한 1:14 참조) 그분 안에서 인류는 하느님과 만난다. 그분 안에서 “하느님을 눈으로 보아 앎으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주신다”(성탄 감사송 1).<sup>iv</sup> 그분은 당신이 취하신 인간성을 통해서 성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즉, 하느님은 당신의 생명을 인간에게 주시고, 볼 수 있는 피조물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고자 활약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 예수님은 기본적 성사인 교회를 세우실 때 이상의 원리를 좀더 연장하였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같으며 사실 그분의 형제들인 인간들은 숨겨진 성령의 영향을 받는다. 다른 성사는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접근하는 데 사용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가 그분의 치유와 성화은총을 모든 지체에게 전달하는



성사: 그리스도와의 지속적 만남

데에도 사용하는 수단이다. 교황 베네딕트 16 세는 『사랑의 성사』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교회는 일곱 성사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이를 표현합니다. 이 성사 덕분에 하나님의 은총이 구체적으로 신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쳐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신자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예배 행위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사랑의 성사 16).

‘성사’라는 말은 ‘신비’라는 그리스어에 해당하는 라틴어에서 왔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신비 안에서, 성바오로는 넓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의 활동을 보았다 (골로 1:26 참조). 이 신비 안에서 그리스도는 당신에게서 비롯된 위대한 성사인 교회에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로써 얻어진 풍요한 은총과 진리를 모두 쏟아 넣으셨다. 교회는 “십자가상에 잠드신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전례헌장 5) 탄생하였다. 예수 성심 감사송에는 “심장이 찢리시어 피와 물을 쏟으심으로써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성사의 원천이 되셨다”고 씌어 있다.

## 일곱 성사

성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밀착하게 된 신자들은 그분께 은총과 생명을 받는다. 신약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일곱 성사가 있다고 교회는 선언한다.<sup>v</sup> 그 일곱 성사는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성품성사, 혼인성사다.

각 성사는 빵, 포도주, 기름이나 행위 등과 같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다. 성사 기도문에서는 그런 물질적인 요소가 신앙의 표징이 되고, 인간을 위한 그리스도의 구원 행위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밝혀준다. 각 성사의 가시적인 표징은 그 성사로써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총을 상징하기도 한다.

전례: 파스카 신비와 성사생활

이 일곱 성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행위다. 성사는 하느님이 사람을 축복하셨고, 그리스도의 구속 자비가 사람을 구원하였다는 상징이며 표징이다. 성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파스카 은총의 결실을 나누기 위해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에게 가까이 갈 때 사용하는 신앙의 표징이다. 성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전례 행위를 통해서 성사로써 상징되는 은총을 실제로 주시는 데 사용하는 도구다.

교황 베네딕트 16 세는 다음과 같은 말로 일곱 성사의 일체를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성찬례가 참으로 교회 생활과 사명의 원천이며 정점이라면, 그리스도교 입문 과정은 언제나 성체성사를 지향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찬례는 그리스도교 입문을 완성시키며, 그리스도인의 모든 성사 생활의 중심이자 목표가 됩니다 (사랑의 성사 17).

### **물질적 표징**

예수님은 인간의 요구와 소망을 채우실 뿐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채워주심으로써 당신의 능력과 자애로우심을 보이신다. 예수님은 성사의 물질적 요소를 선정하실 때에 종교인들이 거의 만장일치로 성스러운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선정하셨다. 또한 그분은 그 요소의 원천은 하느님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생명과 특수한 관계를 맺는 요소를 선정하심으로써 지혜와 이해심을 보이셨다. 가끔 물이나 (요한 4:10-14 참조) 빵 (요한 6:27-28 참조)같은 물질의 강력한 상징적 힘을 부각시키기도 하셨다. 이런 요소들은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관습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물질들은 성부를 찬양하라는 그리스도의 노력과 인류의 노력에도 사용될 수 있다.

성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생명을 주시고, 인간성에 적응된 표현 양식을 사용하면서 하느님의 힘을 행사하신다. 성사는 그리스도의 선물이며, 그 분은 성사를 통해 모든 지역의 사람들에게 손을 뻗치신다. 그리스도는 지상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장소와 시간에 구애되는

성사: 그리스도와와의 지속적 만남

인간적인 제한에 참여하셨다. 또한 그분은 성사를 통해서 이러한 제한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조건에 맞는 가시적인 표징을 사용하면서 이미 현존하지만 감추어진 영원한 삶의 새 세계로 우리를 끌어들이신다. 그리스도의 성사적 행위는 당신의 모든 약속이 채워질 때까지 어디서나 계속될 것이다.

## 성사적 만남

그리스도를 통한 하느님과와의 성사적 만남은 드러나지 않는 만남이다. 그러나 성사의 요소가 우리에게 대한 하느님의 행위의 성격을 상징하기도 하므로 그 만남이 드러나기도 한다. 물은 씻음과 생명을 상징한다. 빵과 포도주는 음식을 표시한다. 기름은 치료와 힘을 의미한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의하면, 물질적인 요소가 상징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례 중에 이루어지는 하느님과와의 만남은 감추어진 것이지만 현실적인 만남이다. 우리는 모든 성사적 예식에서 하느님과와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신비로 인도된다.

모든 성사 안에서 사람은 찬미와 청원과 감사로써 하느님께 올라가며, 동시에 하느님은 생명과 다른 은총을 가지고 사람에게 오신다. 여기서 하느님의 사자들이 오르내리던 사다리에 대한 야곱의 꿈(창세 28:12 참조)을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각 전례는, 성탄절 기도문이 잘 표현하듯이, “경탄스러운 교환”이다.<sup>vi</sup>

## 전례의 거행

성사는 매우 현실적인 효과를 내는 상징적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유효하게 거행하려면 모든 표징이 사용되고 목표가 달성되도록 조심해야한다. 모든 상징적 행위를 위한 유효성에 대한 관심은 기본적 문제다. 집을 살 때에 계약서에 서명하는 상징적 행위도 유효성에서는 중요한

전례: 파스카 신비와 성사생활

규칙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계약서가 유효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서명에는 증인이 있고, 날짜를 기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상징적 행위가 유효하지 않으면 그 행위는 의미와 사용 가치를 상실한다. 그런 행위는 진정한 의도를 반영할지라도 기대하는 만큼 효과를 내지 않는다.

성사의 유효성을 위한 조건이 있다. 성사는 신앙의 표징이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행위이므로, 그리스도가 지정하여 교회에 맡긴 표징과 다른 것을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성사의 유효성을 위한 조건을 밝히는 것은 교회의 임무이며, 교회는 여태껏 그것을 해왔다. 예를 들면, 성서에 충실한 교회는 물로써만 성세를 유효하게 집행할 수 있고, 성체성사에는 다른 물질이 아니고 빵과 포도주만 사용될 수 있다고 가르친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물질적 표지가 그 자체 안에 성사적 힘을 가진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의 효력은 그리스도의 수난과 배려에서 나오는 것이다. 성사에서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공익을 위하여 위대한 행위를 하시는 것이므로 성사 집행이 그리스도의 구원 행위가 되려면 교회 안에서 성실이 이행되어야 한다.

물론 하느님의 관대하심이 성사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선의의 교역자가 성사를 유효하게 집행하는 일에 실패할 때, 하느님은 당신을 찾는 사람들의 요구를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실 수는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친히, 혹은 교회를 통하여 설정하신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성사는 여전히 거행되지 않은 것이다.

성사는 거룩한 행위이므로 성사의 인간 교역자는 큰 신앙과 사랑을 가지고 거행해야 한다. 그러나 교회가 늘 가르쳐온 것처럼 성사의 유효여부는 교역자의 성덕에 달려 있지는 않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결실을 얻고자 하는 것은 인간 교역자의 성덕이나 힘에서가 아니라 성사의 주역 집행자인 그리스도 자신에게 서다. 성사의 효력은 그리스도한테서 나오고 성사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세례를 줄 때 실제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다. 바오로가 세례를 줄 때 실제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다. 유다가 세례를 줄 때 실제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다.”<sup>vii</sup>

## 성사: 그리스도와와의 지속적 만남

은총에 의해서 생기는 몇 가지 인간적 자세는 성사를 유효하게 받는데 필요하다. 성사를 효과 있게 받기를 원하는 성인(成人)에게는 신앙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은총을 받을 개인적 원의(願意)가 있어야 한다.

교회는 존경을 갖고 성사를 돌볼 책임이 있다. 교회는 성사의 합법적 집행과 합당한 배령(拜領)을 위한 규칙을 만들어 이 선무에 적합한 존경과 신자들의 선익이 보존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공적 예배 행위를 이행할 장소와 환경에 대한 적당한 요구 조항을 강조할 수 있다.

그러나 성사의 집행에는 유효성과 합법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를 지키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요청된다. 각 성사 전례는 예배 행위로서 완벽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거룩한 목자들은 전례 행위에서 유효하고 정당한 거행을 위한 법규를 준수할 뿐 아니라 신자들이 잘 알고 능동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전례에 참여 하도록 돌보아야 한다” (전례헌장 11 항).

예식을 허겁지겁 활기 없이 해치우는 것은 성사 집행이라고 하기 어렵다. 우리의 전례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고 선포한다. 교회는 신자들이 전례에 “깊은 이해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완전히” 참여하기를 원한다. 전례의 본성이 완전하고 의식적이고 능동적 참여를 요청한다고 교회는 말한다 (전례헌장 14 항 참조).

그러므로 성사 의식은 기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믿음과 기쁨을 가지고 집행해야 한다. 성사를 즐겁게 집행할 때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뭉친다. 성사는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룩하는 데에 필요했던 파스카 신비를 회상케 한다. 성사는 그리스도께서 현재

주시는 은총을 상징한다. 또한 언제나 앞으로 올 영원한 삶을 가리키기도 한다.<sup>viii</sup>

## 준성사

우리는 이미 성사 집행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물질적 표지를 그리스도가 친히 지정하셨다는 것을 고찰하였다. 교회는 물질세계에 더욱 깊숙하게 손을 뻗쳐 다른 많은 - 실로, 거의 다라고 할 수 있는 - 물질들을 하느님께 대한 직접 봉사와 예배에서 표징으로 사용한다. 교회는 이것들을 준성사라고 불러서 그리스도께서 지정하신 성사의 표징과 혼동되지 않도록 한다. 준성사의 영적 효과는 사용자의 신앙과 신심에 달려 있으나 그와는 달리 성사는 구세주 자신의 연장이다. 구세주는 그것으로써 생명을 주고, 축복하고, 재생케 하고, 고칠 뿐 아니라 생명의 빵을 많게 하기 위하여 모든 장소와 시간에 당신 활동을 확장한다.

많은 이차적 표지, 예를 들면 제대, 세례대, 성당기물 등은 예배에 직접 도입되었다. 또한 일차적 표지를 보충하면서 성사의 의미를 드러내고 표현하며, 예배자들이 그 의미에 참여하게 한다. 이러한 표징을 탐구하고 개발하는 데 완전하고 의식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러한 표징들을 명백하게하고 강화하여 열정과 확신과 환희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신비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모든 풍부한 예식 언어들이 동원되어야 한다.

## 요약: 하나의 밀알

성사: 그리스도와의 지속적 만남

예수님 스스로 당신의 죽음과 부활 전날 밤에 파스카 신비에 대해서 설명하셨다. 그 설명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찌해야 하는지를 하나의 자연현상에 비유하여 신학적으로 풀이하고 있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요한 12:23-24). 예수님 자신이 ‘많은 열매를 맺기’위해서 죽는 ‘하나의 밀알’인 것이다. 파스카의 신비에서 유래한 이 열매는 성사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된다.

똑 같은 법칙이 ‘열매를 맺는 밀알’인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요한 12:25). 그래서 파스카 신비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방식에 스며들었다. “우리는 살아 있으면서도 늘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집니다. 우리의 죽을 육신에서 예수님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2 코린 4:11). 그리하여 우리 구세주의 파스카 신비 속으로 이끌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죽음을 봉헌하는 것은 성사 예식, 특히 성체 성사를 통해서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도들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내가 이렇게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우고 있습니다”(콜로 1:24).

## 토론해 봅시다

## 전례: 파스카 신비와 성사생활

1.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과 구속 사업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성사에 대한 가톨릭 신앙의 중요성에 대해서 토론해 봅시다. 성사에 대한 이러한 가톨릭적 이해방식과 교회 생활, 더 나아가 여러분의 신앙생활과의 연관성을 토론해 봅시다.
2. 이 장에서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완전한 성사적 표지가 현존하고 그 구원 목적이 성취되도록 교회의 성사가 신중하게 관리되고 거행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토론해 봅시다.
3. 이 장에서 설명되어진 바, 그리스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전례에 현존하신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전례에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상봉을 어떻게 심화시킬 수 있을지 토론해 봅시다.

### 더 읽어 봅시다

*United States Catholic Catechism for Adults*: Chapter 14 - "The Celebration of the Paschal Mystery of Christ."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1076-1130; 1179-1206; 1667-1676.

Pope Benedict XVI, *The sacrament of Charity (Sacramentum Caritatis)*. Post-Synodal Apostolic Exhortation, February 22, 2007.

### 기억 합시다



## 성사: 그리스도와의 지속적 만남

- 그리스도께서는 “특히 당신의 복된 수난과 저승에서 살아나신 부활과 영광스러운 승천의 파스카 신비”(전례 헌장 5 항)에 의해서 인류를 구원하셨다.
- 전례의 중심은 그리스도가 대사제임과 동시에 희생양이 되시는 성찬례, 즉 미사다. 미사에서는 파스카의 신비가 현존하게 되고 또 거행된다.
- 일곱 성사는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성품성사, 혼인성사이다. 이러한 성사들은 진정한 은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거룩한 표지들이다.
- 성사를 합당하게 거행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모든 표지들이 현존해야 하고 그 표지들의 목적이 달성되어야 한다.
- 준성사(제대, 성수, 성당기물 등)는 교회에 의해 제정된 표징들이다. 그 효력은 그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신앙과 신심에 달려있다.

## 제 2 장

### 성체성사: 생활의 중심

(가톨릭 교회 교리서 1322-1405; 1536-1589)

성체성사는 교회 생활의 중심이다. 그리스도는 파스카 신비로 인하여 당신 백성이 된 이들에게 성체를 통하여 현존하신다. 상징으로나 실제로나 풍부한 성체성사는 그리스도의 모든 실재를 내포하며, 그의 구속 사업을 대행한다: “교회안에서 이 지극히 거룩한 신비를 굳게 믿고 경건하게 거행하며 열심히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사랑의 성사 94).

“우리 구세주께서는 팔리시던 날 그 밤에 최후의 만찬에서 당신 몸과 피의 성찬의 희생 제사를 제정하셨다. 이는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세세에 영속화하고, 또한 그 때까지 사랑하는 신부인 교회에 당신 죽음과 부활의 기념제를 맡기시려는 것이다. 이 제사는 자비의 성사고 일치 표징이고 사랑의 끈이며,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받아 모시어, 마음을 은총으로 가득 채우고 우리가 미래 영광의 보증을 받는 파스카 잔치이다” (전례헌장 제 47 항).

이 장에서는 두 가지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성체성사와 그리스도교인의 생활에서의 성체성사가 갖는 중심적인 역할, 성체가 새로운 계약과 구원의 음식이 되는 이유,

성사: 그리스도와의 지속적 만남

성체의 풍성한 효과, 성체성사 안에 그리스도가 현존하심 등을 취급한다. 그리고 둘째로는 성체성사를 거행할 수 있도록 사람을 축성하는 성품성사이다.

## 성체성사: 그리스도교인 생활의 중심

그리스도교인 생활의 중심은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분의 강생과 구속활동으로 우리는 치유되고, 새로운 생활에 동참하도록 부름심을 받은 것이다. 그 생활은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한데 묶고, 삼위일체의 생활에 참여케 한다.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는 “성찬의 희생제사는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이라고 합당하게 선언했다 (교회헌장 11).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성체성사 안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분을 붙잡기 때문이다. 성체성사는 단순한 상징이나 예식이 아니고, 우선 인간이 예수님의 구속 활동과 하느님의 은총에 접근할 수 있는 성사다.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인 성찬의 희생제사에 참여하는 신자들은 성체성사 없이는 지역교회나 보편 교회의 존재를 생각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성체례 거행에 그 기초와 중심을 두지 않으면 결코 세워질 수 없다”(사제생활교령 6).

세례성사에서 시작되고 견진성사로 강화된 은총의 관계는 성체 안의 그리스도와 일치하고, 미사 중에 구원의 제사에 참여하도록 배려되었다. 성체성사는 고해성사와 병자성사의 치유 효과를 보완하는 ‘불멸의 약’이기도 하다. 성품성사는 성체성사의 제단에 봉헌된 사제직을 주고, 혼인성사는 성체의 결실인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일치를 상징한다.

교황 베네딕트 16 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받는 것은 성체성사를 받기 위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동화되고 교회에 합체되며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하는 세례성사는 모든 성사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세례성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전례: 파스카 신비와 성사생활

한몸의 지체가 되게하며, 사제다운 백성이 되게 합니다. 세례때에 받은 선물을 우리 안에서 완성시키는 것은 성찬의 희생제에 대한 참여입니다. 성령의 선물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세상에서 복음을 더욱 잘 증언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찬례는 그리스도교 입문을 완성시키며, 그리스도인의 모든 성사 생활의 중심이자 목표가 됩니다”(사랑의 성사 17).

## 새 계약의 제사

성체성사 안에 그리스도가 실존하시고, 성체성사는 교회 안에 파스카 신비를 재현하므로, 성체성사는 교회의 모든 직무와 사도직의 “원천이요 정점”(사제생활교령 5 항)이다. 성체성사는 하느님, 우리 자신, 동료 인간들을 사랑하는 데 관련된 각종 활동에 아름다움과 의미와 목적을 부여한다. 성체성사는 인간에게 초월자와의 접촉을 제공하여 인간 실존을 우주적이고 영구적인 차원에서 방향을 세우게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성체성사를 거행하면서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할 뿐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노동과 모든 피조물을 그리스도와 함께 봉헌하도록 불리고 인도된다”(사제생활교령 4 항).

우리는 예수님이 당신의 수난과 부활로써 우리에게 새 생명을 가져다 주셨다는 것을 배웠다. 그분은 수난과 부활로 새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당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하느님이 자녀며 당신 생명의 참여자로 만드셨다. 우리는 “영과 진리 안에서”(요한 4:23) 하느님을 예배하고, 하느님의 가족으로서 모든 사람의 희망이며 구원인 제사에 영원이 참석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요, 하느님의 새 백성이 되었다.

하느님의 이 같은 은총은 주로 성찬 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된다. 이 기념 제사는 구약성서에 예시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으며, 교회 안에서 생활화되었다.

## 구약성경의 예시

로마 전례의 성찬기도는 구원의 역사를 회상시킨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람을 아버지 모습대로 지으시어...

비록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잃었으나

죽음의 세력 아래 버려두시지 않고 자비로이 도와주시어

아버지를 찾는 이는 모두 만나 뵈옵게 하셨나이다.

또한 사람들과 거듭 계약을 맺으시고... (감사기도 제 4 양식)

그리스도의 강생 이전에도 하느님은 사람이 당신을 찾고 자비를 발견하게 하셨다. 하느님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제사를 드리면서 당신이 주님임을 인정하고, 당신의 백성으로서 함께 뭉치도록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특히 당신의 특별 계시로 지도를 받던 하느님의 선택된 민족에게는, 모든 민족과 시대를 위해서 구원을 얻을 그 유일한 제사를 예시하던 제사들이 있었다.

모든 진정한 제사는 하느님만을 향한 거룩한 봉헌이고, 구분이 모든 이의 주님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초월적 영광과 최상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예배자가 모든 사람보다 크신 그분께 다가가는 데에 도움이 된다. 구약성서에 나타난 많은 제사에서는 거룩한 잔치가 예배의 한 요소였다. 그런 제사에서는 하느님께 드린 온전한 봉헌을 상징하기위하여 제물의 일부가 파괴되었다. 그러나 제사에 사용되어 거룩해진 부분은 먹어버릴 제물에 다시 합쳐졌다. 이렇게 나누어 먹음으로써 하느님과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전례: 파스카 신비와 성사생활

창세기의 첫 장부터 ‘참여’는 하느님의 분명하고 일률적인 시도였음을 볼 수 있다. 하느님은 몇 번이고 사람들을 거룩한 예배로 부르셨고, 거기서 당신의 현존과 자비에 참여케 하셨다. 하느님의 이 모든 은총은 성체성사의 제정에서 절정을 맞이한다.

노아(창세 8:20, 9:9 참조)와 아브라함(창세 15:9,18 참조)의 경우에도 음식을 바치는 제사에서 계약이 맺어진다. 그 후 그들의 후손들이 이 계약 준수를 거절해도 하느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출애굽이라고 알려진 복잡한 사건을 통하여 구약에서 가장 큰 동맹을 맺으셨다. 여기서 다시 계약은 거룩한 잔치와 관련된다.

파라오 치하의 노예 상태에서 선민을 구출하시던 전날 저녁에, 주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에게 이렇게 일러라. 이달 초월흘날 너희는 가정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집집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마련하여라... 이 짐승은 일 년 된 흠 없는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가운데에서 마련하여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 나흘날까지 두었다가,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모여 저녁 어스름에 잡아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서, 짐승을 먹을 집의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한다. 그것을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이 있는 채로 불에 구워 먹어야 한다” (탈출 12:3, 5-8).

그리고 또 다른 지시가 있었다: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매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서둘러 먹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다. 이날 밤 나는 이집트 땅을 지나면서, 사람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의 막아들과 말배를 모조리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 신들을 모조리 벌하겠다. 나는 주님이다... 너희가 있는 집에 발린 피는 너희를 위한 표지가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칠 때, 그 피를 보고 너희만은 거르고 지나가겠다. 그러면 어떤 재앙도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탈출 12:11-13).

성사: 그리스도와와의 지속적 만남

이렇게 식사는 행방이라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도망을 준비하면서 단체로 먹어야 했고, 급히 먹어야 했던 음식의 상징을 하느님이 역사 안에 이루시려던 예식으로 표현하였다. 거기에 첨가해서, 장래에 이 예식을 반복하라는 주님의 특별 명령이 있었다: “이날이야말로 너희의 기념일이니, 이날 주님을 위하여 축제를 지내라. 이를 영원한 규칙으로 삼아 대대로 축제일로 지내야 한다... 너희는 무교절 축제를 지켜야 한다. 바로 이날, 내가 너희 부대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날을 영원한 규칙으로 삼아 대대로 지켜야 한다” (탈출 12:14, 17).

역사적으로는 시나이 산에서 있었던 십계명의 수여로 이집트 탈출 계약은 완성되었다. 그때에 선민은 계약상의 의무를 받았으며, 모세는 수송아지의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써 동의를 표시하였다. 그는 남은 피를 사람들에게 뿌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는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대로 너희와 맺으신 계약의 피다”(탈출 24:8).

이 구출 사건 전체를 ‘기념제’라고 불렀고, 매해 반복되던 파스카 잔치예식에 보존되었다. 파스카 양과 누룩 섞이지 않은 빵을 나누어 먹은 의식은 대대손손이 이어졌으며, 그 의식이 시작되기 전 가정은 주님께서 당신의 선민을 위하여 역사하신 정의로운 사건에 대하여 자녀들에게 설명하였다. 그들은 이 기념제를 공동체 축일 이상의 의미로 이해했으며, 축하하였다. 파스카 잔치가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는 기회로만 여겨진 것은 아니다. 이 잔치 때에 하느님의 백성은 자기들이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주님과 맺은 계약을 갱신하였다.

### **그리스도는 성체성사를 세우심**

최후 만찬 때에 주님은 새로운 기념 제사를 세우셨다. 참된 하느님의 어린양이 살육될 찰나였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수난과 부활로써 어떤 하 나라만을 구출하시려는 것이 아니었다. 가혹한 최의

전례: 파스카 신비와 성사생활

노예 상태에서 전 인류를 구출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분은 당신 성령의 풍부한 은혜로써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을 구성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사랑의 새로운 법률, 하느님과 의 새로운 친근성, 새로운 약속의 땅이 있어야 했다. 하느님께서 파스카 신비 안에서 수 세기에 걸쳐 내려오던 약속을 채우실 때에는 모든 것이 새로워질 필요가 있었다. 그러므로 새로운 기념 제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도 옳았다. 그 기념제는 최후의 완성 단계에 이를 때까지 모든 시대에 걸쳐 사람들을 이 시각의 구속 행위에 일치시키는 것이었다.

먼저 예수님은 파스카 예식의 세척을 이행하셨다. 그분은 이 거룩한 밤에 다가올 새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과거의 보배는 새 서물의 그림자이고 모형에 불과했다고 하셨다. 그는 새 계약의 규정을 선포하였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5:12). 예수님은 성부께 대한 사랑의 순종과 인간에 대한 사랑에서 우리를 위하여 완성하시려는 구속 사업에 관하여 말씀하셨다(요한 14:31 참조). 그리고 그는 당신에 대한 기념 예식인 성체성사를 그 구속의 제사가 되게하셨고 사람들에게 거행하라고 명령하셨다.

저녁식사 도중에 누룩 섞이지 않은 빵을 먹는 예식을 하다가 예수님은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요한 26:26-28). “끝으로 그분은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1 코린 11:24).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루카 22:20). 그런다음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마태 22:30; 마르 14:26 참조).

이집트 탈출 때 있었던 예식과 역사(役事) 사이에 있던 상호 작용이 새로운 파스카에서도 반복되었다. 이집트에서의 탈출과 시나이 산의 사건이 첫번째 파스카 식사 후에 발생하였듯이,



성사: 그리스도와의 지속적 만남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제사의 거행인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도 최후 만찬후에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신에 대한 '기념'으로 이 예식을 반복하라고 명령하셨으므로 최후 만찬은 우리 구원의 사건이 제시되는 예식의 배경이 되었다. 이 기념제에서 새로운 계약이 대대에 걸쳐 새롭게 재현될 것이다.

새 계약의 이 기념제도 파스카 식사와 마찬가지로 제사인 동시에 거룩한 식사다. 제사와 성사가 불가분하게 동일한 신비에 속해 있다. 십자가의 제사를 피흘림 없이 재현하고, 그 제사의 구속은총을 적요하는 미사성제에서 주님의 희생물로 바쳐진다. 미사 중에 축성의 말이 발음되면 예수님은 신자들의 영적 음식이 되기 위하여 빵과 포도주의 외형을 가진 성사 형식 안에 실존하시기 시작한다.<sup>ix</sup>

고대의 많은 제사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계약 제사도 피흘림으로써 완성되었다. 이 피는 염소나 송아지의피가 아니고, 최후 만찬 장소와 갈바리오에서 (히브 9:12 참조) 주례하신 사제 자신의 피라는 것을 신약성서는 상기시키다. 예수님은 오직 한 번만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으나 기념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피는 언제나 구할 수 있게 되었다. 교황 요한 베네딕토 16 세는 『사랑의 성사』 (10)에서 “성체성사 제정은 그 자체로는 폭력과 부조리인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그분 안에서 탁월한 사랑의 행위가 되고 인류를 악에서 결정적으로 해방시키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고 있다.

## 성체성사와 교회

초대 교회 생활을 기록하면서 당시의 교회 저자들은 성찬 예식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성찬이 공동체의 기본적 행사였고,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현존을 가장 잘 표시하고 보존하였기 때문이다. 사도행전에 성 루카는 예루살렘의 새로운 신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사도 2:42).

‘빵을 나누어 먹음’이란 구절은 신약성서의 다른 곳 (사도 2:46; 20:7,11; 27:35; 1 코린 10:16 참조)과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오래된 예식 지도서에도 나타나 있다.<sup>x</sup> 이런 말로 교회의 활동을 묘사하면서 그 저자들은 이미 성찬이 갖는 기본적 교회의 본성에 관하여 증언하였다. 오늘날의 교회도 성체의 공동체로 남아 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파스카 신비의 거행이기 때문이다. 성체성사는 “교회가 역사를 통하여 계속 이어갈 가장 소중한 예식”이다.<sup>xi</sup>

교황 베네딕트 16 세는 『사랑의 성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교회는 “성체성사로 삽니다.” 성찬례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희생제를 현존하게하므로, 우리는 “성체성사가 교회의 기원 자체에 영향을 미친 원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여야 합니다. 성체성사는 우리에게 당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당신 몸으로 계속 자라게 해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성찬례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거행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찬례를 ‘이룰’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당신 자신을 주신 것에 온전히 뿌리박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례를 거행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선물이 앞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성사 14)

성찬 예배의 전례 형식은 여러 곳에서 동시에 발전함으로써 자연히 다양한 형식이 발생하였다. 또한 다양한 신앙 공동체의 문화와 그들의 상이한 신학적 시각과 신심적 편애를 반영하였다. 이와 같은 외부 예식의 다양성은 아직도 남아있다. 예식의 각 형태를

‘의식’이라 부른다.

로마 제국의 서반부에서는 다양한 예식들이 결국 라틴 의식 안에서 통일을 이루었다. 동반부에서는 다양한 지역적 유산이 보존되었다. 그 두 가지 접근에서 전체 교회가 보호하고 소중히 하는 풍부한 전례가 자라났다 (동방 1-6).<sup>xii</sup>

## 신앙의 일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식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예식의 대상이 단일한 실재라는 신앙의 일치됨은 경탄스럽다.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은 둘 다 함께 우리의 구원을 이룩하였다: “이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셨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되살아나셨습니다”(로마 4:25). 구약의 반복되던 제사들과는 달리, 순종하는 죽음에 기초한 예수님의 단 한 번의 희생은 정말 충족스러운 것이었다. 히브리서가 강조하듯이 “대사제가 해마다 다른 생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듯이, 당신 자신을 여러 번 바치시려고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세상 창조 때부터 여러 번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쳐 죄를 없애시려고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히브 9:25-26).

## 한 번의 제사

미사성제가 거행될 때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시는 것은 아니지만, 미사가 거행될 때마다 그의 단 한 번의 제사가 재현된다. 하느님이며 동시에 사람인 분이 교회적 차원에서 교회 내에는 어디에서나 제헌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미사를 제정하였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한

전례: 파스카 신비와 성사생활

번만 봉헌된 피 흘린 제사가 재현되고,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 기념은 보존되어, 거기에서 나오는 구원의 힘이 우리가 매일 범하는 죄악을 용서해준다.<sup>xiii</sup>

십자가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미사에서도, 예수님이 하느님 아버지께 끝없고 무한한 찬미와 감사를 드리는 주례 사제이며 재물이기도 하다. 하지만 미사에서는 교회가 예수님과 공동으로 제사를 지낸다. 교회는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합쳐서 봉헌하기 때문에 사제와 제물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sup>xiv</sup>

그리스도는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1 코린 11:24)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제사를 지내라고 명하셨다. 미사를 지내는 것은 성스러운 직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행동하고, 그의 대리자가 되며, 살아 있는 그리스도를 현존케 하고, 파스카 신비를 재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신품성사를 통하여 부프시고 날인한 당신의 대리자로서 행동하도록 권한을 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의도에 따라서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주교와 사제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축성의 말을 발음할 때에 신약의 제사가 재현되어 신자들이 참석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교황 베네딕토 16 세는 저서 『사랑의 성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루카 22:19; 1 코린 11:25)하는 명령으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 선물에 응답하고 그 선물을 성사적으로 표현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주님께서 말하자면, 당시의 희생제에서 태어난 교회가 이 선물을 받아 성령의 인도 아래 성사의 전례 양식을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분의 완전한 선물을 기념하는 것은 단순히 최후의 만찬을 반복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찬례 자체, 곧 그리스도교 예배의 근본적인 새로움 자체에 있습니다”(사랑의 성사 11).

## 모든 이들을 위한 미사

성사: 그리스도와와의 지속적 만남

사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위하여, 만인의 구원을 위하여, 하느님의 백성의 여러 가지 요국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성부께 미사성제를 봉헌해야 한다. 미사성제는 최상의 예배 행위이므로 하느님에게만 봉헌될 수 있다.<sup>xv</sup> 교회는 제사를 꾸준히 봉헌함으로써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신앙이 충만한 추도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임명된 성직자에 의해 성사적으로 영속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새롭게 현존하는 제사를 봉헌하는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는 성사적 상봉을 통해서 가능하다.

성인의 축일을 맞아 미사를 지내면서 그 성인에게 존경을 드릴 수 있다. 그러나 하느님만이 이 완전한 숭배와 찬미를 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제사는 하느님께만 봉헌된다. 죽었거나 살아 있는 개인의 필요에 따라 미사가 봉헌될 수는 있지만, 그런 제한된 의향만을 위해서 미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 모든 미사 제헌의 주례자는 그리스도이므로, 그의 대리자인 사제는 그리스도의 보편적인 구원 목표에 참여해야 한다. 미사는 하느님을 찬미하고, 만인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총을 나누어주기 위해 지내는 것이다.

흔히 신자들은 자기들의 특별한 지향, 죽은 이의 영원한 안식, 어떤 영신적인, 또는 현세적 필요,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시 등을 위하여 미사를 드려달라고 청한다. 이런 청을 할 때는 보통 금전적 기부를 한다. 특별 지향을 위해서 미사를 드려달라고 미사예물을 바치는 것은 사실 미사의 결실 일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던 사람에게로 돌아가기를 청하는 것일 뿐이다. 미사예물은 그것을 바치는 사람이 미사성제에 좀더 깊이 참여하고자 한다는 원의의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미사예물의 봉헌자는 미사성제에 자신의 제물을 첨부하면서 교회의 요구와 특히 사제들의 생활에 특별히 공헌하는 것이다.<sup>xvi</sup>

## 거룩한 친교 (Holy Communion, 영성체)

## 전례: 파스카 신비와 성사생활

미사의 주례자에게는 성체성사를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 그는 가능하면 다른 사제, 부제, 주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하면 특별히 임명된 평신도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성사로서 받게 되는 성찬례는 “거룩한 친교 (Holy Communion, 영성체)”라고 한다. 하느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을 나누는 것이고, 그리스도 자신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형제자매들과도 친밀하게 일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친교”라 칭하는 것은 적절하다.

영성체는 미사성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사 참석자들이 받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보통의 경우에는 하루 한 번만 영성체를 한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신자들이 하루에 두 번 영성체를 할 수 있는 허락을 받는다.<sup>xvii</sup> 라틴 의식에 속하는 신자들은 보통으로 빵의 형태로만 영성체를 하지만, 빵과 포도주의 양형 영성체를 하는 경우도 많다. 단형이든 양형이든 영성체를 한다는 것은 성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전체를 받는 것이다.<sup>xviii</sup> 이것은 살아 계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빵의 외형 속과 포도주의 외형 속에 전체로 현존하시기 때문이다. 두 손으로 성체를 만지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임명된 사제들의 특권이며, 성체성사 직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나타낸다. 그러나, 교회는 사제나 부제가 아니더라도 그들을 돕는 사람들(특히, 미래에 사제나 부제로 임명될 사람들)이나, 필요에 의해 교회일을 돕고있는 평신도들에게도 그러한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경우 항상 적절한 준비과정을 거쳐야 한다.<sup>xix</sup>

## 참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집전 사제는 하느님께 모든 사람의 이름으로 미사성제를 바치는 것이다. 신자들도 자신들의 “왕다운 제관들”(베드 2:9 참조)의 힘으로 “봉헌에 참여”(교회헌장 10)하는 것이다. 신자들이 영성체를 함으로써, 또한 “사제의 손을 빌려서 제물을

성사: 그리스도와의 지속적 만남

봉헌할 뿐 아니라, 그 제물을 사제와 함께 봉헌하며 자기 자신도 제물로 봉헌하면서”(미사경본 총지침 3) 신비체의 지체로서 직책을 완전히 이행함으로써 봉헌에 참여하는 것이다.<sup>xx</sup>

미사는 그리스도의 행위이며, 교제적 질서를 갖춘 하느님 백성의 행위다... 그러므로 집전자와 일반 신도는 주의 만찬인 미사에 각자의 신분대로 참여함으로써, 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성체와 성혈으로써 미사성제를 제정하시어 당신의 수난과 부활을 기념하도록 사랑하시는 당신 신부인 교회에 맡기실 때에 목적하신 그 효과를 충분히 받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집회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해서, 교우들이 믿음, 희망, 사랑의 삼덕을 발하며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 의식적으로 더욱 완전하게 참여하도록 인도해주어야 하겠다. 이 같은 효과적 참여를 교회가 바라고 있고, 미사 집전 자체가 요구하며, 신자들이 세례로써 그런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sup>xxi</sup>(미사경본 총지침, 1 장:1-3).

교황 베네딕트 16 세는 “성체성사에 대한 신자들의 ‘능동적 참여’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때때로 약간의 오해가 있어왔음”에 주목한다. 그는 다음과 같은 글에서 “진정한 능동적 참여”의 필요성을 지적한다: “참여가 전례 거행 동안의 외적인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실 공의회에서 제기된 능동적 참여라는 개념은 거행되는 신비, 그리고 이 신비와 일상생활의 관례를 더 잘 인식하는 차원에서 더욱 근본적 의미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사랑의 성사 52).

성체성사에 대한 내실있는 참여를 위해서 신자들에게 몇가지 개인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조건들이 있다. 교황 베네딕트 16 세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이 조건 가운데 하나는 물론 모든

전례: 파스카 신비와 성사생활

신자의 삶의 특징이 되어야 하는 지속적인회개의 정신입니다. 자신의 생활을 반성하지 않고 성찬 전례에 피상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이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내적 준비는 예를 들어 전례 시작 전에 잠시라도 묵상과 침묵의 시간을 가지거나 단식을 통하여,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고해성사를 통하여 촉진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과 화해를 이룬 마음이 진정한 참여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회에 전하는 선교 노력을 포함하여 교회 생활 전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노력이 동반되지 않고서는 거룩한 신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신자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의 성사 55).

## 영성체의 필요성

우리가 영성체를 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서는 스스로 강조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요한 6:53).

하느님의 법에는 영성체를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교회는 신자들에게 적어도 일년에 한 번, 사순절 시작과 부활 시기의 끝 사이에 영성체를 하라고 명한다.<sup>xxii</sup> 또한 교회는 사람이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영성체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sup>xxiii</sup> 하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체를 자주 받아 영하게 됨으로써 그리스도와의 우정을 깊게 나누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자주 혹은 매일이라도 미사에 참여하게 영성체를 하라고 신자들에게 권고한다.

## 합당한 영성체

성체성사를 유효하게 받자면 영세한 가톨릭 신자로서 은총 지위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성체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믿어야 한다. 자신이 대죄를 범했다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은



성사: 그리스도와의 지속적 만남

영성체하기전에 고해성사를 받아야 한다.<sup>xxiv</sup> 대죄를 범한 사람이 영성체를 해야 할 긴급한 사정에 놓였는데 고백할 기회가 없으면 영성체 전에 완전한 통회를 하면 된다. 그리고 그 후에 기회가 오면 고해성사를 받아야 한다.<sup>xxv</sup>

단순히 교회법에 성체성사를 받는 사람은 은총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신약성서는 영성체를 합당하게 할 중대한 의무를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그러므로 부당하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그분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게 됩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없이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1 코린 11:27,29).<sup>xxvi</sup>

성체성사에 대한 공경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는 하느님 신비에 대한 감각이 더욱 뚜렷해지는 것은 분명 성찬 교리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확실한 표징입니다. 이는 신비 교육의 과정에서 신자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성체에 대한 공경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감사 기도의 중요한 부분에서 무릎을 꿇는 것과 같은 몸짓과 자세의 중요성을 생각해 봅니다. 다양한 문화적 상황에서 사용되는 표징의 합당한 다양성 가운데 모든 사람은 우리가 전례 거행 때마다 성사적 표징을 통하여 스스로를 낮추시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느님의 무한하신 위엄을 마주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경험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사랑의 성사 65).

### 공심재(空心齋)

교회는 우리에게 영성체하기 전에 한 시간 동안 음식과 술을 먹지 않고 공심재(空心齋)를 명한다. 이는 성체로써 우리가 받는 그분에 대한 외적인 존경의 공동 표시이고 참회하는

준비다. 환자와 노인은 15 분의 공심재로 넉넉하다.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는 공심재가 필요없다. 물을 마시거나 약을 먹는 것은 공심재를 깨는 게 아니다.<sup>xxvii</sup>

교황 비오 12 세는 이런 쉬운 공심재를 제정하면서 할 수 있는 신자는 옛날식 공심재, 즉 자정에서부터 모든 음식과 물도 포함된 음료수를 전연 먹지 않는 공심재를 지키라고 권하였다.<sup>xxviii</sup>

세례성사도 교회의 회원 자격을 줌으로써 영성체하기 위한 준비를 시킨다. 성찬 예식은 교회의 가장 특징적이고 중요한 활동이다. 그러므로 영성체는 성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현존에 대한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모든 것에 대한 신앙의 표현이다. 미사성찬에 충분히 참석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신앙 행위다. 신자들은 영성체를 통하여 자기들과 하느님을 결합시키고, 자기들 서로를 일치시키는 믿음을 확인하고 강화한다.

영성체의 의미가 이렇기 때문에 비가톨릭 그리스도인들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톨릭 교회에서 영성체를 할 수 있다. 그 예외적인 경우는, 영성체를 하는 비가톨릭 그리스도인이: (1)성체성사에 대해서 가톨릭 신자들과 같은 정도의 믿음을 갖고있거나; (2)성체성사에 대해서 영적으로 깊은 필요성을 느끼거나; (3)오랜시간을 거치는 동안 그들 자신의 교회에서 소통하는데 실패했음이 확실하거나; (4)본인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영성체를 요청하는 경우 등이다. 그 예외적 경우는 지역 주교가 판단해야 한다.<sup>xxix</sup>

## 상징과 실재

성사: 그리스도와의 지속적 만남

성사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위적인 표징으로 성사의 효과를 상징하며, 상징하는 것을 달성한다. 성체성사의 경우에도 그것이 사실이고 신자들이 주의 만찬상에서 영성체할 때에 더욱 그렇다.

## 성체는 음식이다

성체성사의 가장 자명한 표징은 음식의 모형이다. 파스카 잔치에서 사용되던 음식은 구약 시대의 팔레스티나 지방의 주식이었다. 빵은 누구나 먹는 가장 흔한 음식이었다. 포도주는 가난한 집에서도 마시던 보통 음료수였다.

서방 교회에서 누룩 섞이지 않은 빵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것이 최후 만찬에서 쓰였기 때문이다.<sup>xxx</sup> 성바오로는 누룩 섞이지 않은 빵은 순수성과 새로움의 상징이라고 보았다(1 코린 5:6-8 참조). 누룩이 섞인 빵보다 섞이지 않은 빵을 준비하는 것이 쉽기도 했지만 이 빵은 이집트 탈출과 연관된 '순례의 민족'사상에 잘 부합하였다. 우리는 순례의 교회이므로 우리가 아직도 약속된 땅으로 가는 도중에 있음을 상기시키는 영적 빵을 받는다.

포도주는 커다란 흥겨움을 연상시킨다는 것이 대중의 생각이었다(시편 104:15 참조). 부상당한 여행자의 상처에 포도주를 부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일화와(루카 10:34 참조), 위장병이나 재발되는 여러 종류의 병에도 포도주가 좋다고 디모테오에게 권유하던 바오로의 충고는(1 디모 5:23 참조) 고대인들이 포도주에 약간의 약효가 있다고 보았던 증거다. 포도주가 사용되는 미사에는 음식의 상징이 아직도 보존되어 있다.

최후 만찬에서 먹고 마시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음식을 상징하고 있는 것과 잘 맞는다. 예수님은 설교 중에 성체성사가 음식의 일면을 가질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요한 6:35,55).

성체성사는 그것이 상징하는 대로 자양분을 주는 효과를 낸다. 예수님 자신의 현존은 개인의 요구와 공동체의 요구대로 영성체하는 사람에게 은총을 주기 때문이다. 우리가 죄악으로 상처를 입으면 그리스도와 그의 은총은 이를 치료해준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성덕으로 나아가는 만큼 우리의 상징을 강화하고 촉진하신다: “그리고, 성체성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들과 그리스도 제자들의 인간적 형제애를 가장 깊게 계시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시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성사가 그 형제애를 드러내기 위한 ‘기회’로만 간주될 수는 없다. 주님의 몸과 피의 성사를 거행할 때에는 신적 신비의 위대함이 온전히 존중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현존하시고 영해지며 영혼에게 은총과 장차 올 영광의 담보가 주어지는 이 성사적 표지의 뜻 전체가 존중되어야 한다” (인간의 구원자 20).<sup>xxx1</sup>

## 일치의 상징

성체성사는 교회의 일치도 상징한다. 그리스도는 최초의 미사성제 자리에서 교회의 일치를 위하여 기도하셨다(요한 17: 20,21 참조). 그리스도가 사용하신 빵과 포도주는 그 자체로 일치의 상징이다. 많은 밀알이 모여서 빵을 이루고, 많은 포도알이 모여서 포도주를 이루듯이 하느님의 가족이 모여서 하나가 된다. 옛날의 성찬기도는 이 점을 지적해준다: “이 찢개진 빵이 한때 들에 흩어져 있다가 모여서 한 덩어리가 되었듯이, 당신의 교회도 지구의 끝에서부터 모여서 당신 나라가 되게 하소서.”<sup>xxxii</sup>

빵을 공동체가 나누어 먹는 그 자체가 일치를 상징한다: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1 코린 10:17).

성사: 그리스도와의 지속적 만남

성체성사는 “교회의 단일성을 표시하고 실현한다”(일치운동교령 제 2 항). 주로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의 일치성을 이룩하는 것은 사랑이다. “전례는 신자들이 ‘파스카 성사로 힘을 얻어 그 사랑 속에 한 마음이 되도록’ 격려하고,<sup>xxxiii</sup> ‘믿음으로 받은 것을 생활로써 지키도록’ 기도하며,<sup>xxxiv</sup> 주님과 인간의 계약이 성찬례에서 새로워져 신자들을 그리스께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이끌고 불타오르게 한다”(전례헌장 10 항).

우선 영성체가 강화하고자 하는 일치성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일치다. 최후 만찬 자리에서 그리스도는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요한 15:4)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통하여, 우리는 서로 함께 뭉치며 사랑의 활동을 통해서 서로를 위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된다.

교회의 일치에 대한 상징으로서, 명백하게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다: “... 성찬 전례가 본질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께 다가가게 하는 하느님의 행위(actio Dei)이기 때문에 그 기본 구조는 우리 마음대로 바꾸거나 최신 경향에 얽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례의 거행은 살아 있는 전승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의 체험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성찬 희생제를 거행합니다”(사랑의 성사 37).

### 성체성사와 영원한 생명

성체성사가 세 번째로 상징하는 것은 우리의 천상유산이다. “우리는 이 지상의 전례에 참여하며 나그네들인 우리가 걸어 나아가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서 거행되는 천상의 전례를 미리 맛본다. 그곳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와 참다운 성막의 사제로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전례헌장 8 항).

전례: 파스카 신비와 성사생활

성찬 예식 전체는 완성된 하느님의 나라를 상징한다. 하느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신자들의 공동체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하느님의 오좌 주위에 모여 지극한 기쁨을 느끼며 그리스도에 대한 영원한 찬미에 합세할 것이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듯이(창세 15:1 참조)하느님 자신을 영원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지상의 미사성제 거행에서는 이 모든 것을 미리 체험한다. 성찬예식의 평화와 아름다움과 질서는 현세에서는 언제나 불완전하지만 역시 천국의 조건을 예시한다.

미사 참여는 우리를 지상의 살아 있는 교회와 일치시킬 뿐 아니라, 지워지지 않는 신앙으로 표시되어 우리보다 먼저 죽은 이들과도 일치시킨다. “그러므로 성찬의 희생제사를 거행하는 우리는 천상교회의 예배와 밀접히 결합되고 일치되어...모든 성인을 기억하고 공경한다”(교회헌장 50).

무엇보다 더 경탄스러운 것은 우리가 최대의 보상, 즉 우리 안에 하느님의 현존을 미리 체험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성체 안에서 약한 신앙을 통해 하느님을 옛날 거울처럼 불투명하게나마 볼 수 있다. 우리가 천국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1 코린 13:12) 주님도 그분과 같은 주님이시다. “인간은 하느님의 사랑만이 줄 수 있는 참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 되었습니다... 또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우리는 모두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인도받아야 합니다. 그 목적지는 바로 죄와 죽음을 이기신 주 그리스도, 성찬례 거행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현존하시는 그분이십니다”(사랑의 성사 30).

## 현존

성사: 그리스도와의 지속적 만남

성체 안에 빵과 포도주의 외형 아래 예수님이 현존하신다는 교회의 신앙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 자신의 설교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보리빵을 많게 하신 후 주님은 성체에 관한 해설에서 (요한 6:22-71 참조) 먹는 이들에게 영생을 주는 그 빵과 보통 빵을 대조시켰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요한 6:48,51).

이 주장에 대한 군중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었다. 어떤 사람은 이 약속은 믿기에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다. 이 가르침을 받고 당황한 이들은 강한 반감을 지니게 되어 많은 이들이 떨어져나갔고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기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열두 제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였다. 이런 개념은 그것을 배척한 이들이나 받아들인 이들 모두에게 직접 체험을 훨씬 초월하는 것이었으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느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라고 인정하여 자신들의 감관보다 그분의 보증에 더 큰 신뢰를 두었기 때문이다 (요한 6:69 참조).

그렇지만 그 두 집단은 한 가지 점에서는 분명히 일치하였다. 그 청중들은 모두가 예수님이 하신 주장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알아들었다. 예수님도 당신의 주장이 다르게 이해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성서 주해자들이 재삼 지적하여왔듯이 불신자들은 떠나갔어도 예수님은 당신의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셨고, 당신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의 이해를 바꾸려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놓고, 실제로 당신이 시적으로 또는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명하지도 않으셨다.

전례는 성체성사가 ‘신앙의 신비’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교황 베네딕트 16 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신앙의 신비여!’ 축성 다음 바로 이어지는 이 말로 사제는 거행되고 있는 신비를 선포하고, 빵과 포도주가 주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는 실체 변화, 인간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이 실재 앞에서 자신의 경이로움을 표현합니다. 성체성사는 탁월한

전례: 파스카 신비와 성사생활

‘신앙의 신비’로서 ‘우리 신앙의 요약이고 집약’입니다. 교회의 신앙은 본질적으로 성찬의 신앙이며, 특별히 성찬의 식탁에서 자라납니다... 모든 주요한 개혁은 주님께서 성찬을 통하여 당신 백성들 가운데 현존하신다는 믿음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과 어느 모로든 연결되어 왔습니다” (사랑의 성사 6).

겸손과 존경심을 가지고 이 신비에 접근해야 한다. 평화를 유지해야 하는 인간의 이성에 의지하지 말고, 하느님의 계시에 굳게 귀의하면서 접근해야 한다.<sup>xxxv</sup> 그래서 성요한 크리소스토모는 성체성사에 관한 성베드로의 신앙의 모범을 따라서(요한 6:68 참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느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이성과 지능에 위배된다 해도 미사에 있어 그분께 순종하고 반대하지 맙시다. 우리 감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에만 주의를 국한시키지 말고, 하느님이 말씀하신 것을 굳게 믿으며, 모든 신비에 대하여 그와 같이 행동합시다. 그분의 말씀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sup>xxxvi</sup>

## 완전한 현존

성체 안에 예수님이 현존하시는 양식이 교회 안에 현존하시는 유일한 양식은 아니다. 그러나 성체 안의 경이스러운 현존 양식은 독특하다. 교회가 믿고 기도하고 자선 사업과 신앙의 활동을 할 때에 예수님은 분명히 특별한 양식으로 교회와 더불어 계신다. 교회의 주교와 사제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성사를 집행할 때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러나 미사 때에 이루어지는 성체성사 안에 예수님의 현존은 참된 현존이라고 묘사될 만큼 특별한 성격을 갖는다. 다른 형태의 현존이 ‘실제적’이 아니기 때문이기보다는 성체 안에 있는 현존은 ‘완전한 의미의 현존’이기 때문이다.<sup>xxxvii</sup> 다른 여섯 가지 성사는 신자에게 은총을 주고 활동케 사시는 그리스도와 상봉시키는 의식이다. 그러나 성체성사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성사: 그리스도와와의 지속적 만남

예수님이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양식은 보통의 필요한 장소와 공간을 초월하므로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예수님이 성체 안에 현존하시기 위하여 몸을 축소시킨 것도 아니고, 자연적 방법으로 현존하시면서 빵과 포도주의 얇은 두께 속에 숨어 계신 것도 아니다. 성체 안에 완전하게 현존하시는 분이 동시에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부활하신 구세주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신비이다. 그리스도께서 제대 위에 현존하신다 해도 조건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지상에 현존하시기 위하여 천국을 떠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많은 미사가 동시에 거행되어도 마찬가지다. 변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시다. 다만 그분이 현존하시는 장소의 수가 많아지는 것뿐이다.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말라 1:11) 매일 전 세계에서 미사성제가 거행되어도 예수님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가 영성체를 통하여 영해져도 그분이 줄어들지 않는다. 부활 날 저녁에 부활 초의 불빛을 신자들이 나누어 가져도 그것이 더 밝아지거나 어두워지지 않는 것처럼, 또한 복음서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미사에 참석하는 집회의 성원들이 모두 나누어 받아도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미사성제를 지재도 예수님의 몸과 피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 성체의 형상 안에 현존의 의미

성체 안에 예수님의 현존의 의미가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양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빵과 포도주를 들고 축성의 말을 했을 때 의미가 크게 변한다. 지상의 음식과 음료수만을 의미하던 것이 이제 더 많은 의미, 즉 예수님의 현존을 의미한다. 우리가 보는 것의 목적도 변한다. 지상 음식의 목적은 자연적인 육체의 생명에 봉사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성체의 보이는 외형에 와 닿자마자 추진력과 동력은 완전히 달라진다. 빵과 포도주는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기르고, 영생을 위하여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음식이 된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보다 더 깊고 그것의 기초가 되는 것은 ‘실체변화(實體 變化)’라고 하는 실존 양식의 변화다. 빵과 포도주의 외형은 이제 새로운 실재를 내포하기 때문에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목적을 갖는다.<sup>xxxviii</sup> 신앙은 이 실재, 즉 예수님의 현존과 깊은 관계가 있다. 예수님은 영신적으로 당신의 지식과 관심과 활동으로써만 현존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이며 사람으로서 독특하고 전체적이며, 실재적으로 또한 영구히 현존하신다.<sup>xxxix</sup>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를 들고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내 피니라.”하셨다: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신앙을 가졌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성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참으로 당신의 몸이고 피라고 믿어왔다. 사제가 재물을 들고 축성의 말을 했을 때 빵과 포도주는 없어지고, 그때부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빵과 포도주의 안에 들어 있는 것은 경배하올 주 예수님의 몸과 피인 것이다.”<sup>xl</sup>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그것이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이 문제에 대하여 교육을 받아, 빵으로 보이고 빵의 맛을 가졌으나 그 빵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포도주로 보이며 맛도 포도주의 맛이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라는 굳은 신앙을 가졌으니, 영신적 음식인 이 빵을 받아먹음으로써 당신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당신 영혼의 안색을 기쁘게 하시오.”<sup>xli</sup>

그리스도께서 성체 안에 성사적으로 현존하실 때에 일어나는 변화는 아주 극단적이며 실제적인 변화다. 축성 후에 빵과 포도주의 외형이 남아 있는 한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계속 현존하신다. 5 세기에 알렉산드리아의 치릴루스 성인은 성체의 부분이 그 다음날까지 남아 있으면 성화하는 힘을 잃는다는 그릇된 견해와 투쟁한 적이 있었다. 그는 그 견해를 배척하였고, 신앙이 언제나 선포해온 믿음으로 대답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변하지 않고 그분의 거룩한 몸은 그대로 있으므로, 생명을 주는 축복의 은총과 힘은 그 안에 계속 남아 있다.”<sup>xlii</sup>

성사: 그리스도와와의 지속적 만남

성체성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속 현존하신다는 신앙에서부터 성체 안에 그리스도께 대한 신심이 미사를 떠나서도 점차로 발전하였다. “미사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체 공경은 교회 생활에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입니다”(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25).<sup>xiii</sup>

### 성체조배

축성된 제병 (성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체의 형상이 존속하는 동안 그 안에 현존하신다는 신앙이 깊어짐에 따라 미사가 끝난 뒤에도 성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교황 베네딕트 16 세는 미사와 성체공경과 성체조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 하신다: “성찬례에서 하느님의 아드님께서는 우리를 만나러 오시고 우리와 하나 되기를 바라십니다. 성체조배는 그 자체로 교회의 최고 공경 행위인 성찬례 거행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미사 밖에서 드리는 성체 조배는 미사 전례 거행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연장하고 강화합니다”(사랑의 성사 66).

교회의 초기에 성체를 보존하던 중요한 이유는 전례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 특히 환자와 죽어가는 이들을 돕기 위해서였다. 그들이 영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님의 성사를 존경스럽게 모셔가곤 하였다.

시간이 흐르고 경건에 찬 연구가 쌓이면서 교회 안에 성체에 대한 신심은 늘어갔다. 성체성사 안에 예수님이 참으로 현존하신다는 것을 믿는 신자들은 이 성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시는 그리스도를 공경하게 되었다. 성체성사가 있는 곳마다 우리의 주님이요, 하느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그래서 이 성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어디서나 예배를 드려야 한다.<sup>xiv</sup> 성체에 대한 예배는 무릎을 꿇거나 절하기, 성체조배 등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신심 행위로 표현되었다.

13 세기에 예수님의 지속적 현존에 해단 교회의 감사드리는 태도가 열렬해졌을 때 아시시의 성프란치스코, 성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성인들의 힘으로 성체 대축일이 제정되었다. 아름다운 성가와 공식적인 행렬을 포함하는 이 축일은 인기를 끌었고, 성체에 대한 신심의 발전을 더욱 촉진하였다.

성체를 보통 안치해두는 감실에서 가끔 제대 위로 모셔 내놓고 조배하는 수가 있다. 이때에 통상적으로는 성체를 성광 속에 안치하여, 현존하지만 보이지 않는 주님을 공경하는 신자들이 성체를 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성체현시 기간을 어떤 때는 몇 시간으로 연장하고, 성시간이라 불렀다. 가톨릭 성당에서는 성체축일이면 40 시간 성체조배를 하는데, 그때에는 본당의 성체 생활을 강화하기 위하여 온 종일이나 그 이상 제대 위에 성체를 계속 내놓고 모신다. 이러한 성체현시가 끝나면, 사제는 사람들 앞에서 성체를 들어올려 강복한다. 이 마지막 의식으로부터 ‘은총이 충만한 성사의 축성’이라는 이름이 나왔다.

어떤 교구나 수도단체에서는 성체를 계속 현시해놓고 영구조배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성당은 신자들이 현존하는 그리스도께 조배할 수 있는 곳이다. 신자들이

감실 안에 계신 주님을 방문하는 것은 참된 현존에 대한 하나의 신심 양식이며 교회가 열렬히 장려하는 것이다.<sup>xlv</sup>

19 세기 후반부터 가톨릭 신자들은 국제 성체대회를 열어 전례 생활이나 연구 발표회 외에 갖가지 행사를 한다. 이 모든 것은 현세에서 우리가 받은 하느님의 큰 선물에 보답하기 위해서이다. 빵과 포도주의 외형안에다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는 하느님의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마음을 모아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것이다.<sup>xlvi</sup>

## 성체 공경의 효과

성체성사에 대한 진정한 참여는 모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교황 베네딕트 16 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심으로써 “모든 것을 포괄하는 성체조배의 효과”에 대해 주목한다: “우리의 생각과 정서, 말과 행동 등 참으로 인간적인 모든 측면은 완전히 실현되어야 하는 그 적절한 모습을 성체성사 안에서 찾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체성사를 통하여 드러냅니다. 인간의 삶 안에서 하느님 예배는 사사롭거나 개별적인 것으로 축소될 수 없고, 그 본성상 삶의 모든 측면에 스며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예배는 우리가 삶의 모든 상황을 체험하는 새로운 방식이 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관계안에서 하느님께 바치는 봉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의 모든 개별적인 부분이 드높여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사 71).

### 토론해 봅시다

1. '최후의 만찬'과 관련된 복음서(루카 22:7-20; 마태 26:17-29; 마르 14:12-25)을 읽어 봅시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성체성사가 어떤 방식으로 모든 전례에서 그의 구속 사업을 계속 가능케하는지 토론해 봅시다.
2. 그리스도가 성체성사에 진실로 현존함에 대한 가톨릭의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바를 토론해 봅시다. 왜 이러한 가르침이 교회와 신앙의 생명에 중요한지를 토론해 봅시다.
3. 성체성사가 여러분의 일상생활 및 영적 성장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토론해 봅시다.  
그리스도, 그의 몸 그리고 교회와의 우리들의 친교 및 소통을 위한 성사적 수단으로서의 영성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토론해 봅시다.

### 더 읽어 봅시다

*United States Catholic Catechism for Adults*: Chapter 17 "The Eucharist: Source and Summit of the Christian life."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1322-1405; 1536-1589.

Pope Benedict XVI, *The sacrament of Charity (Sacramentum Caritatis)*. Post-Synodal Apostolic Exhortation, February 22, 2007.

## 기억 합시다

### 성체성사

-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마태 26:27-28).
- 예수 그리스도는 ‘최후의 만찬’에서 빵과 포도주를 그의 몸과 피로 변하게 하시고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한 것처럼 하라고 명령했다.
- 미사에서, 그리스도는 사제를 통해서 빵과 포도주를 그의 몸과 피로 변하게 하시고, 그가 한때 십자가에서 봉헌했던 제사가 우리를 위해 현존하게 하신다.
- 영성체를 가치있게 받는다는 것은 영생에 대한 확실한 희망을 갖게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은총이 충만한 상태에서 성체성사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영성체를 가치있게 받을 수 있다.
- 우리는 은총이 가득한 성사속에서 그리스도를 찬미하게되고, 그는 항상 우리의 구세주이자 친구로서 그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 “지극히 거룩한 성체성사 안에 교회의모든 영적 선이 내포되어 있다. 즉,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안에 계신다”(직무 5). 따라서, 이러한 성체성사는 그리스도의 모든 삶과 활동의 원천이 된다.

## 제 3 장

### 성품성사와 사제직

(가톨릭 교회 교리서 1533-1600)

#### 사제직의 기원

그리스도는 성체성사를 제정하시던 최초의 성목요일에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라고 하시면서 사도들에게 사제직을 주셨다.

그분은 성체성사를 세우실 때에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재현하기로 작정하신 것이다. 그 후부터 이 거룩한 신비가 당신의 기념으로 거행되도록 주관하는 책임을 사도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해서 성품성사는 그리스도의 의도와 최초의 성목요일에 하신 그분의 명시적 행동에 그 기원을 둔다.

성품성사와 그리스도교의 위대한 파스카 성제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사제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을 바치셨다. 그런데 성체는 그 제사를 계속적으로 재현한다. 사제직은 하느님의 이 사업에 인간이 특별히 참여하는 것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최초로 부활하신 날에 당신의 새 사제들에게 입김을 내부시고 죄를 용서할 권한을 주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요한 20: 22-23).



성사: 그리스도와와의 지속적 만남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진 사제직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사제직’ 이었다. 우리 주 구세주 주님은 이것을 제정하셨고, 당신 몸과 피를 축성하여 봉헌하고 집행하는 권한과, 죄를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는 권한을 주셨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권한을 사도들과 그들이 후계자에게 주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가톨릭 교회의 전통도 항상 그렇게 가르쳐왔다.<sup>xlvii</sup>

성품성사는 그 ‘부름’ 또는 ‘위임’의 기원이 마치 해당 공동체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는다. 성사에 의한 사제직은 그리스도 자신 즉, 그분의 유일한 사제직으로 부터 공동체에 부여되는 진정한 선물이다.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은 그분이 모든 이로 하여금 영적 제사를 봉헌할 수 있게 하고, 그들 중 몇몇을 성체성사를 집행할 권한이 주어지는 성직자로 ‘부른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는데, 모든 신앙인들이 함께 봉헌하는 그 성체성사에서는 하느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영적 제사가 이루어진다.<sup>xlviii</sup>

성품성사는 그리스도의 강생에 기초를 둔다. 하느님의 아들은 성부께서 당신에게 주신 생명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다. 그분의 활동은 죽음, 부활, 승천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그래서 사제직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명에 근거한다. 그리스도는 사제직을 통하여 당신의 구속 활동을 계속 볼 수 있게 하고자 하셨다.

## 그리스도와와의 일치

그리스도의 사업이 당신 교회에 전수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인격과 행동에 참여한다는 개념이 중요하다. 은총을 통한 이러한 참여는 그리스도의 생활과

전례: 파스카 신비와 성사생활

직결되어 있다. 성품성사를 받은 신자는 많은 신자 중에서 선택되어, 그리스도의 사제적 사명에 더 깊이 참여하게 된다.

사제로 서품되는 사람은 세상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시는 하느님의 표징이 된다. 그 사람의 축성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완전히 비우신 것을 표현하며,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전히 실현될 그날을 예시하기도 한다. 사제는 그리스도와 아주 긴밀하게 일치하므로 사제직은 그 실존의 영구적 부분이 된다. 철학적인 용어로 하면 사제직은 한 사람의 단순한 역할이 아니라 그 실존의 한 측면이다. 신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사제직은 하느님께서 주신 물릴 수 없는 선물이다. “너는 멜키체덱과 같이 영원한 사제다”(시편 110:4).<sup>xlix</sup>

사제가 그리스도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교회는 사제직이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그리스도와의 일치라고 말한다. 성품성사를 받을 때에 사제는 “새로운 방법으로 하느님께 축성되고,” 그들은 “영원한 사제이신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도구가 되어, 천상의 힘으로 온 인류 사회를 재건하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활동을 시간을 통하여 계속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사제생활교령 2 항). 사제직은 “그리스도교 입교성사들을 전제하지만 개별 성사로 수여된다. 이 성사로써 사제는 성령의 도구로 특별한 인호가 새겨지고 사제이신 그리스도와 동화되어 머리가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행동할 수 있다”(사제생활교령 2, 교회헌장 10 참조).

교황 베네딕트 16 세는 성체성사와 성품성사의 관계의 종대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선 우리는 성품성사와 성체성사의 관계는 주교나 사제가 머리가신 그리스도로서 집전하는 미사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제 서품이 성찬례의 합당한 거행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고 가르칩니다..... 사제는 무엇보다도 다른 이들을 위한 종이므로, 주님의 손에 맡겨진 순종적인 도구로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징이 되도록 언제나 노력하여야 합니다”(사랑의 성사, 23).

성사: 그리스도와의 지속적 만남

그리스도는 사제 안에서 여러 모습으로 사시고 행동하신다. 사제와 그리스도와의 일치  
교부들이 지은 많은 저서의 주제가 되었다. 예를 들면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것은 하느님을 무시하는 것이고,<sup>i</sup> 그리스도의 손은 사제의 손을 통하여  
움직이며, 그리스도의 치유 활동은 사제를 통해서만 완성된다고 말했다.<sup>ii</sup> ‘다른 그리스도’로서  
사제가 갖는 힘은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을 이행하는 독특한 능력에 기초를 둔다. 축성된  
빵을 봉헌하는 사제를 볼 때에, 우리는 그의 손에서 그리스도의 손을 본다.<sup>iii</sup>

사제가 그리스도와 일치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업을 영속시키는 유일한 힘을 행사할 때에  
표현된다(교회헌장 10 참조). 사도들의 본질적 행동은 복음의 선포, 공동체의 구성과 지도, 죄의  
용서, 병자의 도유, 성체성사의 거행, 인류를 구원하며 하느님을 찬미하는 그리스도의 사업의  
연장 등이다. 요약해서 말하면, 사제직에 서품된 사람들은 성화하고 가르치고 다스리는 역할의  
참여자다.<sup>iiii</sup>

### 그리스도의 활동을 대행함

그리스도께서 선생이고 증인이며 구원하는 제사의 도구의 역할을 하듯이 사제도 마찬가지다.  
사제의 모든 존재와 활동의 원천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사제를 통하여 당신의 사제  
생활과 활동을 현세에서 실현시킨다.

사제는 그리스도의 활동과 일치하는 방법에서 교회의 다른 모든 성원들과 구별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업을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힘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지를 보여주었다.  
성바오로는 자기가 그리스도의 보내심과 명령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을 분명히 의식하였다  
(2 코린 5:18-20, 6:4 참조). 신약성경에서 우리는 이 사명이 계속 전수되어야한다는 의무와

전례: 파스카 신비와 성사생활

함께 전해진 것을 읽는다. 한 곳에는 “아무에게나 선뜻 안수하지 마시오”(1 티모 5:22) 라는 엄숙한 경고도 있다. 티모테오 전후서와 티토서에서는 안수의 성사적 성격에 대해 설명하고, 성품성사는 단지 공동체 봉사를 위한 부름이 아니라 축성이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 사제직의 영구성

사제직의 축성은 없어지지 않는다. 한 번 사제로 서품된 사람은 영원히 사제다. 성품성사는 수품자의 실존 자체에 영향을 주므로 그는 영구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한 사제가 교회적 이유나 개인적 이유로 직무 행사에서 면제되거나 해임되어도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대한 이러한 특별한 참여 관계는 없어지지 않는다.<sup>iv</sup>

사제직의 영구성은 사제가 성품성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양식에서 나온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하느님 나라의 영광 안에서만 완성될 것이다. 그 나라가 최후로 실현될 때까지 사제는 그 나라의 영광스럽고 살아 있는 표징이며 약속으로 남아있다.

그래서 성품성사는 ‘종말론적 표징,’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올 것을 가리키는 표징이다. 사제가 자신을 자유로이 바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전히 실현될 날을 가리킨다. 그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철저히 그리스도에게 바친다. 성품성사를 받을 때에 사제는 자신을 신앙과 은총 안에서 그리스도와 완전히 일치시킴으로써 인간 자유를 하느님께 귀의시킨다. 사제는 닥쳐올 나라의 표징이고, 그리스도께서 서약한 구원의 현존의 표지다.

교회는 직무적 사제직의 본성을 상당히 자세히 고찰하였다. 그래서 사도 시대부터 직무적 사제직은 거룩한 예식으로 사제에게 부여되어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1 티모 4:14, 2 티모 1:6 참조). 시간이 흐르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교회의 인식은 점점 더 명백해졌다. 교회는 하느님의 의도에 따라 행해진 이 예식이 교회 직무를 거룩하게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은총을

성사: 그리스도와와의 지속적 만남

증가시킬 뿐 아니라, 사제들은 그 인호의 힘으로 자기들의 활동을 위한 준비가 되고, 그리스도의 최상 권한에서 나오는 필요한 권한을 받는다. 신학자들은 인호의 본성을 다양하게 설명하였다. 피렌체 공의회는 인호의 영구적 존속을 가르쳤으며, 트리엔트 공의회는 여러 번 인호에 대해 거론하였고, 제 2 차 세계주교대의원회(시노드) 총회는 사제 인호가 일생 동안 존속한다는 것은 신앙의 가르침에 속하는 일임을 옳게 보았다.<sup>iv</sup>

성품성사를 받는 것은 영구적인 투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사제가 직무 행사를 중지하는 것을 허락하는 때도 있다. 교회는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 사제가 독신 생활과 성무일도 같은 특별한 사제의 의무를 면제받도록 해준다. 교회는 사제가 사제적 투신을 떠나서 결혼을 하는 것은 허락하면서,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이상하게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두 경우는 매우 다른 것이다. 교회는 사제를 독신 생활에 대한 교회법에서 면제시킬 수 있으나, 이혼과 재혼에 관한 그리스도의 금지법에서 면제시킬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다. 두 경우 사이에 약간의 유사성은 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신자는 불안한 현대에도 모든 소명에 성실한 정신이 자라도록 기도해야 한다.

## 성사적 직무

사제는 그리스도와와의 성사적 접촉을 위해 우선되는 수단이다. 그리스도인은 성사 안에서 하느님을 만난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사제를 통해서만 당신의 성사적 현존을 유지하신다.

사제는 직접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행동하도록 부름 받았다.<sup>vi</sup> 고해성사에서 사제는 “내가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성체성사에서는 “이는 내 몸이니라..... 이는 내 피니라.”라고 한다. 사제는 환자에게 기름 바르면서 특별한 양식으로 그리스도의 치유 활동을 계속한다. 또한 사제는 성사를 집행하면서 신앙의 공동체를 건설한다. 인간의 생활과 하느님의

전례: 파스카 신비와 성사생활

생활을 연결시켜주는 사제는 그리스도의 사업을 계속 넓혀나가 마침내 사람들 사이에 하느님의 나라를 설립한다.

##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대한 다양한 참여

교회의 모든 성원은 같은 신앙으로 같은 사명에 참여한다. 한 성원이 지닌 성사적 생명과 소명에 따라 그 사명에 참여하는 방법은 차이가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례로써 그리스도와 합세하고 그분의 신적 생활과 사명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제들은 성품성사를 통해 독특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사명에 참여하게 된다. 성품은 수품자를 진정하고 권위 있는 그리스도의 특별한 대리자로 만든다. 그리스도는 최후 만찬에서 직분상의 사제직을 별개의 성사로 제성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서품자의 사제직은 신자의 일반 사제직과 다르며 또 구분된다.

그러므로 사제는 교회 안에서 특별한 역할을 한다. “신자들의 보편 사제직과 직무 또는 교계 사제직은, 정도만이 아니라 본질에서 다르기는 하지만,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그하나하나가 각기 특수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에 참여하고 있다. 2) 직무 사제는 참으로 그가 지닌 거룩한 힘으로 사제다운 백성을 모으고 다스리며, 성찬의 희생 제사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거행하고 온 백성의 이름으로 하느님께 봉헌한다. 그리고 신자들은 자신의 왕다운 사제직의 힘으로 성찬의 봉헌에 참여하며, 3) 여러 가지 성사를 받고 기도하고 감사를 드리며 거룩한 삶을 증언하고 극기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사제직을 수행한다” (교회헌장 10).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분업의 원천은 성령이시다. 성바오로가 지적한 대로 성령께서 주신 여러 가지 직무는 서로 상당히 다르다 (1 코린 12:4-11, 로마 12:4-8 참조). 하느님의 설계를 따라서 업무가 여러 가지로 구분되었다. 그 가운데 어떤 이는 사제로 불리고, 다른 이는 각기 다른

성사: 그리스도와의 지속적 만남

역할에서 봉사하지만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건설하도록 부름 받은 것이다 (1 코린 12:27-31 참조).

## 교회 내의 직무

교회내의 모든 직무는 그리스도께서 만민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기 위하여 사제들을 처음에 보내신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마태 28:19, 마르 3:14 참조).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직무에 참여한다.

일정한 사람들이 교회 내의 특정한 기능을 위해서 선정되는데 이것은 어느 조직체에서나 필요한 것이다. 일정한 사람의 선정과 서품은 그리스도의 사제적 사업을 이행하는 수단이다. 세례성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주교와 자제와 부제들은 그리스도의 사명에 참여한다. 그러나 그들이 특별히 분리된 이유는 그리스도의 활동에 특수한 양식으로 참여하도록 임명받았기 때문이다.

성령은 하느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에페 4:11-13 참조) 화해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건설하는 데에 모든 직무를 사용하신다. 신약성서엔 다양한 직무가 언급되어 있지만 모든 기능과 직명이 정확하게 규정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강조된 기능은 하느님 말씀의 선포, 교리의 옹호, 신자를 돌봄, 그리스도교적 생활의 증거 등이다. 티모테오서, 티토서와 베드로 전서가 쓰이질 때에는 어떤 직분의 기능의 중요성이 인정되었고 공동체의 특수 직분자에게 맡겨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성품성사라고 불리는 것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를 볼 수 있다. 주교의 안수는 한 사람을 사제로 낳인하며, 이 예정의 핵심이 신약성서에 나온다.

## 신약 시대와 오늘

## 전례: 파스카 신비와 성사생활

오늘의 교회에서는 성품성사가 주교, 사제, 부제, 세 가지 교계적 품계(品階)로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직분은 초기 교회에서도 구분되어 있었으며, 교회의 초대 교부들의 저서에서도 볼 수 있다.<sup>iii</sup> 신약성서에는 주교(지도자), 사제(원로)와 부제에 대한 언급이(필리 1:1, 티토 1:5-7 참조) 자주 나온다. 그러나 주교와 사제를 위한 그리스 용어는 번갈아 가며 쓰이기도 하였다. 신약성서만을 보면, 사도들이 최초의 보조자들을 직분상의 사제직에 서품할 때부터 주교직과 사제직을 구분하였는지 분명하지가 않다. 교회가 발전하면서 품의 구분이 생겼고, 완전하게 성사적 사제직을 갖는 교역자, 즉 주교뿐 아니라 주교의 보조자이며 성사적 사제직을 갖는 교역자를 두는 것이 필요해졌을 것이다. 어쨌든 주교, 사제, 부제 등 세 가지 품이 초대 교회에서 발생하여 그 이후 지속되어왔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교회의 지도자를 선정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지도하고 성화하는 권한을 주셨다는 이것은 신약성서에서 확실히 드러난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동반자며, 교회가 놓여진 기초로서 글들이 갖는 역할을 이행하기 위해 특정의 은혜와 의무를 받았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의도와 성령의 지속적인 지도에 따라 교회 안에서 이행해야 할 또 다른 역할이 있었다.

교회 안에서는 죄를 용서하는 직무와 (요한 20:21-23 참조) 성체의 제사를 봉헌할 직무가 계속될 것이었다. 하느님께서만이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각종의 권한도 계속되어야 한다. 성바오로가 한 지역 교회를 맡은 자기 동료인 티토에게 보낸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 둔 까닭은, 내가 그대에게 지시한 대로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고을마다 원로들을 임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티토 1:5).

실제로 바오로와 그의 동료는 전교 여행을 하면서 “교회마다 제자들을 위하여 원로들을 임명하였다”(사도 14:23). ‘원로’에 해당되는 그리스 말은 ‘프레스비테르 (장로)’이며, 이 말은 ‘사제’를 가리키는 통용어가 되었다.



성사: 그리스도와의 지속적 만남

교회가 발전하자 사람들은 하느님의 일을 계속하였다. 그리스도는 사도들을 선정하여 당신이 재림할 때까지 존속할 사명을 수행하도록 파견하셨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하여 사람들을 부르셨다고 가르친다. 그리스도와 성경께서는 사도들이 자기들의 일을 계승하기 위하여 선정한 사람들을 확인하셨다. 그래서 성바오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를 다스리도록 임명된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신과 모든 양 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양 떼의 감독으로 세우시어, 하느님의 교회 곧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피로 얻으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사도 20:28)라고 말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교회 신앙의 본질을 이루는 부분인 파견이 계속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보내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들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조자와 후계자들을 선정하였다. 사도들에게 선정된 이들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에게 안수하였다. 그리스도의 성령의 지도를 받으며 교회 안에 교계적 사제직이 출현하였고 그의 뜻을 따라 계속되었다 (교회헌장 18-22 항 참조). 품계는 그 충만함이 첫째 주교, 둘째 사제, 셋째 부제 순으로 나타난다. “주교들은 성품성사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다. 신부들과 부제들은 자신의 권력 행사에서 주교들에게 종속된다. 그리고 신부들은 참으로 주교들의 섭리적 협력자로 축성되어 신약의 진정한 사제가 되었으며, 마찬가지로 부제들도 주교와 그 사제단과 친교를 이루며 하느님의 백성에게 봉사하는 교역을 위하여 성품을 받았다. 그러므로 주교들은 하느님 신비의 으뜸 분배자들이며, 자기에게 맡겨진 교회에서 모든 전례 생활의 지도자요 축진자이며 수호자들이다” (주교교령 15, 사제생활교령 2).

## 주교와 사도적 계승

주교들은 사도들의 후계자다.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신 대로 주교들은 사도들이 처음에 하던 임무를 수행하여 교회 안에 언제나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 실제로 사도적 계승은 주교들에게서

전례: 파스카 신비와 성사생활

이루어졌고, 주교들의 사명은 사도들과 그리스도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사도에게 맡겨진 사명은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 (마태 28:20 참조). 그들이 전승할 책임이 있는 복음은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성이레니우스가 증언하듯이, 사도적 전통이 수세기에 걸쳐 명백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사도들이 자신들의 후계자를 임명하는데 관여했던 정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sup>lviii</sup>

3 세기 신학자 테르툴리안은 사도적 전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다. “교회는 사도로부터, 사도는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는 하느님으로부터.”<sup>lix</sup>

교회의 강생적 성격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권한은 추상적 의미의 ‘교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개인을 통하여 전수된다. 교회의 거룩한 권한의 전수는 강생의 실재를 나타내므로 교회 안에 살아 있는 개인들이 그리스도의 권한을 소지할 필요가 있다.

교회 안에서 사제직의 표현 형태는 분명히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영향을 받았다. 교회가 사제직을 그리스도의 구원 활동에 대한 참여라고 정의할 때는 역사적인 변화를 초월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는 우연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강생의 원리는 어느 활동이든지 시대의 옷을 입기를 요구한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조건을 수락하신 것이 교회가 따를 원형이 된다.

오늘날 주교와 교회가 갖는 관계는 사도들이 초대 교회 공동체와 가졌던 관계와 같다. 주교는 서품을 받아 지역 교회의 구심점이 되고 일치원천이 된다. 그 일치는 특히 주교들이 사제와 신도들에 둘러싸여 성체의 제사를 드릴 때에 나타난다. 주교는 다른 주교한테서만 서품되며 (교회헌장 21 참조), 교회의 오래되고 숭엄한 전통은 주교만이 신품과 부제품을 주도록 제한하고

성사: 그리스도와의 지속적 만남

있다. 주교는 견신성사의 통상 집행자이기도 하며, 지역 교회의 공동체에서 일치와 원천이며 표징으로서 예배에서 지도자이고 공식적이고 전통적인 전례자이며, 교구의 으뜸가는 교사다.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신 그 신적 사명은 세말까지 지속될 것이다 (마태 28,20 참조) .....주님께서 사도들의 으뜸인 베드로에게 특별히 맡기시어 그 후계자들에게 전수되는 임무가 영속하듯이, 사도들의 교회 사목 임무도 영속하며 주교들의 거룩한 품계에서 끊임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거룩한 공의회는 주교들이 신적제도에 따라 사도들의 자리를 계승하였다고 가르친다. 주교들은 교회의 목자들이므로, 주교의 말을 듣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주교를 배척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사람이다 (루가 10,16 참조)” (교회헌장 20).

## 사제

사제는 주교들과 더불어 성품성사에 참여한다. “사제들은 주교의 사제직에 참여하고 최상의 영원한 사제인 그리스도를 모방하기 위해 자신들을 만들도록 부름 받았다. 그들은 복음을 설교하고, 하느님의 백성을 지탱하며 거룩한 예절, 특히 주님의 제사를 거행하도록 축성되었다.”<sup>ix</sup>

사제는 성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 활동을 계속하기 위하여 성품성사를 받았다. 사제는 신자를 모아놓고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그분을 대신하여 성체의 제사를 봉헌한다. 사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행동하면서 고해성사로써 죄를 사한다. 사제의 다른 사제적 기능은 설교, 교회를 위한 기도, 병자의 도유 외에 다른 성사를 집행함으로써 세례로써 사람들 안에 시작된 신적 생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사제생활교령 2 참조).

그리스도와 교회의 맥락에서 사제직을 보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업을 계속해나갈 일차적 책임은 교회에 있다. 지역 교회를 맡은 각 주교는 자기 교구 신자들의 성사적 생활을 책임진다. 주교는 교회의 일정한 지역을 맡고, 보통 그 지역 교구 내에서 신앙과 그리스도교적 질서가

유지되는지 보살필 의무가 있다. 주교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돕도록 책임을 맡기면서, 그들이 받은 성품성사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한다. 사제가 이 허락을 받으면 특전을 받게 된다. 사제는 성품성사를 받고 성사의 정상 집행자가 된다. 그러나 그가 사제 직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특히 고백을 듣고 설교하기 위하여 자신이 활동할 지역의 주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여성의 사제직

교회 내에서 여성의 봉사는 초기에서부터 그리스도교적 공동체를 풍족하게 하였다. 예수님을 도와 삼고 활동을 하던 여러 명의 여자가 있으며 (루카 8:1-3 참조),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욱 친밀하게 예수님의 구원 사업에 참여하였다. 교회는 언제나 성녀들로부터 축복받았다. 여자들은 교육과 행정, 가난한 자와 환자의 간호, 그 밖의 여러 영역에서 수많은 방법으로 교회 생활에 관련해왔다.

그러나 여자가 교회에서 사제나 주교로 서품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성마리아도 교회 안에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욱 고상한 역할을 했지만 아무런 사제 직무에도 부름 받지 않았다. 수세기 동안 교회는 영세한 남자만이 성품성사를 유효하게 받을 수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가르쳐왔다.<sup>lxvi</sup> 여자가 남자인 그리스도를 대신할 사제나 주교로 서품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교회를 위한 하느님의 의도에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켜져 오고 있다.<sup>lxvii</sup>

성품성사는 교회 공동체의 선익을 위해 세워진 것이지 서품자를 풍족케 하는 수단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다. 교회는 신앙 가족의 선익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의도에 맞추어 보고 좋다고 판단되는 사람만을 성품성사에 부름 의무가 있다.

1994년 5월 22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형제자매 여러분께 확신을 주는 내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교회의 신성한 조직 그 자체와 관련된 매우 중대한 문제에

성사: 그리스도와의 지속적 만남

대해서 그 어떤 의구심도 없도록하기 위해서 (루카 22:32 참조), 교회는 여성에게 성직을 부여할 그 어떤 권한도 없으며, 이러한 판단은 모든 교회 공동체 신앙인들에 의해 확고히 지켜져야한다고 선언하는 바입니다.”<sup>lxiii</sup>

## 부제

부제의 기원은 전통적으로 사도들이 생존하고 초기 교회가 점점 많은 교직자들을 필요로 했던 그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평판이 좋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찾아내십시오. 그들에게 이 직무를 맡기고.....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사도 6:3, 6).

성서에는 부제직이 한 가지 별개의 직분으로서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이 자주 나오고 (필리 1:1; 티모 3:8-13 참조), 초대 교부들의 증언이 이를 확증한다.<sup>lxiv</sup> 주교직이나 사제직과 마찬가지로 부제직도 성품성사의 일부이며, 하느님이 제정하신 것이다.<sup>lxv</sup>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영구적 자리를 차지한다.

‘부제 (deacon)’라는 직명은 ‘봉사 (service)’라고 하는 그리스어에서 비롯되었다. 부제는 교회에 봉사하며, 이미 사도 시대에도 부제직의 임무가 크다고 인정되었다. 부제는 식탁에서, 특히 성체 잔치의 식탁에서 봉사하며 교회의 자선 사업을 관리한다 (사도 6:1-4 참조). 부제는 신앙의 증인이며 옹호자다. 그래서 부제였던 스테파노 성인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 그는 살해되면서까지 용감한 옹변과 용서하는 사랑으로써 신앙을 선포하였다 (사도 7 장 참조). 필립보 부제가 사마리아에서 했던 것처럼 부제는 교회의 복음 전파 임무에도 참여한다 (사도 8:4-13 참조).

교회의 초기에는 부제직이 공동체 안에서 중요성을 갖는 영구직이었다. 그러다가 부제 직무의 범위와 영향력이 점차로 감소되었다. 결국 서방 교회에서는 부제직이 잠시 동안만 행사되는 품이

전례: 파스카 신비와 성사생활

되고 말았으며, 곧 사제가 되려는 사람이 채우는 직책이 되었다.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는 영구 부제직의 재생을 요청 하였다 (교회헌장 29 항 참조). 이를 계기로 옛날부터 있던 봉사 소명이 다시 교회 안에서 빛나게 되었다.

라틴 의식의 교회에서는 최근에 기혼자가 부제직을 맡는 것을 허락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많은 지방에서 본당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본당 가족 자체에서 배출되는 결과를 낳았다. 오랫동안 성품성사와 독신 생활을 결부시켜온 전통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다. 미혼자가 영구 부제직을 수락할 때에는 결혼하지 않을 것까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약한다. 기혼자가 수락할 때에는 아내가 죽는다 해도 재혼하지 않기로 결단한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부제의 봉사는 현대 교회에도 존속하며, 우리 시대에 요구되는 적절한 임무가 더 첨부되었다. 부제는 전례 행사를 돕는 일을 한다. 즉 성체를 분해하고 세례를 주며, 복음을 선포하고 설교를 한다. 부제는 교리를 교육시키거나 가난한 자와 환자를 보살피는 등 교회가 지킬 다른 임무를 돕는다. 물론 고해성사를 주고 환자에게 도유하는 것은 사제의 임무다. 그리스도의 백성을 돌보는 모든 임무에서 주교와 사제를 돕는 것이 바로 부제의 업무다.

## 성소와 사제적 자질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사제직으로 들어간다. 그리스도는 당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부르심이나 소명을 주신다. 어떤 한 청년이 건강하고, 상당한 지능과 사제직에 요구되는 성격을 가졌고, 또 하느님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사제직 활동을 하려는 소망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면, 그 청년에게는 성소의 '표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개인이 자신의 봉사를 교회에 바칠 수는 있지만, 그 내적 의도를 교회의 부름이 확인해야한다. 교회는 소명의 사실을 확인하는 임무와 소명으로 선정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품해야 하는 책임을 지니고

성사: 그리스도와의 지속적 만남

있다. 그러나 선택은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요한 15:16).<sup>lxvi</sup>

어느 누구도 성품성사를 요청할 수는 없다. 성품성사 중에 행해지는 안수는 공적인 인정이나 개인적 원의에 대한 응답이 아니다. 안수는 하느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인정하는 것이며, 교회가 구속 사업에서 하는 독특한 역할이다.

사제는 다른 사람들의 영신적 안녕을 위하여 그들에게 하느님께 봉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사제적 소명이란 그런 생활에 봉사하도록 부름 받은 것을 뜻한다. 성품성사는 교회 내의 어느 특정 지위를 정해주는 단순한 예식이 아니다. 성품은 성사이며, 성사를 집행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설교할 권한을 준 것뿐 아니라, 그 권한을 거룩하게 행사하도록 은총도 주는 성사다. 성품성사는 직무의 특별 은총을 준다.

사제로서 봉사하라는 부르심을 수락한 사람은 사제 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세속적인 직업과 마찬가지로 사제직도 신체와 정신면에서 필요한 적성이 있다. 사제적 소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개발하고 유지해야 할 자질, 특히 영신적 자질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대사제의 모범을 따라 겸손하게 살아야 하며, 기도하고 연구하는 생활이어야 한다. 그뿐 아니라 사제는 하느님의 사업에 전심하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는 데서 더 큰 즐거움을 발견하기 때문에 집과 가정생활을 포기한다.

## 독신 생활

그리스도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감수하게 될 희생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위하여 아내와 집을 버리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마태 19:29 참조). 교회의 초기에서부터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에 일편단심으로, 생명과 마음을 바치기 위하여 독신 생활을 하는 사제가 있었다 (1 코린 7:32-35, 9:5 참조). 그러나 각 지역 교회 내에서는 다른 관례가 발전하였다. 동방

## 전례: 파스카 신비와 성사생활

교회에서는 결혼한 사람들의 서품을 허락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서방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독신 생활을 할 수 있으며, 또한 하겠다는 사람에게만 성품성사를 주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동방 교회나 서방 교회에서도 성품성사를 받은 후에는 결혼이 허락되지 않는다.

독신 생활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 소중하게 취급된다. 독신 생활은 사제들을 그리스도와 더욱 비슷하게 만든다. 성바오로는 독신 생활이 그리스도께 봉사하는 데에 더 많은 자유를 가져다주고, 그분에 대한 개인적 애착을 깊게 한다고 지적하였다 (1 코린 7:32-35 참조). 더 나아가 사제들은 십자가를 질 의무를 설교하고,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느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설교한다. 또한 교회는 사제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크나큰 희생을 하면서 일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 사제의 독신 생활은 종말론적 표지이며, 영생을 가리키는 표지라고도 한다. 현세에서 독신 생활을 하는 사람은 결혼이 없을 내세생활에 적절한 양식으로 생활하며 (마르 12:25 참조), 영생에 대한 신앙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최근에 서방 교회는 사제 독신제 고수를 철회하고 기혼 남자에게 성품성사를 허락하거나 이미 신품을 받은 사제에게 결혼을 허락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촉구하였다. 1971년 제 2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에서 이 문제가 길게 토론되었으며, 세계주교대의원회의는 라틴 교회에 현존하는 사제의 독신 생활에 대한 규정 전체를 보존하기로 결정하였다.<sup>lxvii</sup> 교황 성하는 그 결정을 확인하였다.<sup>lxviii</sup>

어느 누구에게도 반드시 사제가 되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사제의 독신 생활 규정이 결코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교회가 성인들이 수세기 동안 장려하였던 이 관례를 고수하고, 가톨릭 신자들의 신앙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그 관례를 지키며,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 독신 생활을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만을 사제직에 부르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성사: 그리스도와의 지속적 만남

2005년, 제 11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가 끝난 후,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총체적이고 절대적인 헌신의 표시로서의 성직자들의 독신생활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에 대해서 재확인했다.

사제 독신제를 기능적인 측면에서만 이해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독신 생활은 참으로 그리스도의 생활 방식에 자신을 일치시키는 특별한 방식입니다. 이 선택은 무엇보다도 혼인의 의미를 지닙니다. 당신 신부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 주시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마음과 깊이 일치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태도로 기쁘고 오롯하게 실천하는 사제 독신 생활은 교회와 사회에 커다란 축복입니다 (사랑의 성사, 24).

독신 생활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그것을 완화시킬 권한은 교회에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임의적인 규정이 아니다. 교회의 경험과 신약성서의 메시지에서는 사제들이 생활 규정으로 삼는 이 특은이 하느님의 백성에게 매우 좋다는 것을 보여준다.

## 기도생활

사제는 기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 사제 지망자는 서품 날에 성무일도를 매일 읽어야 하는 특별 의무를 받는다. 이때 교회는 사제를 찬미, 흠송, 청원, 감사의 사목직에 임명한다. 사제들은 전 세계에 축복을 내리도록 천상 성부께 청원하는 교회의 '소리'다.

사제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한 사색과 묵상은 사제의 일상생활의 한 부분을 차지해야 한다. 사제는 깊은 영신적 확신과 기도와 희생정신이 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신자들을 하느님께로 인도할 수는 없다. 사제는 언제나 하느님의 사람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세상의 문제와 신자들의 문제를 영신적 실재에 비추어 해석해야 한다.

## 증거

사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사를 집행하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건 아니다. 사제의 사명에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대표하여 그리스도의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활동하는 것도 포함된다. 사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증언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에 봉사해야 한다. 또한 그리스도교적 공동체를 지도하며 일치를 이뤄내야 한다.

이 모든 임무들은 한 가지로 통합된 사제 직무의 측면일 뿐이다.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설교하고, 성사를 집행함으로써 그분의 구속 사업을 실현시키며, 그분의 이름으로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은 모두 사제 직무 가운데 일부분에 속한다. 사제는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명 전체를 이행해야 한다.

## 권위의 봉사

사제가 권위를 받은 것은 일치를 이루기 위함이다. 복음 전파와 성사적 생활은 권위의 봉사를 요구한다. 교회가 곧 사제적 권위의 맥락이므로 교회의 안녕은 그러한 사제의 권위 행위를 제한하고 지도하기도 한다. 사제의 권위는 언제나 인간의 영적 선익과 일치를 지향하는 교회의 목적과 조화를 유지하면서 행사되어야 한다.

권위의 행사는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하나는 진리를 권위 있게 가르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공동체를 일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첫 번째 권위의 행사는 사제가 하느님의 말씀을 신자들에게 전할 때, 시대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권위 있게 해석해서 전하는 걸 요구한다. 두 번째 권위의 행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 그리스도께서 부여한 권위를 지닌 사제가 그리스도교의 공동체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사명과 관련된 것이다 (요한 17:11 참조).

사제가 건설하고 강화시키려는 신앙 공동체의 본성이 공동체 건설을 위한 사제적 권위의 성격을 결정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사제에게 위임하신 본연의 사명은 정치 경제난 사회적 질서에 대한 사명이 아니라 종교적 질서의 사명이다 (사목 42 참조). 그러나 사제는 자기의 직무를 이행하면서, 특히 인간의 불의와 억압의 문제가 아주 심한 지역에서는 좀더 의로운 사회 질서 건설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제는 항상 교회적 일치를 유지하며, 복음과 부합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의 폭력을 배척해야 한다.<sup>lxix</sup>

### 사제와 정치

사제의 증거는 언제나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질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제의 메시지는 사람들이 사는 모든 곳에 선포되어야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의 증언이 효력을 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사제의 활동은 공동체의 사회적, 정치적 생활에 눈에 띄는 정도의 영향을 주어야 한다. 사제는 정치 공동체의 일부인 동시에 그 공동체에 매우 중요한 원칙의 대변자이기도 하다. 설교할 때나 그 밖의 다른 상황에서도 사제는 사회 질서에 관계되며 복음 메시지에 내포된 도덕적 명령을 밝혀야 한다. 사제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마찬가지로 의로운 정치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협조할 의무를 갖고 있다.

그러나 사제가 사용한 수단은 보통 현세적 구조를 성화하는 데 직접적 역할을 담당하는 평신도에게 걸맞는 수단과는 다르다. 사제가 세속적인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그 정도가 한정 지어져야 하며, 주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사제는 그리스도인의 공적 의무에 대하여 설교할 때, 복음과 부합하는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정치, 사회, 경제

정책을 주장하기 위해서 함부로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

## 복음의 선포

사제는 이미 하느님의 나라가 사람들 사이에 와 있음을 계속 선포해야 한다. 사제는 자기가 받은 복음을 말과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한다. 사제의 증언은 교회 안에서 행해지며, 사제는 주교를 통하여 메시지를 전파하라는 교회의 부름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의 증언은 교회의 정통적 증언에 속한다.

사제는 가장 먼저 복음을 선포하는 증언을 한다. 사제가 세상의 빛이고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사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임무를 수락하고 이해할 때다. 사제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전하며, 그들이 그 신앙에 의지하여 하느님께 이르게 해준다. 그러므로 증언으로서의 사제는 복음의 ‘보증인’이다.<sup>lxx</sup>

사제의 증언에 대한 교부들의 전통은 뚜렷하다. 성치프리아누스는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고 알 수 있도록, 사제는 말과 행동을 다해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해야 한다고 기록하였다.<sup>lxxi</sup> 성요한 크리소스토모는 사제의 증언이 효력을 내자면 ‘열렬해야’하며, 사제 활동의 목표는 다른 사람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분명히 헌신하는 것이라고 하였다.<sup>lxxii</sup> 성대(大)그레고리우스는 사제가 교회의 사업과 신자들의 사목이 아닌 다른 활동에 시간과 정력을 바칠 때에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기록하였다. 사제들의 정치 활동은 신자들을 목자 없이 방치해버리는 처사이며, 목자의 마음이 현세적 걱정애 쏠려 있어 신자들마저도 진리의 빛을 볼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논평하였다.<sup>lxxiii</sup>

성사: 그리스도와의 지속적 만남

신앙에서 증인의 기능은 불가결한 것이다. 누가 천국에 관하여 말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천국에 대하여 알 수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은총, 구원, 영생에 관하여 들을 때에 그것에 대하여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믿으려 하지만 생명의 말씀을 들을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져가고, 말과 행동으로 진리를 증거하면서,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도 증언해야 한다.

사제는 사제직의 이 임무를 이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사업을 반영한다. 예수님은 성부께 대한 증언으로서의 당신 역할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당신은 자신의 권위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성부께서 가르쳐 주신 것만을 가르쳤다고 하셨다 (요한 8:28 참조). 사제는 증인으로서 메시지를 흡수하고 그것에 순종하며, 그대로 전해주어야 한다. 사제의 사명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통하여 살 수 있도록 계시된 하느님의 진리를 증언하는 것이다.

### 토론해 봅시다

1. 성품성사의 기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 (강림)과 어떤 방식으로 연관되어있는지 토론해 봅시다. 성품성사가 교회의 성사생활에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어떤 면에서 성사직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직에 대한 유일한 참여일 수가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사제가 전능한 하느님이 이 세상에 현존함에 대한 표징이 될 수 있는지 토론해 봅시다.

전례: 파스카 신비와 성사생활

3. 이 장에서 논의된 사제의 자질에 대해서 각각의 중요성을 토론해 봅시다. 사제와 평신도가 교회와 세상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토론해 봅시다.

## 더 읽어 봅시다

*United States Catholic Catechism for Adults: Chapter 20 - "Holy Orders."*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1533-1600.*

Pope Benedict XVI, *The sacrament of Charity (Sacramentum Caritatis)*. Post-Synodal Apostolic Exhortation, February 22, 2007.

## 기억 합시다

### 성품성사

- 그리스도는 성품성사를 제정하심으로써, 그의 주교들과 사제들을 통해서 교회내에서 현존하시는 성체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그의 구원의 선물을 부여하셨다.
- 신품은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에 의한 안수를 통해서 부여된다.
- 오로지 합당하게 서품된 사제들만이 미사를 봉헌할 수 있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위탁한 성체성사를 집행할 수 있다.
- 사제직은 그리스도의 고유권한이므로 오로지 그에 의해 부름을 받은 자만이 사제직을 추구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부름'은 내적 자질과 서품자로 부르는 주교의 초대에 의해서 명백해진다.

## 성사: 그리스도와의 지속적 만남

- 서품은 여러 단계로 나누어진다. 충분한 사제직은 주교에게 부여된다. 사제는 특별히 미사를 집행하고 죄를 용서하며 강론할 권한을 갖게 된다. 부제는 복음을 전파하고 전례행사를 돕는다.

## 제 4 장

### 입문성사: 세례성사

(가톨릭 교회 교리서 1212-1314)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는 그리스도교 입문과 관련된 세 가지 성사이다. “이 세 가지 입문성사는 서로 결부되어 그리스도 신자들을 완전히 성장시키고, 교회와 세계 안에서 하느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도록 해준다.”<sup>lxxiv</sup>

교황 베네딕토 16 세께서 『사랑의 성사』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와 같이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받는 것은 성체성사를 지향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동화되고 교회에 합체되며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세례성사는 모든 성사로 들어가는 문이다. . . 세례 때에 받은 선물을 우리 안에서 완성시키는 것은 성찬례에 대한 참여이다”(17).

모든 성사생활의 중심인 성체성사에 대해서는 이미 앞 장에서 길게 논하였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세례성사와 견진성사에 대해서만 설명하고자 한다.

#### 구원의 역사와 세례

교회의 전례적이고 교리교육적인 예술품 가운데 걸작으로 꼽히는 부활성야 전례를 연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례성사에 제대로 접근하게 된다. 이 예식은 완전한 의미의 교리교육이다. 그



성사: 그리스도와와의 지속적 만남

예식은 교회의 가르침을 구약의 예언적 상징주의에서 먼저 도출하고, 그 다음에 신약성서의 가르침과 연결시키지만 추상적으로 제시하지는 않는다. 그 대신에 교회의 가르침은 세례의 의미를 충분히 표현하는 예식을 통해서 실시된다.

부활 성야 전례의 제 1 독서는 창조에 관한 것으로서 창세기에서 발췌된 것이다 (창세 1:1-2:2 참조). 이 독서는 인간 생명의 창조에서 절정에 달한 하느님의 힘을 보여준다. 하느님의 힘에 대한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수난과 죽음을 통해서 이룩하신 창조이며, 성바오로가 ‘새로운 창조’라고 부른 것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2 코린 5:17) “사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 창조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갈라 6:15) 이 새로운 창조는 실제로 부활 성야의 절정인 세례 때 이루어진다.

제 2 독서는 (창세 22:1-18) 자기 아들 이사악을 거침없이 희생하려는데서 보여진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세례성사를 위시하여 다른 모든 성사에 힘을 주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시한다. 이사악은 희생제물이 되지않고 제단으로부터 되살려졌다. 그 반면에 예수님은 목숨을 잃으셨다가 – 성부께서는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셨다” (로마 8:32) – 이사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부활속으로 다시 일어나셨다.

제 3 독서는 (출애 14:15-15:1) 홍해를 건너가던 유대인의 구출에 대해서 말한다. 이 구출은 파스카 제사에 관한 설명과 연관되어 성목요일에 미리 제시되었다. 제 3 독서의 관심은 물을 통해서 구출이 이루어진다는 사상에 있다. 이 사상은 주님이 물을 사용하신 것과 세례의 힘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배경이다. 후에 주님은 니코데모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 3:5)라고 하신다. 창세기에서 이미 성령은 물로 들어가셨다: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창세 1:2).

## 전례: 파스카 신비와 성사생활

창세기에서 보면 물은 황무지와 어두움의 일부로서 한때는 파괴적이었으나 생명이 자라나는 원천이기도 한다. 물의 이와 같은 이중적인 상징 -죽음과 생명, 파괴와 구원-은 제 4 독서 (이사 54: 5-14)에서 암시되는 노아의 역사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하느님은 원수를 멸하고 친구를 구하기 위해 물을 사용하셨다. 하느님이 또 한 번 물을 사용하신 고전적 실례는 홍해를 통하여 유대인을 통과시킨 사건이다. 이 사건은 파스카 제사와 더불어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서 (1 코린 5:7) 그리스도를 지향하며, 유대인의 생활과 구세사의 중심이 되었다. 물은 하느님의 정의를 옹호하면서 하느님의 원수를 소멸시켰다. 반면에 그와 같은 행동으로써 하느님의 선민을 구출하고, 약속된 땅으로 유대인을 통과시켰다.

나머지 독서들은 (이사 55:1-11; 바룩 3:9-15, 32-44; 에제 36:16-17a, 18-28) 예언 문학에서 발췌하였다. 또한 하느님이 물을 경탄스럽게 사용하신 것을 축하하면서, 세례성사의 영성적 결과를 지적한다.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요한 4:14)라고 하시면서, 실제로 후에 물을 사용하셨다. 에제키엘서에서 발췌된 마지막 독서는 인간에게 새로운 마음과 성령을 약속하면서 ‘새로운 창조’를 예고하였다.

이렇게 해서 “때가 차자” (갈라 4:4)를 위한 무대가 꾸며졌다. 세례자 요한은 유대 사막에 나타나서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마르 1:4). 예수님 자신은 요르단 강물에 들어가시어 길고 극적인 물의 연속 사건을 완성하였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면서도 세례의 물을 통하여 죄 가운데 있던 당신 백성들을 성부와의 새로운 계약으로 인도하였다.

바로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모두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로마 6:3)라고 기록하였을 때, 그는 분명히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바오로는 홍해에서 있었던 유대인의 구출 이상을 생각하였으며, 세례의 최종적 의미도 보았다. 예수님 자신은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루카 12:50; 마르 10:38 참조)라고 말씀하셨고,

성사: 그리스도와와의 지속적 만남

바오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로마 6:4).

세례의 물로써 죄와 악이 파괴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여 새 생명으로 되살아난다. “새 인간을 입은 사람입니다. 새 인간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모상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참지식에 이르게 됩니다”(콜로 3:10). 참으로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옛 인간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이 소멸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로마 6:6). 성바오로는 부활절 아침에 봉독되는 성서말씀에서 세례자를 둘러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즉 파스카 신비의 모든 것을 요약하였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콜로 3:1-2).

## 세례성사의 거행

그리스도에서 절정에 이르는 구세사에 비추어보면, 세례전례를 잘 음미할 수 있다. 어른의 경우에는 부활주일 훨씬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여 부활 전례에 이르러서는 그 동안의 준비가 완성된다. 부활주일은 우리가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축하하는 시기이므로 세례와 성체성사에 완전하게 참여하는데 가장 적절한 시기다. 따라서 사순 시기가 고대 예비자들에게 세례 전 교육기간이었듯이 현대에도 세례 준비, 세례 서약, 갱신 준비를 위해 가장 적당한 시기다. 교회의 『어른 세례 예식서』<sup>lxxv</sup>의 주요 특색은 세례의 공동체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전례: 파스카 신비와 성사생활

부활 성야의 예식은 빛의 예식으로 시작한다. 새 불에서 부활 초에 불을 켜다; 부활 촛불은 이제 찬양받을 상처를 가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요한 1:5). 행렬이 지성소를 향해 이동하면 촛불 빛은 점차로 전파되는데 먼저 주례자, 그 다음에 복사, 끝으로 모여있는 다른 사람들이 파스카 초에서 자기 초에 불을 당긴다. 모두 구세사의 절정에 이른 하느님의 빛의 영광 안에서 기뻐하면서 부활 찬송(*Exsultet*)을 노래한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독서가 낭독된다.

이제는 부활의 즐거움이 강조된다. 제단 초에 불이 켜지고 대영광(*Gloria*)의 노래가 시작되면 종이 울린다. 이제 세례 준비가 다 되었다. 독서에 나오는 구세사를 요약하는 기도로써 물을 축성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부활 초가 물에 담가지면, 그 분을 통하여 성세대는 생명을 주는 것이 된다. 하느님의 성령이 다시 한 번 ‘물 위를’ 빙빙 돌 때에 교회의 태내인 성세대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낳을 것이다.

세례 서약이 선언되면 신앙 고백이 뒤따르고 끝으로 세례가 있다. 그리고 새 그리스도인에게 성유를 바르는 도유가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받으시던 것을 회상케 한다. 영세자에게도 성령이 내리셨다. 이 도유는 즉석에서 집행될 수 있는 견진성사의 도유를 예시하고 예고한다. 이렇게 영세자는 하느님의 선민에 가입되고,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영적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치는 거룩한 사제단”에 있게 되는 것이다 (1 베드 2:5). 세례받은 사람에게 세례 순결의 표지인 흰 옷을 입히는 것으로써 예식이 끝난다. 이제 영세자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축하하고 갱신하는 성체성사에 참여할 준비가 되었다.

## 사순절

예비자들은 사순절 동안 공동체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들은 개종과 세례로써 부활 때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생생하게 극화했다. 그러나 사순절은 극기와 갱신의

성사: 그리스도와의 지속적 만남

기간이므로 공동체 전체의 것이다. 사순절이 항상 40 일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순절의 날 수는 우리 주님의 단식 기간에 (마태 4:2 참조) 기초를 둔다.

사순절은 예비자의 교육 기간이지만 영세자를 위한 시기이기도 하다.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장엄하게 세례를 준비했던 것과 같은 자세로 부활주일을 맞이하라고 독려되었다. 오늘날에도 모든 신자는 사순절 동안에 세례의 체험을 재생할 기회를 가지며, 부활 성야에 세례 서약을 갱신하면서 세례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한다.

이 모든 것은 현대 교회의 사순절 규칙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sup>lxxvi</sup> 모든 극기 행위는 세례가 요청하는 완전한 개종,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사랑의 충동하에 생활 전체를 반성하고 판단하여 다시 정비하는 완전한 내적 쇄신의 일부다. 이같은 내적 정신이 없는 극기 행위는 죽은 것이므로 모든 내적 정신을 행동화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축성하신 육체가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육체를 신중하게 다루고, 해방시켜야 하므로 육체적 극기도 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수난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힘으로 좀 더 완전하게 타락의 결과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리스도교적 극기는 전통적으로 기도와 단식과 자선 행위를 포함한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대개 단식보다는 충실한 기도와 자선활동과 연결된 극기를 강조하는 것이 적당하며 필요할지 모른다. 하지만 성서의 증언과 교회 생활이 육체적 극기를 완전히 포기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단식과 금육재가 사순절 때에 장려되지만, 교회법은 이것과 관련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특별 규정은 나라마다 다르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순절이 시작하는 재의 수요일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성금요일에 단식재를 지키고, 사순절 동안 매금요일에 금육재를 지킨다. 단식재를 지키는 날은 금육재를 겸한다. 금육재 날은 고기를 먹지 않으며, 단식재 날에는 한 끼는 정식으로 하되 두 끼의 식사 때에는 적게 먹는다. 만 21 세에서 59 세 사이에 있는 사람에게 단식재를 지킬 의무가 있다. 만 14 세가 된 사람은 금육재를 지키기

시작해야 한다.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신자들은 이 특별 규정에서 면제된다고 판단하거나 관면을 청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극기할 의무에서 결코 면제될 수 없다. 교회는 신앙 가족으로서 사순절 동안에 집단적으로 극기하도록 초대된다.

단식재와 금육재가 극기의 유일한 형태는 아니다. “환자, 가난한 자, 비천한 자, 죄수, 환자, 실망한 사람, 이방인, 외로운 사람, 우리와 다른 피부, 국적 또는 배경을 지닌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임으로써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 생활의 모방을 증거해야 한다.”<sup>lxxvii</sup> 성서에는 단식재가 보통 회사와 연결되었다 (토빗 12:8; 마태 6 참조). 잘 먹던 사람이 단식함으로써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는 회사를 통한 나누어 가짐은 분명한 사랑의 행위다.

### 부활절의 관습

모든 것을 축성하고 갱신하기 위하여 ‘부활 성수’를 집으로 가져가는 풍속이 유럽에서 생겨났고,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기도 하였다. 봄에 자연이 재생하는 것을 상징하는 음식을 특별히 따로 축성하였다. 이런 풍속은 성바오로가 말한 ‘새로운 창조’를 인정하고,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된 것을”(2 코린 5:17) 기뻐하기 위한 것이다.

이 단순한 관습의 의미는 크다. 부활 전례가 정말로 즐거운 축하행사이고, 한 해의 전례에 절정을 이루자면 이 전례도 인간적 차원을 갖고 인간 생활에 뿌리를 박아야 한다.

부활은 그리스도교 축일 가운데 가장 큰 축일이지만, 실제로는 성탄이 가장 기쁘게 축하된다고 어떤 사람이 관찰하였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성탄은 인간적 색채가 강하기 때문이다. 가족들이 서로 만나고, 어린이들을 주축으로 해서 선물 교환이 있다. 부활주일에도 이와 비슷한 것을 하자면 신학적인 해설이 더 필요하다. 본당 공동체가 부활축일이 모든 신자의

영세와 첫 영성체를 축하하는 날이란 것을 인식하게 할 수 있다면, 이날에도 대부(代父) 대모(代母)를 포함해서 가족들이 모여 즐길 수 있을 것이다.

## 세례 예식

세례성사는 부활축일에만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일년 중 어느 때나 집행된다. 그러나 파스카 신비의 정신은 언제나 세례식에 들어있어야 한다. 세례는 예비자를 성세수에 세 번 침수시키든지, 아니면 그의 이마에 물을 세 번 부으면서 집행된다. 물을 사용하면서 주례자는 다음과 같은 세례경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에게 세례를 줍니다.”를 말한다. 물과 세례경은 영세자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면서 영위하도록 불린 삼위일체의 새 생명을 상징한다.

통상 주교, 사제, 부제가 세례를 집행한다. 세례는 누구든지 심지어는 비가톨릭 그리스도인이더라도 교회의 정신에 따라 신중한 의도를 갖고 예식을 이행하면 성사를 유효하게 집행할 수 있다. 모든 가톨릭 신자는 위기가 닥쳐왔을 때 세례성사를 줄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위급한 경우를 위해서 교회는 적당한 짧은 예식을 준비하였다. 그것도 사용할 수 없으면 사도신경을 (이것도 필요하면 삭제할 수도 있다) 옆하고 위에 말한 세례경을 외우면서 세례받을 사람 위에 물을 부으면 충분하다. 교회 공동체는 위급할 때에 세례받은 어린이들이 성당에 올 수 있을 때를 위하여 마련된 특별 예식으로써 환영을 한다.

각 세례 예비자는 적어도 대모나 대부를 정해야 한다. 대부모는 성숙한 사람으로서(일반적으로 적어도 16 세) 신앙 생활을 하며, 영세자를 영성적으로 보살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전례: 파스카 신비와 성사생활

혼종혼인(混宗婚姻)의 자녀들과 같은 특수한 사정에서는 분리된 교파에서 세례를 받고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이 둘째 대부모가 될 수 있다.<sup>lxxviii</sup>

세례 때에는 보통 어느 성인의 이름을 세례명으로 지어준다. 세례명은 영세자에게 보호자요 친구가 될 만큼 영세자에게 잘 알려진 성인의 이름을 선택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 세례의 효과

세례의 효과는 인용된 성서 구절과 위에서 설명된 교회의 전례적 표징에도 지적되어 있다. 그런 가르침을 한데 모으는 일이 남아 있는데, 『어린이 세례 예식서』가 세례성사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체계화하기때문에 그 일에는 도움이 된다. 이 모든 성사를 이해하는 데에 기초가 되는 가르침은 은총을 통한 인간의 의화(義化)를 성취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교회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의화에 놓이게 되고, 이것은 ‘죄의 용서뿐 아니라 내적 인간의 성화와 쇄신’<sup>lxxix</sup> 을 의미한다고 가르친다. 교회의 가르침은 인간의 의화가 하나님의 은총으로써 이루어진다 해도 그것은 외적인 덮개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오류라고 배척한다. 교회는 의화란 내적 성화이며, 참된 내적 쇄신이라고 주장한다. 쇄신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의화된 사람들의 마음에 부어졌을 때 가장 거룩한 정열의 힘으로”<sup>lxxx</sup> 이루어지는 것이다 (로마 5:5 참조).

세례를 통하여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에 결합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묻히고, 함께 부활한다”(전례헌장 제 6 항). 예식서가 덧붙이기름: “구약의 정결례를 훨씬 증가하는 신약의 세례는 주님의 수난과 부활의 신비의 힘으로 이런 모든 효과를 낸다.”<sup>lxxxi</sup> 파스카 신비에 포함된 ‘이런 모든 효과’란 무엇인가?

##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성사: 그리스도와의 지속적 만남

구약성서에 나타난 세례의 표징을 고찰할 때, 물은 파괴적인 동시에 생명을 준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세례에도 파괴하는 과정이 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함께 묻히는 것이다.”<sup>lxxxii</sup> 바오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옛 인간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이 소멸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로마 6:6).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가? 어떻게 우리는 그분과 함께 묻히어 죽음에서 생명으로 통과하는가? 어떻게 이전의 우리를 벗어버리는가? 성세수는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고, 우리를 새 생명의 길에 올려놓는다. 어른의 세례는 은총의 새 생명을 받을 때에 그의 죄가 사해진다.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은총은 용서하고 치유하는 효과를 낸다. 따라서 세례는 원죄를 사해주며, 유아기가 지나서 영세하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죄도 모두 사해진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사도 2:38) 그리스도에게로 개종하는 사람은 고해권자에게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다. 세례 때에는 하느님의 특사(特赦)로써 죄의 용서를 받는다.

모든 인류에게 원죄는 다 있다. 이 점에서 어린이든 어른이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은총의 새 생명에 도착해야 한다. 세례 예식의 구마기도(驅魔祈禱)가 이 점을 밝혀준다.

성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천주여,

악신의 세력을 우리에게서 몰아내시고 . . .

옆드리어 간구하오니,

이 어린이를 원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주의 성전으로 삼으시어

성령이 이 안에 거처하시게 하소서.<sup>lxxxiii</sup>

원죄가 사해져도 원죄의 결과는 다소 남아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교회 또한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 “이 어린이들을 위하여 주께 간구하나이다. 이 어린이들이 장차 세속의 유혹을 겪으며, 악마의 흥계와 싸워야 할 것을 주께서 이미 알고 계시니.”<sup>lxxxiv</sup>

바로 사도는 뜨거운 욕망 혹은 정욕같은 원죄의 결과에 관하여 말하고, 정욕을 어떤 때는 ‘죄’라고 불렀다.

세례로써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도 죄악에 대한 경향은 남아 있다. 죄에 대한 경향이 남아 있어 ‘우리는 그것과 투쟁해야’ 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힘입어 그 경향에 세차게 저항하는 사람을 해칠 수는 없다.”<sup>lxxxv</sup> 이 ‘투쟁’, 즉 우리 욕망과의 고통스러운 투쟁은 예수님의 죽음에 평생을 두고 참여하는 것이다. 하느님이 우리가 이 투쟁을 하도록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구속 사업에 더욱 충분히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다. 때때로 이 투쟁이 우리에게 너무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승리를 원하는 사람에게 승리를 보장해주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총은 활력을 주고 꾸준할 수 있게 한다.

###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

영세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어나고, 그분의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분과 함께 죽는다: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함께 묻히는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함께 살게 되는 것이다. 세례로써 파스카의 신비를 기념하고 재현하는 것이니, 세례를 받는 사람은 죄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기 때문이다.”<sup>lxxxvi</sup> 우리는 부활한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다. 성바오로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성사: 그리스도와의 지속적 만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라고 말한 것은 부활한 생명에 관하여 기록한 것으로, 다음을 덧붙였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갈라 2:20). 그리스도의 부활한 생명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내적 쇄신은 이루어진다.

세례는 우리를 교회의 성원이 되게 한다. 교회의 성원이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이다; 즉 그것은 포도나무에 접목되어(요한 15:4-6 참조) 그리스도의 몸에 깊이 결합되는 것이다. 깊이 파고드는 생명의 유대를 통하여 우리는 하느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의 성원이 된다. 이 모든 것은 파스카의 신비로써 이루어진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루카 22:20).

## 하느님의 자녀

“생명의 말씀과 함께 물로 씻는 세례는 사람들을 하느님 본성에 참여케 하며,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해준다.”<sup>lxxxvii</sup>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이며, 동시에 새로운 출생이다. 성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찬미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생생한 희망을 주셨다” (1 베드 1:3)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고 직접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 3:5).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외아들”(요한 3:18)이기 때문에, 우리는 “양자 결연”(갈라 4:5)으로써 자녀의 지위를 받는다. 그러나 자녀들이 법적으로 양자 입적될 때처럼, 이 양자 결연은 법적인 조작이 아니라고 성요한은 보장한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1 요한 3:1). 자녀는 부모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하느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어떤 양식이든간에 하느님의 본성과 생명에 참여하는 것은 틀림없다. 성서도 우리가 하느님의 본성과 생명에 참여한다고 확인한다. “그분께서는 그 영광과 능력으로 귀중하고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어, 여러분이 그 약속 덕분에, 욕망으로 이 세상에 빛어진 멸망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2 베드 1:4).

## 왕의 사제단

베드로 전서의 대부분은 세례와 세례의 효과와 실천적 숨은 뜻에 관한 묵상이다. 베드로 전서는 위에서 말한 주제들을 한꺼번에 제시하며, 그 외에 다른 말도 한다: “여러분도 살아 있는 돌로서 영적 집을 짓는 데에 쓰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영적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치는 거룩한 사제단이 되십시오”(1 베드 2:5). 신품성사를 연구하면서 우리는 평신도의 사제직과 직분상의 사제직 사이에 차이를 보았다. 여기서 성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정신과 진리에 있어 하느님의 예배자가 되게 하는 세례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여러분은 선택된 겨레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신 분의 위업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한때 하느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1 베드 2:9-10).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이집트 탈출을 회상하고 있으며, 그때에 레위 지파만 하느님 봉사를 하도록 특별히 지정이 되었다. 그렇지만 유대인 백성도 임금의 사제단이라고 불리었다 (탈출 19:6 참조).

그리스도의 제사를 계속 재현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대사제직에 비슷하게 참여하는 사제의 새 제도가 제정되었으면서도, 모든 영세자들은 하느님 예배에 완전하고 의식적으로 또한 적극적으로 합세한다고 한다. 문맥이 보여주듯이 성베드로는 여기서 백성들의 예배에 관하여

성사: 그리스도와의 지속적 만남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전례의 의미뿐 아니라 생활의 모든 의무를 포용하고 성화하는 넓은 뜻으로 말하고 있다. 『어린이 세례 예식서』가 “세례는 또한 사람들을 교회에 결합시키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궁전을 함께 건설하게 하고, 사제들의 왕국과 거룩한 백성을 형성하게 하는 성사이다”<sup>lxxxviii</sup> 라고 할 때에 이상의 사상을 종합한다.

## 유아 세례

지금까지 우리는 어린이 세례보다 어른의 세례에 관하여 주로 관심을 두었다.<sup>lxxxix</sup> 어린이에게 세례를 주는 관례를 과거에도 오늘날에도 문제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해도 못 하고 개인적 투신도 못 하는 어린이에게 왜 세례를 주는가? 부모가 어린이의 종교를 결정하여 선택의 자유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은 부당하고 지각없는 것이 아닌가?”

교회는 어린이 세례의 유효성을 장엄하게 규정하였고,<sup>xc</sup> 실제로 교회법은 가톨릭 신자는 출생 후 되도록 빨리 자녀에게 세례를 받게 하라고 명한다.<sup>xc1</sup>

최초부터는 아니지만 그리스도교의 거의 시초부터 모든 가족이 세례 받을 때에 어린이 세례도 함께 실시되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도록 코르넬리우스가 불러왔고 후에 그와 함께 세례받은(사도 10:48 참조) “자기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사도 10:24) 중에는 어린이들도 있었을 것이다. 어쨌든 어린이 세례는 매우 일찍부터 실시되었다. 오리게네스는 3 세기에 저술한 책에서 어린이에게 세례주는 교회의 전통은 사도들에게서 왔다고 하였다.<sup>xcii</sup> 성아우구스티누스는 어린이 세례의 보편적 관례는 원죄에 대한 교회의 전통적 신앙의 증거라고 지적하였다.<sup>xciii</sup>

예수님 자신이 어린이 세례의 신학적 이유를 제공하였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요한 3:5) 세례의 필요성에 대해 이보다 더 강력한 주장은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인간에게 세례받을 의무를

전례: 파스카 신비와 성사생활

주셨을 때에, 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구세사 전체를 요약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마르 16:15)

더군다나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 부모가, 특히 자기의 개종이 깊은 영성적 체험이 될 때에 그 체험에 자기 자녀들도 참여시키려고 하지 않겠는가? 그들은 자기 자녀들도 하느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자녀들의 모든 생활이 최후의 목표이고 최상의 선이신 하느님께 지향하기를 고대하지 않겠는가? 부모들은 자녀들이 사랑하는 부모의 지도를 모두 다 받아들여려는 이 시기에, 이 지도도 주기를 원하지 않을까?

사실 사회도 어린이의 출생에 관심을 두고 있다. 창조적이 될지 파괴적이 될지 모를 새 성원을 받아들이는 출생은 가정이나 사회에서도 중대한 사건이다.

그리스도인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어린이는 세례로써 하느님과 계약된 민족에 가입된다. 그 어린이는 가정에서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우주 안에서도 한 자리를 차지한다. 어린이는 한 가지 목표, 인생 의미의 관건, 구원 계획 안에서 한 자리를 받는다. 그 어린이는 “선택된 겨레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의 일원이 된다 (1 베드 2:9). 그 어린이는 성자를 통해서 지상에서 자기를 창조하신 그 하느님의 환영을 받으며, 동시에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신비체의 지체가 된다.

부모들은 자녀가 세례를 받도록 데려올 때에, 하느님과 계약된 민족의 일원으로서 행동하는 것이다; 부모는 자녀를 하느님의 거룩한 나라에 가입시킴으로써 왕적 사제직을 이행한다.

## 세례의 필요성

성사: 그리스도와와의 지속적 만남

교회는 복음의 말씀을 따라 (예. 요한 3,3.5 참조) 어느 누구도 세례받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가르친다.<sup>xciv</sup>

구원을 위한 세례의 필요성에 관한 이같은 주장은 많은 사람을 당황케 할 것이다. 그리스도나 세례에 관하여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은 구원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결코 새로운 질문이나 새로운 대답이 아니다. 세례에는 물의 세례(水洗)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혈세(血洗)'와 '화세(火洗)'도 있다.

혈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으로써 받는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한 초대 예비자들이 그랬듯이 무죄한 어린이들도 피의 세례를 받았다 (마태 2:16-18 참조).

화세의 범위는 넓다. 세례받기를 명료하게 원하였으나 그 의도가 이행되기 전에 죽은 사람은 화세를 반드시 받게 된다. 또한 세례에 대한 열망이 반드시 명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느님의 은총에 따라 하느님에 대한 신앙과 사랑을 가졌던 사람도 화세를 받을 수 있다. 명료하게나 묵시적으로 세례를 열망했으나, 어떤 사정으로 세례성사를 받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화세를 받게 된다. 자신의 과오 없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모르고 산 사람들이 만민에게 충분히 주어지는 하느님의 은총 (교회 16 참조)<sup>xcv</sup> 에 대한 반응으로 선한 생활을 하려는 노력을 했다면 그들도 이름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같은 무명의 신앙도 묵시적으로 교회를 향해 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그러므로 알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묵시적으로 그분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들은 묵시적이지만 세례를 원하므로 그것을 화세라 한다.

## 세례의 인호

세례성사는 견진성사와 신품성사와 마찬가지로 영구적 인호(印號) 혹은 표징을 박아준다고 교회는 가르친다.<sup>xvii</sup> ‘인호’라는 말은 성아우구스키티누스가 그리스도교 신학에 도입하였다. 그는 군인이 어느 특정 지휘관에게 속하며, 그에게 충성해야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적(表迹)에서 그 뜻을 따왔다. 성서에는 역시 표지라는 뜻으로 쓰인 ‘인장(印章)’이란 말이 있다. 하지만 성사에서 쓰이는 인호는 볼 수 있는 예식에서 주어진다든 의미로서만 가시적(可視的)이다.

‘인호’라는 말마디가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영성적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상의 세 가지 성사와 다른 성사 사이에 있는 큰 차이에 주목해야 한다. 다른 성사는 한 번 이상 받을 수 있으나 세례, 견진, 신품성사는 한 번밖에 받지 못한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세례, 견진, 신품성사가 주는 은총은 범죄할 때에 상실되지만, 동시에 영구적 결과도 낸다. 성사를 받은 사람이 대죄를 범해도 이 결과는 존속되고 영구히 남아 있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하느님의 종들의 이마에”(묵시 7:3) 인장을 찍을 때 사용될 ‘살아 계신 하느님의 인장’을 가지고 있는 천사를 보았다. 한편 성바오로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인장이 찍혀 있었다고 한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게 되었을 때, 약속된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에페 1:13) 인장은 기름 바름과 성령과도 연결된다 (이런 이유로 세례식과 견진성사에서 성유를 사용한다):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세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인장을 찍으시고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2 코린 1:21-22). 사도 요한과 마찬가지로 성바오로도 이 인장이 영원히 존속한다고 보았다: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속량의 날을 위하여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에페 4:30).

인호는 교회의 안정과 영구성을 의미한다. 인호는 하느님의 은총이 오래 존속하며, 하느님께서 당신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자비의 사업을 계속하실 것이라고 말한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것입니다”(1 코린 3:23). 사제가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성사: 그리스도와의 지속적 만남

충분히 참여하고, 그분의 제사를 어디서나 재현하도록 선물을 받았듯이 모든 신자는 세례로써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기본적으로 참여하며,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지정되고, 그리스도의 제사와 합치하여 자신들의 생활 전체를 봉헌할 수 있게 되었다. 실패해도 그들은 세례를 다시 받지 않고, 고해성사로써 교회와 화해한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선택하시어 당신의 사람으로 표시를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에게 속해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죽으셨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도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 .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요한 17:24, 6:39). 세례 인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리스도인의 영구적 소명의 표징이고, 또한 하느님의 자발적이고 물리칠 수 없는 사랑의 표징이다.

## 토론해 봅시다

1. 세례 성사, 사순절, 부활성야 간의 관계를 토론해 봅시다.
2. 세례성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에 결합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묻히고, 함께 부활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일상생활에서 세례의 은총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3. 각 성사적 상징의 의미와 세례 예식의 의미를 토론해 봅시다. 세례 인호는 어떻게 일상생활의

전례: 파스카 신비와 성사생활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까?

## 더 읽어 봅시다

*United States Catholic Catechism for Adults*: Chapter 15 “Baptism: Becoming a Christian.”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1210-1284.

Pope Benedict XVI, *The Sacrament of Charity (Sacramentum Caritatis)*. Post-Synodal  
Apostolic  
Exhortation, February 22, 2007.

## 기억합시다

### 세례성사

- 우리는 세례성사로써 다시 태어난다; 세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죄를 용서 받으며,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의 상속인으로서 새롭고 신적인 삶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 세례성사는 구원을 위해 필요하다. 물의 세례가 일반적인 형식이지만, 이런 성사적 세례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화세’와 ‘혈세’로 구원받을 수 있다.
- 위급한 상황에서, 세례는 누구든지 심지어 비가톨릭 그리스도인이라도 유효하게 집행할 수 있다.
- 세례성사는 견진성사와 신품성사와 마찬가지로 영구적 인호 혹은 표징을 박아준다; 이것은 성사를 받은 사람이 특별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에게 영원히 속해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세례, 견진, 신품성사는 한 번밖에 받지 못한다.

## 제 5 장

### 견진성사

(가톨릭 교회 교리서 1285-1321)

#### 하느님께서 세우신 견진성사

우리는 신약성서 구절을 통해 교회의 전례 중에는 병자성사와 혼인성사와 더불어 견진성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복음에는 성체, 세례, 고해성사에 관한 뚜렷한 가르침은 나와 있으나, 견진성사에 관한 가르침은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다. 신약성서에 견진성사에 관한 말이 나올 때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천하신 뒤였다. 이 성사가 이미 초대 교회에서 집행되고 있었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두 곳에 기록되어 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내려가서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였다. 그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 그들 가운데 아직 아무에게도 성령께서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때에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사도 8:14-17). 이에 대한 또 다른 구절은 사도행전 19 장 5-7 절에서 볼 수 있다.

전례를 통해서 우리가 견진성사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것도 의미가 깊다. 이것은 종교적 가르침을 배우고 전수하는 수단으로서 전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sup>xcvii</sup>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견진성사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구별되는 성사라는 교회의 확실한 가르침을 부정하였다. 그들의 거부는 신앙이 전수되는 양식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교회가 믿는 모든 것이 추상적 선언문으로써 명료하게 구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신앙은 명료하게 규정되기 이전에 태도와 예식에 결부되어 있을 수 있다. 분명히 견진성사가 이런 경우다. 우리는 견진성사의 거행 절차에서부터 복음과 구약성서로 돌아가서 이 성사의 예식이 표현하는 풍부한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

### 성서상의 도유

사도행전에 묘사된 안수 외에도 기름의 도유가 있었다. 올리브 기름은 대개의 고대 세계에서처럼 팔레스티나에서도 값진 물품이었다. 그 기름은 용도가 다양하고 의미도 풍부하였다. 음식을 위한 조미료, 예비 화장품, 약, 운동 선수의 연고, 향수와 섞어 목욕 뒤에 쓰는 원기회복제, 기쁨의 징표 등 다양하게 쓰였다. 또한 그 기름은 지성소에서도 사용되는 등기름이었다. 모세의 지시에 의해서 올리브 기름이 도유를 위한 특수 성유가 되었다 (출애 30:25 이하 참조). 아론은 도유를 받아 대사제가 되었고, 그의 아들들도 그랬다 (레위 8:12,30 참조). 후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도유하여 왕으로 만들었고, 다윗에게도 그랬다 (1 사무 10:1 이하, 16:13 이하 참조).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도유는 도유받은 자에게 성령을 주고, 비범한 결과를 낳았다: 즉 사울은 예언을 하게 되었고,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들이닥쳤다”(1 사무 16:13).

다윗의 혈통에 속하는 예수님은 메시아이셨기 때문에 분명히 도유받을 분이셨다.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하였으며 (이사 61:1 참조), 나자렛의 설교에서 예수님이 읽고 논평하신 것이 바로 이 예언이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루카 4:18).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 뒤 성령으로부터 도유를 받았다. 히브리서는 기름 바름에 관한 구약성서 구절을 적어도 상징적으로 예수님에게 적용시킨다. “아드님과 관련해서는

성사: 그리스도와의 지속적 만남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시기에 하느님께서, 당신의 하느님께서 기쁨의 기름을 당신 동료들이 아니라 당신께 부어 주셨습니다’ (히브 1:8-9; 시편 45:7-8 참조).

## 성령의 성사

이렇게 해서 기름은 사도들에게 처음으로 보내진 은총에 대한 참여가 되었으며, 성령이 오심을 상징하게 되었다. 때때로 안수 행위는 (동방 교회에서처럼) 도유 행위에 흡수되기도 하고, 어떤 시기에는 두 행위가 분리되어 보존되기도 하였다. 오늘날 라틴 예법에서, “견진성사는 (주교가) 한 손을 이마에 얹고 축성 성유를 바름으로써, ‘그리고 성령 특은의 날인을 받으시오’(*Accipe signaculum doni Spiritus Sancti*)라는 말로써 수여한다.”<sup>xcviii</sup>

견진성사를 집행하는 데는 올리브 기름에 발삼 향료를 섞어서 사용한다 (부득이하면 다른 식물 기름과 향료를 사용해도 괜찮다). 주교는 이 크리스마 성유를 축성할 때에 그 이름이 메시아요, ‘도유 받은 자’인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는 것을 회상한다. 주교는 견진성사를 받는 사람이 ‘왕적, 사제적, 예언자적 힘을 충족하게’ 받도록 계속해서 기도한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은 크리스마 성유로써 ‘그리스도화’되는 것이다.

견진성사는 성령강림 날에 사도들에게 보내진 성령의 은총을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 있는 교회에 전파하기 위해 존재한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선물이다.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 .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 . 내가 아버지에게서 너희에게로 보낼 보호자가 오시면. . . 그분께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요한 14:16-17,26; 15:26).

전례: 파스카 신비와 성사생활

사도들에게 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은 성령강림 날에 이루어졌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 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사도 2:1-4).

성령께서 오실 때에 신비스러운 바람, 불길 같은 혀, 언어의 은혜, 용감한 선포와 많은 개종 등 놀라운 일들이 함께 따라왔다. 그러나 가장 특이한 결과는 놀란 겁쟁이 집단이 주님의 부활에 대해 고무적이고 겁 없는 증인들로 변한 것이다: “그들의 소리는 온 땅으로, 그들의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 나갔다”(로마 10:18; 시편 19:4 참조).

견진성사는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이 안수와 크리스마 성유를 바름으로써 성령강림 날에 받은 성령의 은총을 모든 교회와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성사다. 견진성사는 전세계에 연장되고, 교회 안에서 영구히 재현되는 성령강림이다. 견진성사는 그리스도의 나라와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라는 부르심이다.

사정에 의해 교회가 위임을 하면 어느 사제든지 간에 견진성사를 집행할 권한을 받지만, 견진을 줄 특별 권한은 주교에게만 있다: “견진성사의 원집전자는 주교이다. 주교 자신이 견진성사를 집전함으로써 성령강림 날의 성령강림을 더욱 명백히 드러낸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성령을 가득히 받고 그 성령을 다른 신자들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이다. 주교의 집전으로 성령을 받음으로써 견진자들을 교회에 결합시키는 인연이 명백히 드러나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그리스도의 계명도 더욱 명백히 드러난다.”<sup>xcix</sup>

## 그리스도교인 성숙의 성사

성사: 그리스도와의 지속적 만남

교회 초기에는 세례 직후에 견진성사가 집행되었다. 견진성사는 성토요일 부활 성야 예식의 일부로서 세례와 성체성찬의 중간에 거행했다. 세례는 재생이고 새로운 창조이지만 성령으로써 완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아직도 지도, 격려, 용기, 성장이 더 필요하다. 교황 바오로 6 세는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해서 인간에게 내려지는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은 자연 생명의 시작, 발전, 양육과 비슷하다. 신자들은 세례성사로써 재생하고, 견진성사로써 강화되며, 성체 안의 영생의 음식으로써 유지된다.”<sup>c</sup> 여기서 교황은 고전신학의 용어, 그리스도인이 참여하는 은총의 신적 생명은 인간 성장과 비슷하다고 가르친 성토마스 아퀴나스의 용어를 사용했다.<sup>ci</sup> 세 가지 입교의 성사는 출생, 성장, 자양분을 제공한다. 고해성사와 도유성사는 치유와 쇄신은 위한 것이고, 혼인성사와 신품성사는 그 생명의 지속과 전수에 관심을 둔다.

인류학자들은 여러 민족의 의식 행위를 연구한 뒤에야 성토마스의 가르침을 신기하게 확인하는 의식관(儀式觀)에 도달하였다. 종교는 의식을 사용하면서 생명의 발전의 어떤 위급한 순간과 시기에 개입한다. 출생과 사춘기는 위급한 시기이고, 혼인, 질병, 죽음도 그렇다. 그리스도교적 성사는 그런 위급 시에 대응하여 개인과 공동체를 돕는다.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교가 인간의 깊은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다시 한 번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인간 발전의 과정에서 견진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하여 불확실한 점도 있다. 어떤 사람은 견진성사 안에서 영신적 성숙이나 그리스도에 대한 성숙한 투신의 성사적 표징을 보고자 할 것이다. 이 점에 있어 어른에게 견진을 주는 신약성서의 실례가 그들을 지지하고, 견진성사가 힘을 주고 그리스도적 성장을 가져온다는 가르침도 그들을 지지한다.

반면에, 견진성사는 세례성사 다음에 오는 입교의 성사이므로, 동방교회는 세례 직후에 유아에게도 견진을 준다. 어떤 이는 견진성사가 입교의 성사이기 때문에, 입교의 절정을 이루는 성체성사에 완전하게 참여하기 직전에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전례적 입장에서 보면

전례: 파스카 신비와 성사생활

견진을 일찍 주는 것이 좋으나, 심리적 요인 때문에 적어도 성숙의 직전 단계까지 견진을 미루게 하는 것 같다.

교황청은 이 문제를 미결 사항으로 접어두고 있다. 『견진성사 예식서』는 라틴 예식에 속하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견진성사를 일반적으로 만 7 세까지 미루고 있다.” 그러나 사목적 이유가 있다면 ‘더욱 성숙된 연령’<sup>cii</sup>에 이르러서 견진을 받도록 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많은 곳에서 사춘기 초기까지 견진성사를 연기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스도교적 생활 전체가 재출생에서 그리스도 안에 성숙한 어른 단계로 진전하는 것으로 본다면(에페 4,13 참조), 견진이 사춘기나 그보다 더 늦은 시기에 집행되어도 입교의 성사로 보는 데에는 큰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이러한 다양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신자들이 입교과정 전체의 목적인 성체성사를 중심에 놓도록 하는 데에 어떤 관습이 더 도움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황 베네딕토 16 세, 『사랑의 성사』, 18).

견진성사를 위한 후견인은 세례성사때와 마찬가지로 대부나 대모 같은 분이 되어야 한다. 사실상 세례성사 때의 대부나 대모와 같은 사람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ciii</sup>

### 견진의 지속적 효과

견진성사는 성장을 의미하며, 견진자가 성장하도록 요구하는 지속적인 도전이다. 이러한 성장을 위해서도 생명이 요구되며, 견진자는 은총상태에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견진이 순간적인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없고 또한 그 자체가 즉각적이 성장을 위한 것도 아니다. 견진은 한 사람에게 한 번만 주어지고, 영구적 결과를 내는 성사 가운데 하나로서 영구적 인호를 준다. 견진성사가 집행될 때에 사용되는 “성령 특은의 날인을 받으시오”라는 말이 그것을 나타낸다. 성바오로가 이 날인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으며, 아래에 인용된 코린토



성사: 그리스도와의 지속적 만남

후서의 말씀이 견진성사에 잘 적용되는 것 같다;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곧세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또한 우리에게 인장을 찍으시고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2 코린 1:21-22).

기름의 향기를 풍기며 주교의 손으로 날인됨으로써 영세자는 지워지지 않는 인호, 즉 주님의 인장을 받고 자신을 그리스도와 닮게 만드시는 성령의 특은과 사람들 사이에 좋은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은총을 받는다.<sup>civ</sup>

## 성령 안의 성장

성령강림이 부활주일 다음에 오며, 파스카 신비의 결과이듯이 견진성사는 교회와 신자들의 생활 안에 성령강림을 영구화하는 성사다. 성령은 하느님의 유쾌한 선물이며, 그것을 받는 사람은 “성령의 성전”(1 코린 6:19)이 된다. 사람이 교회에서 떠난다 해도 인장은 남아 있어 항존하는 귀환 초대장이 된다.

한편, 성령강림 축일이 전례력의 일부를 완료하고 그 다음 전례력 부분까지 지배하는 것처럼, 성령은 하느님의 이 첫번째 은총을 받는 사람의 생활을 지배한다. 그리스도의 존재가 삶이며, 삶이 곧 성장이다. ‘그 신비에서’나오는 성장 과정을 성바오로가 묘사하였다: “그 신비는 여러분 가운데에 계신 그리스도이시고. . .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굳건히 서 있게 하려고, 우리는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타이르고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콜로 1:27-28).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성장을 요구하신다. 그분은 당신의 가르침을 포도나무, 수확을 내는 씨, 큰 나무가 되는 겨자씨 등에 (요한 15:1-8; 마르 4:3-20,31-32; 마르 13:31-32 참조) 비교하신다. 예수님은 무화과 계절이 아닌데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사도들을 놀라게 하셨다 (마르 11:5,20 참조). 달란트에 관한 비유에서도 양식이 다르지만 같은 주장을 하셨다. 달란트를

전례: 파스카 신비와 성사생활

감추는 자는 비난 받는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마태 25:26) 그분은 당신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마태 5:48)라고 하셨습니다. 견진의 인호는 이 도전과 목표를 잊어버리게 놔두지 않는다.

그리스도교적 생활도 하나의 생명이므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견진성사를 성숙한 투신의 예식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은총은 진정한 성장을 초래하지만, 하늘의 자녀이고 성령의 성전이 의미하는 것을 실현하는 성장은 많은 개인적 요인과 심지어는 영신적 위기의 체험에도 달려 있다. 견진의 은총은 완전한 개인적 실현을 즉각 이루지는 않지만, 그 실현을 도울 수는 있다. 그러나 슬픈 것은 세례를 받고 견진성사까지 받은 사람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리스도교적 소명을 지니면서도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것이다.

### 증거와 신앙의 수호

그리스도 친히 성령의 은총을 그리스도인의 사도적 사명과 연결시키셨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 .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사도 1:8). 견진으로써 성령의 이 특수한 힘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서 말과 행동으로 신앙을 전파하며 옹호할 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 (교회헌장 11 항). 현세에서의 사도적 임무를 위한 평신도의 소명과 지상에 천국을 건설할 평신도의 역할은 견진성사와 관련되어 있다. 평신도는 “성령의 힘을 받아 강해졌으며, 주님으로부터 사도적 수행의 사명을 받았다”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교령 3 항).

## 견진성사와 파스카 신비

견진성사는 다른 모든 성사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인 파스카의 신비에서 효력을 받는다. “견진은 관습에 따라 미사 중에 거행된다.”<sup>cv</sup> 견진이 미사와 떨어져서 집행된다 해도, 그것의 원천은 역시 파스카의 신비다. 크리스마 성유도 견진자가 이 신비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주님이 받은 도유를 상기시킨다 (이사 42:1; 마르 1:11 참조).

크리스마 성유는 기름을 받은 주님이요, 메시아이신 성자의 운명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통 당하는 신비스러운 종에 관한 하느님의 계시는 메시아의 새롭고 경탄스러운 점을 말해준다. 빛나는 전령자가 되는 대신에 메시아는 “사람들에게 멸시 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이였다. . . .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이사 53:3).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사도들도 그러하다. “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여라”(요한 15:20).

어떤 그리스도인도 주님의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루카 9:23). 우리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라고 말하고자 한다면, 성 바오로와 같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갈라 2:20). 바오로는 티모테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에 동참하십시오”라고 전했습니다 (2 티모 2:3).

성령 강림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을 일깨우고 지속시켜주기 위해 이루어지는 성령의 도유 방식은 성 요한에서 언급되었다. 성령은 중재자이며, 옹호자이고, 또 보호자이시다.

전례: 파스카 신비와 성사생활

이사야는 우리 안에 머무르고 계신 성령이 은총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고 있다. “이사이의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돌아나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움트리라. 그 위에 주님의 영이 머무르리니 지혜와 슬기의 영, 경륜과 용맹의 영, 지식의 영과 주님을 경외함이다.” (이사 11:1-2) 일반적으로 지혜, 슬기, 경륜, 용맹, 지식, 경건, 경외함이 성령의 은총으로 알려져 있다.

끝으로, 머무르고 있는 성령은 주님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실 것이다—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 순결 (갈라 5:22-23 참조).

### 토론해 봅시다

1. 견진성사의 어떤 성사적 은총이 그리스도 사도의 삶에 계속적으로 나타납니까? 성사적 견진성사는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2. 그리스도인의 도덕적 삶을 사는데 있어 성령의 인도와 힘에 의해 주어지는 견진성사의 성사적 은총의 예를 토론해 봅시다.
3. 성령의 은총이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어떻게 실현됩니까? 어떤 성령의 열매가 복음에 대한 당신의 신앙과 증인을 확고하게 해 줍니까?

### 더 읽어 봅시다

성사: 그리스도와의 지속적 만남

*United States Catholic Catechism for Adults*: Chapter 16 “Confirmation: Consecrated for Mission.”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1285-1321.

Pope Benedict XVI, *The Sacrament of Charity (Sacramentum Caritatis)*. Post-Synodal Apostolic Exhortation, February 22, 2007.

## 기억합시다

### 견진성사

- 견진성사는 선물, 은총과 함께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성사이다.
- 견진성사는 성령강림 날에 사도들에게 보내진 성령의 은총을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 있는 교회에 전파하기 위해 존재한다.
- 견진성사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서 말과 행동으로 신앙을 전파하고 옹호할 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
- 어떤 사제라도 견진성사를 집행할 권한을 받을 수 있지만, 견진을 줄 특별 권한은 주교에게만 있다.

## 제 6 장

### 치유의 성사: 고해와 화해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20-1525; 1680-1690)

“고해성사를 보는 신자들은 하느님께 끼친 모욕에 대하여 그분의 자비로 용서를 받았으며, 또한 동시에 범죄로 상처를 입혔던 교회, 사랑과 모범과 기도로써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노력하는 교회와 화해를 한다. 병자들의 거룩한 도유와 사제들의 기도로 온 교회는 병자들을 수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주님께 맡겨 드리며, 그들의 병고를 덜어 주시고 낮게 하여 주시도록 간청한다 (야고 5:14-16 참조)” (교회헌장 11 항).

이 장에서는 우리의 의사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치유성사 중의 하나인 고해성사에 관해서 설명하겠다.

#### 복음의 표징

예수님은 부활 날에 고해성사를 선포하시어, 고해성사가 어떻게 당신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와 연관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사: 그리스도와의 지속적 만남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요한 20:19-23). 이렇게 해서 고해성사가 제정되었다.<sup>cvi</sup>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도와 그들의 후계자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심으로써, 교회 안에 고해성사를 제정하셨다. 영세 이후에 죄에 떨어지는 신자는 하느님과 화해하고 은총을 회복할 수 있다.<sup>cvi</sup>

마태오복음에 기록되었듯이, 예수님은 이 선물에 대해 이미 예고하셨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그 보상을 받아 교회의 굳은 기초가 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마태 16:19). 베드로가 그 약속을 한 지 얼마 안 되어 예수님은 “사도들에게도” 매고 푸는 이 권한을 주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마태 18:18).

여러 세기 동안 교회는 죄를 사하는 이 권한을 행사하였다. 교회가 이 권한을 이행하는 예식인 고해성사에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다. 그러나 언제나 가톨릭 교회 신앙은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죄를 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졌다.

## 성사적 표징

전례: 파스카 신비와 성사생활

고해성사에서 그리스도의 은총은 볼 수 있는 표징을 통해서 내려진다. 전례 행위 자체가 내려지는 은총의 상징이며, 또한 보이는 그 행위를 통하여 주님은 은총을 내려주신다. 죄의 용서와 세례 은총의 회복도 표징에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은 당신을 의사에 비유하셨다 (마르 2:17 참조). 그분의 사명은 치료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육체적 병을 고치셨고, 인간에 대한 동정이 진실한 것이었지만 인류의 모든 병 치료에 착수하신 것은 아니다. 병의 치료를, 당신이 모든 사람에게 주고자 하신 좀더 근본적으로 도덕적이고 영신적인 치유의 표지로 삼았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 주겠다.” 그리고 나서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마르 2:10-11). 이 경우에 인간 육체를 치료한 건 보이는 표징인 용서이긴 하였으나,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은총을 내려 주실 때에 사용하는 성사적인 표징은 아니었다.

고해성사로서 치료되는 병의 종류에 대하여 숙고할 때 고해성사의 표징의 적절함을 알게 된다. 여기서의 관심사는 영신적인 병이다. 영신적 병은 도덕 질서 안에, 즉 자유와 책임의 영역에서 개인에게 영향을 주어 사회적 결과로 나타난다. 이 맥락에서 육체적 약을 사용하는 의사의 예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고백에서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 나인에서 부활한 청년이 상징하듯이 (루가 7:14 참조), 죄인은 치료의 은총으로 회복되어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며, 잃었던 아들과 같이 성부의 환영을 받는다 (루가 15:20-24 참조). 동시에 죄인은 공동체 안에 복원되어 공동체의 성찬 식탁에 다시 참석한다. 하느님은 은밀히 죄를 사하실 수 있다. 그러나 죄인은 겉으로 눈에 띄게 교회 공동체와 화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회개자가 치료되면 공동체도 치료된다.

## 구원의 재판소



개인과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병을 치료하는 법과 사회가 범인을 사법 심리를 통해서 처리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하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이 점을 들면서, 고해성사와 세례를 구별하고 고해의 신학을 발전시킨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성베드로에게 주어진 사죄권을 지적하면서, 재판 형식의 고해성사를 설명하고 정당화한다.<sup>cviii</sup> 더 나아가 “사제는 판사처럼 행동하면서 죄를 사한다”<sup>cix</sup> 고 트리엔트 공의회와 현대 교회는 가르친다. 죽을 위협에 처한 환자의 경우가 아니고는 사제는 고해성사를 주기 위하여 지역 주교에게서 사죄권을 받아야 한다.<sup>cx</sup> 『고해성사 예식서』에는 이렇게 씌어 있다: “고백은 고백자 편에서는 하느님의 일꾼(사제)에게 자기 마음을 열어 보이려는 의향을 요구하고, 하느님의 일꾼(사제)편에서는 죄를 풀어주거나 매어놓는 권한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판단을 내리는 영신적 재판을 요구한다.”<sup>cxii</sup>

물론 예수님도 빌라도, 헤로데, 가야파와 같은 판관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 그렇지만 그분은 베드로에게 사죄권을 주시고, 사도들에게도 지상에서 매고 푸는 권한을 주셨을 때에 (마태 18:18 참조), 인간의 사법 심리 절차를 하느님의 정의의 표징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 이후에도 사죄권을 갖게 하셨다 (마태 19:28 참조). 분명히 긴요하고 거룩한 고해성사에는 재판 형식의 표징이 정당하다고 예수님은 생각하셨다.

그리스도께서 고해성사를 제정하시면서 사용하신 말씀 (“누구의 죄든지 당신이 용서해주면...”)도 판결권을 내포하고 있다. 하느님의 재판소에서 대화와 영신적인 상담을 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대화나 상담의 성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 목적에 적당한 다른 방법도 있다. 죄인인 우리에게서 하느님의 용서가 필요하다. 예수님은 성사적 재판소를 용서와 화해의 길로 지정하셨다. 그 길은 죄인 개개인을 치유하는 가운데 상처입은 공동체를 치유하는 길이다.

## 자비의 판결

전례: 파스카 신비와 성사생활

고해성사는 특수한 재판소다. 범인인 죄인은 자신을 고소하고, 주님의 대리자 앞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통회하며 주님께 다가간다. 고해성사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을 듣는 사제는 고해자의 마음 개방, 통회, 회개할 의도를 보고 용서의 판결을 하는 근거로 삼는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제는 고백을 듣는다; 그래서 사제에게 한 말은 절대 비밀의 의무로 보호받는다. 사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구세주의 자비로운 판결을 내리는 것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 이러한 성사적 표징은 적당하다. 그 표징을 통하여 행동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재판관이시다 (마태 25:31-46 참조).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로마 14:10).

고해성사의 판결 형식은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생애의 순례를 통하여 계속해서 판결문이 되고 있다는 것도 상기시킨다. 이 판결문의 양식은 히브리서에서 볼 수 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어떠한 피조물도 감추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 눈에는 모든 것이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하느님께 우리는 썸을 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 4: 12-13). 이 구절은 신앙으로 사는 이에게는 “하늘 위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제”(히브 4:14)가 내린 그 심판이 구원을 가져온다는 것을 말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순례의 길을 따라 여행하는 우리는 고해성사 안에서 처벌이나 최종 판결이 아닌 치료적인 구원의 판결을 내리는 자비의 재판소를 가지고 있다.

## 개인적 참회

죄는 자동적으로 용서되지 않는다. 고해성사에서 큰 권한을 행사하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나 앞에서 배웠듯이, 성사를 받기 전에 모든 교회의 핵심이신 하느님에 대한 인간의 추구가

성사: 그리스도와의 지속적 만남

있어야 한다. 그 추구는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신앙 안에서 표현된다. 성사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도, 성사를 통해서 전달된 하느님의 은총에 대한 개인적 반응이 필요하다. 고해성사에서처럼 개인적 행동이 더 요구되는 성사는 없다. 용서를 받기 위해 그리스도에게 다가오는 사람에게는 아주 개인적인 내적 상태가 있어야 한다.

죄를 완전히 용서받자면 성사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세 가지 행동이 고해자에게 요구된다. 그것은 참회와 고백과 보속이다.<sup>cxii</sup>

## 고해성사의 필요성

세례성사 후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은총과 친교를 회복시키기 위해 고해성사는 필요하다. 고해성사를 받을 필요성은 “세례성사 후 지은 대죄를 용서받고 감면받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이 성사를 행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례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일이다.”<sup>cxiii</sup>

대죄를 참회하고 있지만 고해성사를 바로 받을 수 없는 사람은 가능한 빨리 죄를 고백할 결심이 서있을 경우, 완전한 참회 -즉, 하느님의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는 통회-를 통해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총과 뜻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비의 성사를 거부하는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용서를 구할 수 없을 것이다.

## 참회

고해자에게 요구되는 세 가지 행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참회 혹은 하느님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진정한 후회다. 사실 참회는 사랑의 다른 면에 불과하다. 참회는 사랑을 파괴하고 위협하는

전례: 파스카 신비와 성사생활

모든 것을 배척하는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이 언제나 첫 자리를 차지하듯이 (1 코린 13:13 참조) 참회도 첫번째가 된다.

죄인은 회개하면서 하느님께로 와야 한다. 복음의 시초에서부터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와 조건으로서 회개가 선포되었다.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죄를 용서받기 위한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선포하였다”(마르 1:4). 회개 (그리스어로 ‘메타노이아’)는 마음과 생각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한다; 회개는 죄를 멀리 떠나 하느님께로 향하는 전환점이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살기 위해 죽는 파스카 신비의 심장부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는 살아 있으면서도 늘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집니다. 우리의 죽을 육신에서 예수님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2 코린 4:11).

우리가 슬퍼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고 죄를 반복하지 않기로 결심하지 않고, 또한 하느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그것은 입술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내적인 통회라야 한다. 통회는 신앙의 동기에서 나온 것이어야 하며, 인간 행동의 어떤 나쁜 결과에 따르는 후회에 기초하는 단순한 인간적인 후회여서는 안된다. 최상의 통회라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께 대한 회개는 하느님을 첫번째 자리에 놓고, 은총의 도움을 받아 하느님 외에 아무것도 더 중요시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의미한다. 통회는 보편적이어야 한다: 하느님과의 우정을 끊는 모든 대죄에 대하여 슬퍼해야 한다.

작은 것까지도 합해서 모든 죄에 대한 통회를 권장한다. 자주 고백을 하기를 권하는 것은 주로 소죄를 극복하고, 좀더 치열한 신앙과 사랑이 우리 생활을 지배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용서받기를 바라는 모든 죄에 대하여 진정한 통회를 느껴야 한다.

하느님께 대한 참된 사랑이 통회의 동기가 되고, 모든 것 위에 사랑하기로 정한 하느님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슬퍼한다면 그 참회는 ‘완전한 참회’라고 한다. 고해자의 참회 행위가 완전한

성사: 그리스도와의 지속적 만남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의 완전한 동기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한’ 참회다. 신앙의 다른 동기에 기초한 참회라면, 예컨대 고해자가 하느님은 의로우시고 당신 말씀에 충실하시기 때문에, 죄악을 떠나서 하느님을 섬기지 않으면 당연히 처벌받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통회를 한다면 그 참회는 ‘불완전한’ 것이다.

완전한 참회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의 행위이고, 사람을 인도하여 회개하도록 하는 하느님의 은총의 결실이다. 그러므로 중죄에 떨어졌던 사람이라도 완전한 참회를 하면 즉시 하느님과 친교를 다시 맺게 된다. 그러나 특수한 환경에서가 아니라 대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신앙의 가족과 결별하였던 사람은 성체를 영하기 전에 고해성사를 받아야 할 중대한 의무를 가진다. 고백을 하고자 하나 그럴 기회가 없던 사람은 가능한 빨리 고백하기로 약속하며 완전한 참회를 하도록 해야 한다.<sup>cxiv</sup>

죄에 대한 통회는 다시는 죄에 떨어지지 않을 결심을 포함한다. 통회자는 자신의 나약성 때문에 자신은 또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하지 못하더라도 현재의 결심만은 솔직하고 실질적이어야 한다. 통회자는 변화를 원하고, 주님께 충실하며, 충실성을 실현하기 위해 실질적 방법을 취할 의도가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용서는 언제나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요한 8:11)라고 요청한다.

## 고백

고해성사를 세울 때에 사용된 그리스도의 말씀, “누구의 죄든지 당신들이 용서해주면. . .”은 죄를 용서해주는 사제가 현명하게 분별하도록 독려한다. 하느님의 법에 의하면 조심스럽게 양심 성찰을 해서 기억할 수 있는 모든 대죄뿐 아니라 죄를 과중하게 만드는 사정까지도 사제에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이다.<sup>cxv</sup> 영세 이전에 범한 죄를 고백할 필요는 없다.

전례: 파스카 신비와 성사생활

영세받을 때에 과거의 모든 죄가 용서되기 때문이다. 또한 한 번 고백하여 사죄를 받은 대죄를 다시 고백할 필요는 없다.

열심으로 고백한 자는 대죄를 자주 범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생활에 흠을 남기고, 사랑을 제한하는 죄에 대하여 참된 통회를 하도록 주의하면서 소죄라도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면 은총을 받을 것이다. 사람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완전한 점을 기억하고 고백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신심적 고백은 타인에게 해를 끼쳤거나 덕행을 향한 자신의 진보를 방해하는 결함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 그런 결함에 대해서는 좀더 진정한 통회를 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 보속

교회는 죄에 대한 ‘현세적 벌’이 있다고 믿는다. 그 의미는 의롭고 자비로운 하느님은 고해자가 자기 죄에 대하여 보상하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이다; 고해자가 보속 행위를 통해 스스로 벌을 받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나 죽은 후 연옥에서 죄에 대한 벌을 받을 것이다.

죄에 대한 현세적 벌이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특히 포로 생활 때에 저지른 불충실 때문에 당한 모든 곤경으로 입증된다. 개인의 죄악도 비슷한 결과를 갖는다. 모세는 자기의 의심을 용서받았다. 그러나 의심을 가졌기 때문에 약속된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받지 못하였다. 다윗은 자기의 간음죄를 용서받았으나, 죄악의 결함으로 생긴 아이는 생존하지 못하였다. 현세적 벌은 죽은 후에도 지속된다. 그래서 마카베오서에서 죽은 이를 위한 기도의 가치에 관하여 읽을 수 있다 (2 마카 12:43-46 참조). 성바오로는 죽은 후에 정화가 있을 것이라고 가르친다 (1 코린 3:10-15 참조).

그러므로 고해자는 사제가 요청하는 ‘보속’을 함으로써 자기 죄에 대한 약간의 보상을 받아 고백 행위를 완수해야 한다. 옛날에는 엄한 보속을 요청한 적이 많았다. 그러나 요즘은 보통

성사: 그리스도와의 지속적 만남

고해자가 자기 죄를 고백한 후에 사제가 지정하는 일정한 기도를 하는 것을 보속이라 한다. 고해자의 개인적 상태에 따라 적당한 보속의 종류와 정도를 하게 하여, 고해자는 혼란된 질서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적당한 치료로써 고해자가 가진 병이 치료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보속 행위는 실제로 죄에 대한 치료약이고 생활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sup>cxvi</sup>

우리의 죄악은 생각보다 매우 중하고, 흔히 우리의 보속 행위는 미약하다. 교회는 신자들에게 은사를 제공하여 약점을 가진 우리를 돕기도 한다. 은사는 이미 용서받은 죄에 해당하는 현세적 벌의 전부(全大赦)나 부분의(限大赦) 면제를 말한다.<sup>cxvii</sup>

은사를 밀받침하는 원리는 교회의 역사만큼 오래되었다. 은사의 원리는 그리스도의 신비체 교리에 기초하고 있다. 이 신비체의 모든 지체는 병든 한 지체의 안녕을 위해 공헌해야 한다고 성바오로는 기록하였다 (1 코린 12:21-26 참조). 그리스도의 죽음이 지닌 무한하고 결정적인 가치를 잘 알면서도, 자신의 고통이 골로사이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다고 즐거워한다. 이어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내가 이렇게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골로 1:24) 라고 말하였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받은 권한의 힘으로 이미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공로를 일부 나누어주어, 죄에 해당하는 현세적 벌의 양을 제거하거나 경감시킬 수 있다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이다.

은사를 얻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교회가 은사에 부과하는 선행을 해야 한다. 은사는 일종의 지레 장치와 같아서, 개인이 하는 비교적 작은 신심 행위라도 큰 은혜를 가져다 준다.<sup>cxviii</sup>

### “수고스러운 세례”

트리엔트 공의회는 나지안즈의 성그레고리우스와 다마스쿠스의 성요한을 인용해서 “교부들이 고해성사를 ‘수고스러운 세례’라고 불렀다”고 하였다.<sup>cxix</sup> 같은 자리에서 트리엔트 공의회는 당대의 일부 학설에 반대하여, 고해성사는 세례와 구별되는 성사라고 단언하였다. 고해성사가 세례의 거룩한 상태를 회복하므로 ‘일종의 세례’라고 불리며, ‘우리의 많은 눈물과 노력 없이는’ 효력을 내지 못하므로 ‘수고스럽다’고 한다.

고해성사는 실제로 세례의 거룩한 상태를 회복하거나 갱신한다. 세례의 거룩한 상태를 잃으면 고해성사로써 회복할 수 있다. 대죄를 범한 신자는 고해성사를 하고 죄와 용서를 청할 의무가 있다. 죄의 용서는 속히 청해야 한다. 교회법은 일년에 한 번씩 고해성사를 받으라고 요구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대죄가 없는 사람에게 이 특별법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sup>cxx</sup>

고해성사는 일상 생활의 도덕적 투쟁에서 소죄나 결함만을 범하였을 경우에도 유익하다. 세례의 순결을 갱신하는데, 다시 말하면 세례 순결의 완전한 광채를 회복하기 위해서 고해성사는 필요하다. 사실... 고해성사를 조심스럽게 자주 받는 것은 소죄의 치료에는 매우 유익하다. 이것은 단순히 예식의 반복이나 심리적 수련이 아니라 세례의 은총을 완성하는 중대한 노력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지닐 때와 같이, 잦은 고백을 통해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안에 더욱 선명해질 것이다.<sup>cxxi</sup>

### 어린이와 고해성사

고해성사가 ‘수고스러운 세례’라는 생각에 비추어, 어린이에게 고해성사를 준비시키는 실천적 과정이 필요하다. 유아가 세례받을 때에는 부모와 대부모가 유아를 대신한다. 그러나 어린이의 지능이 발달하면 그들 자신이 세례의 의미를 배우고, 또한 ‘수고스러운 세례’를 준비하게 한다. 어린이들은 고해성사를 받기 위해 준비하면서 자신들의 유아세례를 실현하고



재생시킬 수 있다.

어린이 고해성사는 너무 오래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어린이의 추리능력은 점차로 발전한다. 그러므로 그의 도덕적 양심, 즉 도덕 규범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판단하는 능력도 수련되어야 한다. 일찍이 받는 고해성사는 어린이를 도와, 세례 때에 함축적으로만 했던 선택을 직접으로 하게 할 것이다. 유아세례는 그리스도를 향한 개종이요, 전향이었다. 첫 고백은 저 기초적인 개종을 더욱 개인적이고 자유로운 것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어린이는 첫 영성체를 하기 전에 첫 고백을 해야 한다.<sup>cxvii</sup>

첫 고백과 첫 영성체를 위한 적당한 연령은 교회 문헌에서 '이성'과 '분별의 연령'이라고 불리는 때다. 고백과 영성체에 적절한 연령은 어린이가 추리하기 시작하는 때다. 즉 만 7 세쯤이다. 그 시기부터 고백과 영성체에 관한 법규를 지킬 의무가 시작된다.<sup>cxviii</sup>

## 공동체의 측면

고해성사를 제 2 의 세례로 보면 이 성사가 참으로 교회의 공식 전례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세례가 개종자를 우선 그리스도의 몸에 편입시키는 것이라면, 고백은 대죄 때문에 생명을 잃은 사람에게 생명을 회복시켜준다. 초대 교회에서 실시되던 공정 화해 예식은 이 점을 분명히 해주었다. 오늘날, 고백을 공동체와 하느님과의 화해 양식으로 보거나 공동 예배 중에 하는 고백을 세례와 비슷한 것으로 볼 때, 고해성사가 교회 공동체 전례 행사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된다.

전례: 파스카 신비와 성사생활

교황 베네딕토 16 세가 언급하였듯이 “성찬례와 고해성사의 관계는 죄가 결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죄는 우리가 세례성사를 통하여 들어간 교회의 친교에 언제나 해가 된다” (사랑의 성사, 20).

## 공동 고백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고해성사의 예절과 경문은 이 성사의 본질과 효과를 뚜렷이 표현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전례헌장 제 72 항).

그래서 고백은 현대의 전반적 전례 개혁에 따르는 기본적 변화, 즉 하느님과 계약된 백성 안에서 집중하는 공동체 의식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 백성의 모든 성원은 예배에 충실히 참석하도록 초대되었다. 그뿐 아니라 고백은 초대 그리스도교 신자들 사이에는 공동체 행사였다. 그러므로 근대에 와서 공동체 행사에서 비교적 고립되었던 고백 예식을 개혁하는 데에 사용될 모형은 이미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고백을 교회 내의 공동체 행사로 재건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했다.

고백이 진정한 전례 행사라는 것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개인 고백의 맥락을 이루는 공동체 예배 행사 중에서 고해성사를 거행 할 수 있다. 이것은 초대 교회의 관습이었다. 일정한 부류의 죄를 개인적으로 주교에게나 사제에게 고백하면서도, 이 고백은 사순절 시기에 거행되던 공식 전례 중에 이루어졌다. 고백 예식은 처음에 예비자를 중심으로 거행되던 부활 전례와 병행하였던 것을 확장하였다.

하지만 진정한 공적 고백 예식이 되려면 필요한 것이 더 있다. 죄에 대한 공동체 의식과 교회적 차원의 의식이 있어야 한다. 초대 교회에서 어떤 중죄를 범한 죄인은 파문되고 난 뒤, 공개적인 보속 행위를 해야 했으며, 성목요일에 성찬식에 참석함으로써 교회를 통하여 하느님과 화해하였다. 개인 고백에도 이런 공개 보속의 잔재가 남아 있다. 고해자는 고백을 기다리는

성사: 그리스도와의 지속적 만남

사람들의 대열에 공개적으로 선다. 그러면서도 대죄가 있으면 고해성사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생명의 은총을 회복할 때까지 영성체를 받지 말아야 한다. 고해자가 공개적으로 성찬 식탁에 참석할 때 비로소 하느님과 공동체와의 화해가 완성된다.

우리의 죄에 공동체적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게 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또한 개인주의적 사고가 매우 강한 오늘날에는 많은 이에게 매우 불쾌한 일이 될 것이다. 우리는 공적 고백으로써 개인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 실제로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때문에 갖는 죄의 책임에 관한 인식 영역을 넓혀준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이므로 한 지체의 병은 몸 전체에 고통을 일으킨다. 적어도 개인의 실패는 몸 전체의 성장을 방해하고 활동력을 제한한다.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1 코린 12:26). "인간은 감추어지고 신비스러운 하느님의 설계를 통해 초자연적 유대 안에 함께 묶여 있으므로 한 사람의 거룩함이 타인에게 혜택을 주듯이 한 사람의 죄는 타인에게 해가 된다."<sup>cxxiv</sup>

## 죄의 사회적 측면

이렇게 넓은 안목에서 보면, 불경죄처럼 하느님을 직접 거스르는 죄악을 제외한 모든 죄는 이웃이나 자신을 침해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법을 어기는 범죄가 된다. 자신만을 직접 해치는 죄악도 공동체의 조화를 어지럽힐 가능성을 지녔다. 십계명 중에 나중 칠계명은 이웃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도둑질을 할 때 나는 타인을 침해하고, 그 사람과 가족에게 결핍을 초래한다. 또한 공동체 전체의 개방성과 상호 신뢰를 줄이고, 그리스도의 신비체 안에 맥박과 생명의 흐름을 감소시킨다. 이웃과 관련성을 갖는 제 9 계명과 제 10 계명을 거스른 '은밀한' 죄에

전례: 파스카 신비와 성사생활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불경죄와 첫번 3 계명을 거스르는 죄도 불명예를 조성할 수 있다. 한마디로 개인적이고 은밀한 죄도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결과를 낼 수 있다.

어떤 죄는, 특히 태만죄는 개인적 죄악이면서도 공동체적 측면을 갖는다. 한 가지 예는 인종 차별주의다. 이것은 모든 것을 엮어매는 거미줄처럼 우리 모두를 그 결과와 관련시킨다.

널리 만연된 사회 부조리도 마찬가지다. 소수의 사람이 거대하고 극적인 방법으로 부조리와 관련되어 있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기아에 울고,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빈곤을 다하며, 얼마나 많은 문맹자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가? 또 사람들은 학교다운 학교, 병원다운 병원, 주택다운 주택들을 얼마나 바라고 있는가? 그런데 공사간(公私幹)의 낭비, 국가나 개인의 허영된 지출, 치열한 군비 경쟁이 웬 말이냐?... 아직도 가난 속에서 배움에 굶주리고, 불안한 생활을 계속하는 형제들의 운명을 보고도 무관심할 수는 없다. ‘저 군중이 가엾구나’(마르 8:2)하신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이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마음도 고통을 동정할 줄 알아야 한다.”<sup>cxxv</sup>

1971년에 열렸던 주교회의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극심한 불의는 인간 세계에 지배와 억압과 학대의 조직망을 쌓아올리고, 자유를 억누르며, 인류의 대다수가 좀더 의롭고 형제적 세계의 건설과 기쁨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세상은 ‘불의의 중죄’로 가득 차 있다.<sup>cxxvi</sup>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양심 성찰을 할 때에 자기의 사회적 책임과 죄악의 사회적 결과를 성찰해야 한다.<sup>cxxvii</sup>

## 성사의 거행

고해성사는 공동 예식이나 개인적 예식, 두 가지 방법으로 집행될 수 있다. 공동 예식도 성사의 중요한 개인 요소를 보존한다. 각 고해자는 자기의 죄를 개별적으로 고백하고 개별 사죄를

성사: 그리스도와의 지속적 만남

받는다. 그리고 개인적 예식도 교회의 모든 전례 행위가 그러하듯 공식적인 요소를 갖는다. 고해성사는 보통 공식적으로 인가된 장소에서 집행되고, 중죄를 범한 사람은 사죄를 받을 때까지 성찬 식탁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고해성사를 집행하는 사제는 특수한 긴급사태가 아니면, 지역 주교한테서 사죄권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 옛 관습

초대 그리스도교 신자들도 공동체 행사 중에서 개별적으로 죄를 고했다. 어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고해성사를 일생에 한 번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더 자주 고백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웠다. 이것에서 보면 현대 관습과 옛 관습에 차이가 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영세자가 갖게 되는 거룩함에 관하여 매우 고상한 생각을 가졌다. 그래서 적어도 영세자가 중죄에 반복해서 떨어진다는 것을 거의 생각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죽음 직전까지 고백을 미루는 경향이 생겼다.

켈트 수사들은 이 어려운 문제를 깨치고 처음에는 수도원 안에서, 다음에는 외부에서도 개인 고백을 자주 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유럽이 야만인의 침략에서 회복되면서 유럽 대륙 내의 전교 여행 중에도 자주 고백을 하였다. 양심상의 고충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고백이 치료의 성사일 뿐 아니라 계속적인 자비의 성사가 되었다. 고백이 열심히 한 이에게는 회개를 깊게 하는 방법이고, 성령 안에서 성장을 도모하는 방법이 되었다. 이런 정신 아래서 교회는 규칙적이고 잦은 고백을 권장한다. 교회는 대죄 중에 있는 이가 속히 회개하기를 권한다. 교회는 고해성사를 통해 신자가 그리스도의 치유와 성화의 은총을 받도록 독려한다.

## 고백예식

『고백예식』은 새로운 화해 예식 안에다 옛 관습과 현대 관습을 융합시킨다. 개인 고백은 재판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자비로운 치유의 효과를 낸다. 개인 고백은 요즈음 장려되는 공동 고백 안에서도 같은 효과를 낸다. “공동 고백에서는 고백의 교회적 성격이 더 명백히 드러난다.”<sup>cxviii</sup> 공동 고백은 죄의 사회적 측면과 죄인이 하느님께 돌아오면 공동체와의 화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신자들은 고백의 공동 집전에 참여함으로써 서로를 보조한다. 공동 고백의 독서와 성가와 기도는 참석자들을 통회하면서 다가오는 하느님의 가족으로 묶어주고, 각 고해자가 개인적 회개와 새로운 결심을 깊이 하도록 돕는다.

개인 고백에도 어떤 이점이 있다. 개인 고백이 공식 예배의 성격을 약간 갖는다는 것을 이미 말했다. 성서 구절을 사제나 고해자가 낭독하거나 사죄경을 외우면서 사제가 고해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는 등, 개인 고백을 위한 예식은 고백의 품위를 높일 것이다. 개인 고백은 매우 융통성이 많고, 성사 집행에다 영성적, 사목적 지도를 병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사죄경의 서문이 보여주듯이 개인 고백은 그리스도교적 공동체와의 화해이며, 교회적 행위이다: “인자하신 천주 성부께서 당신 성자의 죽음과 부활로 세상을 당신과 화해시켜 주시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교회의 직무 수행으로 몸소 이 교우에게 용서와 평화를 주소서. 나도... 이 교우의 죄를 사하나이다.”<sup>cxix</sup>

사람들이 특수한 사유 때문에 개별적으로 죄를 고백할 수 없을 때는 공동 사죄경으로써 성사적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동 사죄는 지역 주교가 규정한 ‘중대한 요구’가 있을 때만 받을 수 있다. 지역 주교는 ‘주교회에서 다른 성원들과 상의해서’ 이를 결정한다.<sup>cxx</sup> 공동 사죄를 받은 사람이 다시 공동 사죄를 받으려면, 적당한 이유로 방해받지 않는 한 먼저 개인 고백을 해야 한다.<sup>cxxi</sup> 고백은 윤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는 한 일년 안에 해야 한다. 물리적이거나 윤리적 장애가 면제해 주지 않는 한 개별적 고백과 개별 사죄만이 신자들이 하느님과 교회와 화해하는 정상적인 길이다.<sup>cxxii</sup>

성사: 그리스도와의 지속적 만남

고해성사가 개별적 예식이나 공동 행사 중에 집행되어도 고해자의 가장 큰 기쁨은 가장 심한 노예 상태에서 자유로워지고, 새로운 부활로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그들은 하느님께 완전히 전향하여 깨끗한 양심과 회복된 정의의 기쁨을 느끼며, 새로운 출발에 대한 가벼운 희망을 안고 고백소에서 나온다. 다시 한 번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다시 한 번 그들은 “새것이 된다”(2 코린 5:17).

### 토론해 봅시다

1. 고백과 화해의 성사는 왜 세례성사 후에 이루어집니까?
2.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이, 성인으로 변한 죄인의 예를 토론해 봅시다. 성인의 생활은 고백과 화해에서 성사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무조건적이고 자비로우신 사랑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3. 왜 우리의 죄를 사제에게 고백해야 합니까?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61-1467)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지속적인 개종과 성장을 위해 이 성사에 참여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 더 읽어 봅시다

*United States Catholic Catechism for Adults*: Chapter 18 “Sacrament of Penance and

전례: 파스카 신비와 성사생활

Reconciliation: God Is Rich in Mercy.”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1420-1525.

Pope Benedict XVI, *The Sacrament of Charity (Sacramentum Caritatis)*. Post-Synodal  
Apostolic  
Exhortation, February 22, 2007.

## 기억합시다

### 고해성사

- 예수님께서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 부활절에 우리에게 고해성사를 주셨다.
- 고백하고자 하는 이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진정한 통회와 개선의 목적을 지녀야 한다; 자신의 죄, 특히 예전에 용서받지 못했던 모든 죄까지 다 고백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고해성사를 이행하기로 결심이 서야 할 것이다.
- 대죄를 지은 그리스도인들은 고해성사를 받아야 하는 중대한 의무가 있다; 단지 소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 성사로써 용서받을 수 있다.



## 제 7 장

### 병자성사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99-1532)

#### 그리스도와 병자

우리 주님은 병자에 대하여 동정심을 보이셨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히셨다.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마태 11:5) 큰 잔치에 관한 비유에서 시종들은 “어서 고을의 한길과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들과 눈먼 이들과 다리저는 이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루카 14:21)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활동 가운데 환자의 치료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앞에서 그리스도 자신과 복음사가들은 병의 치료를 영신적 치유의 표징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보았다 (마르 2:10-11 참조).

#### 성서상의 도유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동정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뿐 아니라 누가 그 동정심의 특별 대상이 되는지도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어느 잔치 자리에서 교훈을 내리시기 전에 비천한 손님을 끌어들이는 큰 잔치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네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루카 14:13). 마지막 심판에 관한 비유에서 벌받을 사람들에게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지 않았다. . .”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마태 25:43), 반면에 상받을 사람들에게 “내가 병들었을 때에 찾아 주었다. . .”고 말씀하셨다 (마태 25:36).

사도들이 복음 선포를 돕기 위하여 활동할 때였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 주게 하셨다.” (마태 10:1) 그 분이 부활하신 뒤에도 비슷한 사명이 제자들에게 주어졌다.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마르 16:18) 마르코 복음의 앞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 주었다.” (마르 6:13) 이것이 병자성사의 도유에 관한 첫 암시다.<sup>cxxxiii</sup> 예수님은 여기서 구마적 치유로 이미 존재하던 관습을 인준하셨고, 그 관습에 새로운 의미를 부과하셨다. 예수님 자신의 치유 행위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의 치유도 천국의 도래를 선포하는 표지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루카 4:18-19; 이사 61:1-2 참조).

그리스도는 당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병자를 돌보기를 원하셨다. 병자를 위한 봉사는 모든 그리스도 신자의 의무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특별하게 사제들이 그리스도 자신의 직접적인 치료 행위라고 할 만한 성사적 행위를 하게 하면서도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름을 바르라고 명하셨다 (야고 5:14 참조).

성사: 그리스도와의 지속적 만남

견진성사에서와 같이 우선 초대 교회에서 행해진 병자의 도유에 관한 기록을 야고보서에서 볼 수 있다. 이 서한은 주로 도덕적인 격려이며, 병자성사는 이런 격려의 일부로 거론이 된다. “여러분 가운데에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양 노래를 부르십시오.” (야고 5:13)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가운데에 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원로들을 부르십시오. 원로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그 아픈 사람을 구원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야고 5:14-15) 이 구절은 트리엔트 공의회가 “이 거룩한 병자의 도유를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신약의 참되고 적절한 성사로 세우셨다”<sup>cxxxiv</sup> 고 선언할 때에 이 구절을 인용하였다.

## 병자의 성사

야고보서의 말씀이 분명히 밝히듯이, 병자성사는 병자와 허약자를 위한 성사다.

따라서, “병과 노쇠로 위험한 상태에 있는 이들이 이 성사를 받도록 특별히 주의하고 관심을 두어야 한다.”<sup>cxxxv</sup> 환자의 친척과 친구는, 환자가 특히 중병인 경우에 사제를 불러 환자를 돕는다든지, 환자가 병자성사를 가치 있게 받도록 준비시키는 사랑의 의무를 지닌다.

수세기 동안, 죽음에 임박한 중환자에게만 이 성사를 받게 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 성사를 ‘중부성사’ 즉 ‘마지막 도유’라고 불렀다. 그러나 교회는 이 병자성사가 좀더 널리 이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부성사’는 또한 더 적절히 ‘병자의 도유’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생명이 위급한 지경에 놓인 사람들만을 위한 성사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 성사를 받는 적절한 시기는 이미 신자가 질병이나 노쇠로 죽을 위험이 엿보이는 때로 여겨진다” (전례헌장 제 73 항).

전례: 파스카 신비와 성사생활

그러므로 병자가 죽음 직전에 이를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위독한 상태까지 왔는지 상식적으로 판단을 내리면 된다. 너무 세심할 필요는 없다.<sup>cxxxvi</sup> “병자가 이 성사를 받은 후 건강을 회복하였다가 다시 병들었을 경우라든가 또는 동일한 병세가 계속되다가 중태에 빠지게 되는 경우에는 반복해서 실시할 수 있다.”<sup>cxxxvii</sup> 더욱이, “위험한 병 때문에 외과수술을 받아야 할 때마다 병자는 수술 전에 이 성사를 받을 수 있다.”<sup>cxxxviii</sup>

교회는 더 나아가 이같이 가르친다: 노환으로 말미암아 기력이 많이 쇠진해지는 노인들에게는 병세의 위험성이 목전에 나타나지 않아도 이 성사를 줄 수 있다. 어린이들도 그들이 이 성사로써 힘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이미 이성의 활동을 갖추었을 때에는 역시 병자성사를 줄 수 있다.

또한 ‘병자성사를 받아야 할 적절한 시기를 만나게 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이 성사를 청해서, 신앙과 믿음으로 그것을 받도록 해야 하며, 결코 이 성사를 미루는 폐습에 떨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신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병자들이 비록 의식이나 이성의 활동을 상실하였더라도, ‘의식이 있을 때라면 아마도 믿는 마음을 가지고 병자성사를 청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그들에게 성사를 줄 수 있다. 하지만 사제는 ‘이미 죽은 자’에게 병자성사를 주지 않도록 한다. 만약 병자가 확실히 죽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의심이 갈 경우에는 조건부로 이 성사를 줄 수 있다.<sup>cxxxix</sup>

교회는 병세가 위독하거나 노쇠한 이에게도 병자성사를 주어 그리스도의 치유의 손길을 뻗친다; 그 때에 병자는 천상의 의사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 복음에서 여인은 주님의 옷이라도 만지고자 하였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마르 5:28). 오늘날 병자는 병자성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지고’, 그분의 위력을 느낀다.

## 공동체적 측면

## 성사: 그리스도와의 지속적 만남

병은 병자 개인과 그가 속한 공동체의 생명에 대한 위기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회도 이것을 이해하여 이 위기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회 종교적 예식을 발전시켰다. 성 야고보는 병자가 “교회의 원로들을 청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병이 지닌 공동체적 측면을 분명히 보았다. ‘원로들’, 즉 ‘장로’들은 공동체와 공동체의 관심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성 야고보는 ‘신앙의 기도’에서 그러한 관심들이 병자를 낫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하여 병자 주위에 모여든 교회인 신앙의 공동체가 기도를 드린다.

『병자성사 예식서』에는 내용과 표현이 풍부한 예식이 담겨 있다. 이 예식서에는 인사, 개회식, 참회식 (고해성사로 대신할 수 있다)으로 시작한다. 그 다음에 오는 말씀의 전례에서는 적당한 독서를 하면 된다. 친구와 친척이 기도와 노래를 할 때와 같이 독서에 참가하여 공동체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강론을 한 뒤에 성사를 준다. 먼저 참석된 사제 모두가 안수-축복의 특징적인 성서 행위-한다. 그리고 성사 집행자가 병자의 이마와 양손에다, 혹 급한 경우에는 이마나 몸의 아무 부분에 기름을 바른다. 안수는 성유를 바르는 행위이기도 하다.

특히 이 기름을 바르는 예식과 그것에 따르는 기도는 성사적인 표징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우신 사랑과 기름 바르는 이 거룩한 예식으로 성령의 은총을 베푸시어, 이 병자를 도와주소서. (아멘) 또한 이 병자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해주시며 자비로이 그 병고도 가볍게 해주소서 (아멘).”<sup>cxl</sup>

이 기도문은 성 야고보처럼 막연하게 구원과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병자성사를 성령의 선물로 취급한다. 성령 자신은 파스카 신비를 통해 교회에 내려진 하느님의 첫 선물이다.

병자성사에 사용되는 기름은 올리브 기름이다. 그러나 올리브 기름을 구할 수 없으면 다른 기름을 사용해도 된다. 통상적으로 성목요일 성유 축사 미사 중에 주교가 축성하는데, 이것도 이 성사의 힘이 파스카의 신비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풍속이다. 기름은 힘과 건강을

전례: 파스카 신비와 성사생활

상징한다. 축성 중에 주교는 “이 기름을 바를 때마다 그 사람의 육신과 영혼과 정신을 보호하시고, 모든 고통과 온갖 허약과 갖가지 질병을 낮게 하소서.”라고 기도한다. 병자의 기름을 위한 가장 오랜 축성문에서 나온 성령을 부르는 기도로서 주교는 계속해서 “푸른 나무에서 마련된 이 기름 위에 당신의 파라클리토 성령(the Holy Spirit, the Comforter)을 보내주소서”하고 간청한다. 그러므로 질병에서도 파스카 신비의 선물인 성령은 계속 돌보신다.

병자의 도유 예식은 환자를 위한 특별기도로 끝을 맺고, 주의 기도, 혹은 영성체와 강복이 뒤따른다. 기름 바르는 예식은 미사 중에도 할 수 있다. 이것은 미사에서 계속되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가 성사의 원천이며 성사적 힘의 근원임을 보여준다. 또한 파스카의 신비는 인간의 고통에 의미를 주고, 주님의 수난으로써 고통을 부활로 이끈다.

## 성사적 은총

병자성사의 결과는 성야고보의 말씀에 나타나 있다. “... 믿음의 기도가 그 아픈 사람을 구원하고,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야고 5:15). 여기서 모호한 점은 성서 저자가 병을 보는 방법이 현대식과는 매우 달라서 생긴 것이다. 그는 병을 단순히 물리적 실재로 보지 않고, 인간의 최악 상태와 결부된 것으로 보았다. 그는 육체와 영혼을 분명히 구분하지 않았고, 사람을 통일체로 보았다; 그래서 치료란 인간 전체를 위한 것이다.

교황 바오로 6 세는 트리엔트 공의회를 인용하면서 병자성사의 효과를 설명하고 요약했다: “이 성사는 성령의 은혜인 것으로서, 그 성령의 도유는 아직도 속죄해야 할 어떤 죄과가 있다면 그 죄과와 죄의 결과를 씻어주어, 병자의 영혼을 거뜰하게 해주며 견고케 해주고, 그에게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신뢰를 일으켜줌으로써 병자로 하여금 그 도움을 받아 병고와 고생스러움을 더 쉽게

성사: 그리스도와의 지속적 만남

참으며, ‘발뒤꿈치를 노리는’(창세 3:15 참조) 마귀의 유혹에 더 잘 대항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영혼의 구원에 도움이 될 경우에는 어떤 때 육신의 건강까지도 회복시켜주는 것이다.”<sup>cxli</sup>

병자성사는 고해성사를 대치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고해성사는 병자성사보다 앞서 이루어져야 한다.<sup>cxlii</sup> 그래서 대죄가 있는 줄을 알면서도 병자성사를 받으면 크게 잘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병자성사가 고백을 대신할 수 있다. 도유받을 병자가 의식을 잃고 대죄 중에 있으나, 신앙과 희망의 행위와 하느님께 대한 올바른 두려움으로 준비를 해서 성사의 은총을 받기에 적절한 상태에 있을 때 병자성사는 대죄라도 사한다.

병자성사는 그것을 받는 자가 그리스도의 신비로 인도되어 내적 고백, 즉 ‘참회’(metanoia)를 하게 한다. 이러한 성사가 세워졌다는 것은 고통은 저절로 구원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도 보여주는 것이다. 고통이 치유의 방법이 되려면, 주님이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고통을 연관시켜야만 한다. 성야고보가 지적하였듯이 그것이 바로 병자성사의 독특한 은총이다.

이 성사는 “주께서 친히 병자들에게 대해서 그 육체와 영혼 사정에 얼마나 큰 관심을 기울이셨는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sup>cxliii</sup> 이 성사는 “병자에게 성령의 은총을 받게 함으로써 하나의 인간으로서 구원받도록 도와주면, 하느님께 대한 신뢰로써 지탱되게 하고, 악마의 유혹과 죽음의 번민에 대해서 굳세어지게 해주는 것이다.”<sup>cxliv</sup>

육체와 영혼을 포함한 인간 전체에 대한 그리스도의 성사적 행위는 육체의 치료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신적이고 영신적인 건강과 영원한 구원에까지 이른다: “병자 자신의 신앙과, 그리고 성사의 효력의 원천이 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회상하며, 여러 가지 성사로써 보증되는 미래의 천국을 내다보는 교회의 신앙이야말로 병자를 구원해줄 것이다.”<sup>cxlv</sup>

성야고보가 주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기도를 하고, 치료는 주님의 덕분이라 할 때에 그 점을 말한 것이다. 나약하면서도 신뢰하는 병자는 이 성사 안에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치료하는 힘을 받게 된다. 주님은 “아픈 사람을 구원하고”“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야고 5:15).

### 질병과 파스카의 신비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는 병자의 도유에 관해서 말하면서 병으로 인한 고통이 어떻게 파스카의 신비와 연결되는지 보여준다. 교회 전체는 “병자들도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자유로이 결합시켜 하느님 백성의 선익에 기여하도록 권고한다”(교회헌장 11 항). 공의회는 신약성서의 몇 구절을 인용하며 설명한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 8:17)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며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내가 이렇게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골로 1:24). “이 말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우리가 견디어 내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2 티모 2:11-12).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도 여러분은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1 베드 4:13).

병자의 도유가 육체의 병을 고치든 말든 정신을 위한 치료가 되어 곤경 중에서도 매사가 희망적이고 즐거운 생활 체험으로 보여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적 인간은 쇠퇴해 가더라도 우리의 내적 인간은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일시적이고 가벼운 환난이 그지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마련해 줍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 코린 4:16-18).

### 죽는 자의 성사

결국 온갖 육체의 치료는 실패한다. 생명의 주기법에 따라 생명은 인간의 지금 조건 아래서 시작하여 자라고 성숙하고 쇠퇴하며 죽음으로 끝난다. 병세가 위독해지거나 노쇠함으로 허약할 때에 병자성사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병이 회복되었다가 재발하거나 위험이 더 커질 경우에도 병자성사의 재집행을 허락한다. 병세가 계속해서 심해지면 병자는 규칙적으로 영성체를 하는 것이 좋다.

죽어가는 환자가 하는 영성체를 노자성체(Viaticum)라고 한다. ‘여행을 위한 음식’이고 마지막 여행을 위해서 받는 영신적 음식이다. “이 세상을 하직할 때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노자로써 힘을 얻어가지고 부활의 보증으로 안전하게 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요한 6:54). 노자성체는 될 수 있으면 미사 때에 받게 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함으로써 병자는 양형 영성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노자의 형태로 모신 영성체는 미사성제에서 거행되는 신비, 즉 주님의 죽으심과 성부께로 옮겨가심에 참여하는 특별한 표시도 되는 것이다.”<sup>cxlvi</sup>

죽을 때에 표징은 사라지고 실재가 나타난다. 실재를 포함하는 성체는 ‘노자성체’란 말이 의미하듯이 여행 중에 가장 필요한 준비다. 하지만 곧 표징의 굴레는 벗겨지고, 나타난 실재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1 코린 13:12).

전례: 파스카 신비와 성사생활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리고”(1 코린 15:54), 죽음에서만 그리스도 신자는 과거의 모든 손해를 회복하고 백 배의 수확을 거두고 영생을 받을 것이다 (마태 19:29 참조). 질병과 손실, 각종 시련을 통한 상실과 노쇠에서 오는 계속되는 감소의 곤혹들은 많은 작은 죽음들이다. 그것들은 어떤 저자들이 신비한 죽음이라 부르듯 죽음을 통해 오는 사랑하는 모든 것과의 결정적 이별을 예시하는 손실들이다. 그러나 이같은 결정적이고 완전한 손실을 겪은 뒤에야 모든 것이 회복된다. “많이 뿌리는 이는 많이 거두어들입니다”(2 코린 9:6).

### 가톨릭 장례식

그리스도 신자의 장례는 밀알에 대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축제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요한 12:24). 성찬 예식에서 우리는 “복된 희망을 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말한다. 죽은 이는 교회의 성사적 보살핌에서 벗어나 있다. 은총 속에 죽게 되면, 연옥에서 마지막 정화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들은 “주님과 함께 평온하게”(2 코린 5:8) 구원받게 된다.

그러나, 교회는 죽은 이들이 성찬식에서 우리와 머물러 있으므로 그들을 잊지 않는다. “죽어서도 우리는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같은 과정을 밟고 또 같은 장소에서 서로를 발견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 . . .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여야 한다.”<sup>cxlvii</sup>

어떤 장례 예식은 간단하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장례예식에서는 성찬례가 우리의 슬픔과 희망과 신앙을 축복하는 중심이 되는 것이다. 바로 거기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된다. 고인을 사랑했던 이들은 주님을 모시게 되며, 주님 속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고, 그 안에 살게 되며, 우리 각자에게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요한 11:25)이시다.

## 토론해 봅시다

1. 복음에서 예수님의 치유의 직무를 계속하는 병자성사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2. 병자성사와 세례성사의 관계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3. 병자성사 예식과 각 예식 행위의 성사적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 더 읽어 봅시다

*United States Catholic Catechism for Adults: Chapter 19 "Anointing the Sick and the Dying."*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1499-1532.*

Pope Benedict XVI, *The Sacrament of Charity (Sacramentum Caritatis)*. Post-Synodal Apostolic Exhortation, February 22, 2007.

## 기억합시다

### 병자성사

- 그리스도는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돕기 위해 병자성사를 세우셨다.

전례: 파스카 신비와 성사생활

- 사제와 주교만이 이 목적을 위해 축성받은 기름을 사용해서 병자성사를 줄 수 있다.
- 병자성사를 받아야 할 적절한 시기는 병자가 병, 허약, 또는 단순히 나이 때문에 죽음의 위험에 처할 때 온다.
- 병자성사의 결과는 죽음에 직면했을 때 위안, 평화, 그리고 용기를 주는 것이다; 병자를 그리스도의 치유의 수난과 결합시키고; 병자가 고해성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죄의 용서를 구하게 하고; 만약 이것이 영혼의 구원을 가져다 준다면, 건강을 회복하게 된다.

## 제 8 장

### 혼인성사: 그리스도와 인간 사랑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01-1658)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에게 쓰시려고 선정하신 성사적 표징들은 대부분 물, 빵, 포도주, 기름 등 물질적인 요소들이라는 것을 발견한다. 혼인성사는 인간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매우 고상한 표징을 가지고 있다. 혼인성사의 표징은 영구적인 투신(投身)을 하겠다는 서약이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은 인류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와 교회를 함께 묶는 사랑도 상징한다.

교회는 혼인 소명을 존중하며, 그리스도께서 혼인성사를 세우시면서 혼인을 높이 평가하신 것도 알고 있다. 교회는 혼인이 거룩한 표징, 성사, 예배 행위,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기시키는 것을 선언한다. 그리스도는 혼인을 통해서 인간의 사랑을 교회에 대한 당신의 사랑만큼이나 지속적이고 충실하며 결실을 내는 것으로 만드신다. 교회는 이것을 가르친다.

이 장에서는 혼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계약, 동정과 혼인의 관계, 혼인의 세 가지 선익인 자녀, 정절, 성사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또한 깨어진 혼인의 문제, 혼인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교회의 대책과 성덕에 대한 부부의 소명 등도 다룬다.

#### 혼인 안의 사랑의 계약

구약성서에서는 혼인이 현재와 같은 신성한 의미를 지니지 않았고, 종교적 예식으로 지내지는 축제도 아니었다. 그러나 하느님은 혼인을 예정하시고, 창조와 결정 순간에 그것을 설정하셨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성경은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남자와 여자의 창조로 시작하여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한 환시로 끝맺는다. 혼인과 그 “신비”, 혼인의 제정과 하느님께서 부여하신 의미, 그 기원과 목적, 구원의 역사를 통한 혼인의 다양한 실현, 죄로 생긴 혼인의 어려움과, 그리스도와 교회의 새로운 계약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혼인의 새로운 의미에 대해 말하고 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02 항).

창조에 대한 두 가지 설화가 있듯이 혼인 제도에도 두 가지 설명이 있다. 각 설화는 혼인의 의미를 한 가지씩 지적한다. 거기서 비롯된 그 두 가지 의미는 혼인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다. 첫번째 창조 설화에서는 출산이 강조되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창세 1:27-28). 두 번째 설화에서는 먼저 남자와 여자의 친구 관계가 나온다. 온갖 동물이 창조되었으나 “그는 사람인 자기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찾지 못하였다.” 여자가 창조되고나니 남자는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라고 하였다. 성서 저자는 이어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고 덧붙였다 (창세 2:20-24).

충실한 일부일처제에 관한 하느님의 애당초 계획은 예수님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실행되지 않았다 (마태 19:8).

그러나 구약성서에서도 충실한 일부일처제는 높이 평가되었다. 아내는 남편에게 예속되어 있었지만, 그저 단순한 소유물은 아니었다. 잠언집에 나오는 이상적 아내에 관한 저 유명한

성사: 그리스도와의 지속적 만남

모상은 아내를 책임과 위엄을 갖춘 동업자로 묘사한다 (잠언 31:10-31 참조). 아가에는 사람으로 굳게 일치한 자유로운 두 동반자 사이의 열렬한 대화가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혼인은 사랑의 결합으로 묘사되었다. 토비트의 역사에서는 매우 종교적인 가정을 그렸다. 그 집의 아들 토비트는 사라와 혼인하여 참으로 사랑이 넘치고 하느님께 의합하는 결합을 이루었다.

## 새로운 계약

아가와 토비트서는 포로 생활 이후의 유대인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한다. 그 당시 지혜 문헌의 저자들도 일부일처제를 찬양하고 혼인의 정절을 강조하였다 (잠언 5:1-23; 6:20-35 참조). 말라기 예언자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정녕 나는 아내를 내쫓는 짓을 싫어한다. –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말라 2:15-16). 그는 혼인을 하느님과 이스라엘 민족간의 계약에 비교하면서 남자와 여자간의 계약으로 취급하였다.

사랑의 계약과 혼인에 대한 긴 역사가 절정을 이루며, 혼인이 신약의 성사라는 것은 성바오로의 에페소서에 나타난다.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말씀과 더불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 주름 같은 것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서게 하시며,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이렇게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자기 몸을 가꾸고 보살핍니다. 우리는 그분 몸의 지체입니다.

전례: 파스카 신비와 성사생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됩니다.” 이는 큰 신비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에페 5:25-32).

뒤에서부터 고찰하면, 사도 바오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가장 잘 이해할 듯하다. ‘신비’라고 번역된 말은 라틴어로 사크라멘툼(*sacramentum*, 성사)이고 그리스어로 미스테리온(*mysterion*, 신비)이다. 이 말마디는 성바오로가 에페소서 서두에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이를 일치시키는 하느님의 감춰진 계획을 설명할 때에 사용하고 확대시킨 바로 그 말마디다. 그리스도 안에 하느님의 신비, 즉 파스카 신비는 신약의 심장이며 중추를 이룬다. 혼인에 관한 사도 바오로의 말씀은 결국 이와 같은 하느님의 계획과 연결되며, 그 안에 포함되었다. 그리스도와 당신 교회와의 일치는 매우 친밀하여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보다 더 적합한 비교는 없다. 또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적절히 표현되고 표징된다. 게다가 그리스도와 당신 교회와의 일치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남편과 아내의 결합도 교회와 그리스도의 일치의 신비와 연관되기 때문에 서로 거룩하게 한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였으므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결합은 교회를 거룩하게 한다. 이렇게 해서 남편과 아내의 결합은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와도 연결된다.

그러므로 혼인은 성사다.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간의 계약이고, 그들은 하느님이 정하신 법규에 따라 사랑의 유대 안에 살기로 투신하는 것이다. 이 계약은 파스카 신비 안에 그리스도께서 당신 교회와 체결하신 영원한 사랑의 계약을 상징한다. 혼인은 그리스도와의 상봉이며, 이 상봉은 혼인이 의미하는 은총과 인간의 사랑을 지속적이고 충실하며 실효 있게 하는 데에 필요한 은총의 효과를 올린다. 그래서 혼인은 그리스도와 당신 교회간의 사랑을 위한 적당한 모상이다.



성사: 그리스도와와의 지속적 만남

##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서의 혼인

예수님께서서는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원하신 부부 결합의 본래 의미를 분명하게 가르치셨다. 전도하는 동안 예수님은 하느님 당신께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혼인으로 정하셨다고 청중에게 상기시키셨다. 혼인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며, 그렇게 정의된다. 최근 혼인의 정의에 대한 사회적 도전에 맞서, 교회는 혼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합의를 표명하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명료하게 가르친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혼인의 소명은 창조주의 손으로 지으신 남자와 여자의 본성에 새겨져 있다”고 가르친다. 또한 “혼인은 단순히 인간적인 제도가 아니다... 개인의 행복, 일반 사회와 그리스도교 사회의 안녕은 부부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의 행복한 상태에 직결되어 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03 항) 환기시킨다.

성서와 관습에 따르면, 교회는 “혼인은 남자와 여자사이의 관계에 본능적으로 속하는 것이다”라고 확고하게 주장한다.

시대와 문화를 거슬러 오면서, 혼인은 특별한 의미를 지녀왔다: 혼인은 고유하고 상호 보완적인 선물로서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있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다. 이러한 결합은 혼인의 목적에 중요하다: 배우자의 도움, 자녀 출산 및 양육. 정의에 따르면, 혼인은 남자의 여자 사이에 있어야 한다.

남녀의 결합으로 성사의 품위로 들어 높여진 혼인은 그리스도의 교회 사랑을 본받게 한다. 남자와 여자간의 사랑의 계약은 자녀에게 안정적 집을 제공해 주며, 그 안에서 자녀들은 부모가 주는 은총의 혜택을 받아 출산되고 양육된다. 혼인은 자녀들이 부모와 관계를 맺을 권리를 보호한다. 남녀의 결합으로 정의되는 혼인은 ‘가정 교회’역할을 맡음으로써 가족의 선익을 통해 사회의 선익을 육성시킨다. ‘가정 교회’는 은총과 기도의 공동체, 그리고 인간적인 덕행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학교로 불리기도 한다.

## 혼인과 동정

성바오로는 혼인의 신성함을 강력히 주장하면서도, 그는 다른 양식의 생활, 즉 독신 생활을 추천한다: “나는 여러분이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혼인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혼인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일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갈라집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와 처녀는 몸으로나 영으로나 거룩해지려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혼인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일을 걱정합니다”(1 코린 7:32-34).

여기서 그리스도교적 생활의 다른 양식을 지적하였다. 신앙은 혼인을 존중하며, 동시에 하느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영생에 대한 신앙을 뚜렷이 증거하기 위하여 혼인의 축복을 포기하는 생활 형태도 또한 존중한다. 그리스도교적 동정 생활은 수도 단체 안에서나 재속 활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생활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에게서는 동정 생활이 자신을 더욱 철저히 하느님께 바칠 수 있는 자유를 준다.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1 코린 7:31). 동정 생활은 영생에 대한 신앙을 표현하는 강력한 방법이다.

이 두 가지 길이 궁극적으로 하느님의 사랑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혼인을 성사로 취급하면서도 동정 생활을 추천하는 가르침이 지닌 외관상의 모순을 이해할 수 있다. 하느님의 사랑의 맥락 안에서 보면, 사도의 추천은 모순이 아니고 오히려 모순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교회와 인류를 위한 하느님 사랑의 보이는 표징이 바로 혼인성사로 결합된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느님의 사랑을 상기시켜준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1 요한 4:16) 때문에, 모든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하느님께로 인도해야 한다. 독신자들은 혼인을 포기하지만 사랑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는다: 독신자들은 오히려 혼인이 표징하는 그리스도의 저

성사: 그리스도와의 지속적 만남

위대한 사랑을 특별한 방법으로 증거한다. 그들은 부부애가 거룩한 것이지만 잠정적 사랑이며, 하느님에 대한 완전한 사랑과 서로의 완전한 사랑에 이르는 수단이란 것을 말해준다. 그 완전한 사랑은 우리 노력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영생에서 완성될 것이다. 부부애와 독신은 둘 다 영생과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돌려야 한다. 혼인성사의 의미나 독신자들의 생활이 바로 이 점을 지적한다; 그들의 관대한 사랑은 “하느님께서 제정하셨고 내세에서 온전히 드러날 혼인, 곧 교회가 유일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맺는 저 놀라운 혼인을 생각나게 한다”(수도 12). 그래서 결혼 소명과 독신의 소명은 서로 대립되기는 커녕 사랑의 성덕을 추구할 그리스도인의 기본 소명 안에서 서로를 돕는다.

### 혼인의 세 가지 선익

“혼인의 세가지 선익인 자손, 정절, 성사를 사랑해야 한다.”<sup>cxlviii</sup> 성아우구스티누스는 이같이 말하면서 혼인 목적에 대한 사랑의 교리를 체계화시켰다. 하느님이 그 선익을 위해서 혼인을 세우시고 성화하신 것이다. 그 성인은 창세기의 창조 얘기에서 이미 지적된 혼인의 두 가지 선익, 즉 자손과 정절을 들어 신약의 성사로써 꾸몄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교회가 오늘날까지 사용해온 그리스도교적 혼인 연구를 위한 틀을 마련했다 (사목헌장 제 48 항 참조).

### 부부애

성아우구스티누스는 “남편과 아내의 유대가 인간 사회의 첫째가는 자연적 유대”라고 말했다.<sup>cxlix</sup>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는 혼인을 “사랑의 공동체”(사목헌장 제 47 항)라고 부른다. 정절은 최소한의 소극적 의미에서 결혼 상대자가 아닌 어느 누구와도 성행위하는 것을 금한다; 그래서 정절은 부부애를 보호하는 보루다. “부부 생활과 부부애로 깊이 맺어진 공동체는 조물주

전례: 파스카 신비와 성사생활

친히 제정하셨고, 주물주 친히 그 법칙을 주셨으며, 결혼 당사자도 철회치 못할 인격적 동의의 계약으로 성립된다... 이 깊은 일치는 인격과 인격의 상호 교환이므로, 자녀의 행복이 요구하듯이 부부의 완전한 신의와 그 일치의 불가해소성을 강요한다” (사목헌장 48).

상호적인 사랑의 정절은 혼인 당사자간의 기본적 평등성을 의미한다. “서로의 완전한 사랑 속에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평등하게 인정해야 할 인격적 존엄성은 주께서 확인하신 혼인의 단일성을 밝혀준다” (사목헌장 48). 오늘이라고 이 평등성이 으레 보장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적 혼인을 위한 교회의 첫 임무는 이 기본적 평등을 확보하는 것이다.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남편과 아내의 상호 의무는 동일하다는, 당시에는 매우 혁명적이던 사상을 가르치시면서 부부 평등의 기반을 쌓으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다” (마르 10:11-12).

성바오로는 이 평등권의 원리를 가정에도 적용하였다. “아내의 몸은 아내가 아니라 남편의 것이고, 마찬가지로 남편의 몸은 남편이 아니라 아내의 것입니다. 서로 상대방의 요구를 물리치지 마십시오. 다만 기도에 전념하려고 얼마 동안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1 코린 7:4-5).

교부들과 신학자들,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도 부부애를 가끔 친교(親交)라고 부른다. ‘우정’은 그렇게 친밀한 단합을 위해서는 빈약한 표현이라고 보는 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정’은 너무나 풍부한 개념이다. 우정은 가장 완벽한 형태의 사랑이다: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사랑으로써 열렬하게 당신과 결합된 이들을 친구라고 부르신다 (요한 15:15 참조). 순수한 형태의 우정은 사람들이 서로 나누는, 이기심이 없는 상호적인 사랑이다. 각자는 상대방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진실한 우정을 바라는 사랑의 유대는 시간과 함께 사라지고 마는 개인적 만족에 대한 희망에 기초하지 않는다. 그것이 지속성을 갖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의 이득을 추구하려는 자유스럽고 굳은 투신에 기초를 두기 때문이다.<sup>4</sup> 배우자와의 우정을 거론하는 것은

성사: 그리스도와의 지속적 만남

남편과 아내가 기본적으로 평등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육체적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적 수준에서도 친밀한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우정이 그리스도교적 부부애를 구성하는 주요내용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교적 부부애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결실을 내는 인간의 순수한 사랑이 되고, 애덕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 부부애는 순전한 정욕과는 달리 감각만을 자극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천사주의(天使主義)를 추구하지 않는다; 부부애는 성욕을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에페 4:24)과 통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적인 부부애는 “이기적으로 추구하여 쉬이 꺼져버리는 에로틱한 애정에는 비길 수 없을 만큼 탁월하다”(사목헌장 49). 그러나, 이 사랑은 “감정을 동반하는 의지의 작용으로 인격에서 인격에게로 향하는 것이므로 가장 인간적인 사랑으로서 인격 전체의 행복을 감싸준다. 따라서 이 사랑은 몸과 마음의 여러 가지 표현에 특수한 품위를 부여하고 또한 이 표현들을 부부다운 우정의 특수한 요소와 표시로 삼아 값지게 만든다. 주께서는 이 사랑을 당신 은총과 특별한 은혜로 고쳐주시고 완성하시고 높여주셨다”(사목헌장 49).

이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부부간의 인간적 관계에 하나님의 요소가 개입되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물들게 하며, 그 관계를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지속하고 힘있게 하였다. “그러므로 신자 부부는 하나님 사랑에 기인하는 갈림없는 사랑으로 혼인 인연을 더욱 깊게 맺도록 노력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합치시켜 행운과 불운을 가리지 않고 몸과 마음으로 서로 정절을 지키도록 힘써야 한다.”<sup>cli</sup>

## 자손

자손은 혼인의 축복이고, 목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뻔한 얘기처럼 들릴 것이다. 하지만 성아우구스티누스 시대어나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에도 자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는 없다.

전례: 파스카 신비와 성사생활

초세기에 마니케이파 사람들은 혼인과 자손을 죄악이라고 우겨댔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마니케이적 사상은 없어졌으나 아직도 출생에 대한 적대심이 남아 있으며, 혼인과 새 생명에 대한 관심을 연관시키지 않으려는 태도가 전파되어간다.

우리 시대에도 자녀 출산은 혼인의 기본되는 선익이라고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는 확인하였다. 부부애를 손상시키지 않고서는 출산을 배척할 수 없다. 혼인의 독특한 성격을 규정지우는 것은 자손의 이득이다. 다시 말하면 남편과 아내가 강력하고 관심 깊은 부부애로 합쳐져야 하고, 성실하게 오래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이 그들이 부모의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혼인과 부부애는 그 성격상 자녀의 출산과 교육을 지향한다. 과연 자녀들은 혼인의 가장 뛰어난 선물이다” (사목헌장 50).<sup>ciii</sup> 이것은 결코 혼인의 다른 목적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참된 부부애의 실천과 그로써 형성되는 가정 생활 전체는 혼인의 다른 목적들을 경시함이 없이, 부부로 하여금 그들을 통하여 하느님의 가족을 날로 자라게 하시며 풍요케 하시는 창조주와 구세주의 사랑과 협력하기 위하여 옹감한 마음의 준비를 갖추도록 한다” (사목헌장 50).

이것은 부모가 무책임하게 자식을 세상에 날아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앞 장에서 지적하였듯이 신자 부부는 관련되는 모든 요인을 고려하면서, 자신들이 낳을 수 있는 자녀 수에 관하여 참으로 신중히 숙고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모든 형태의 인공 산아 제한법을 배제해야 한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1 요한 4:8).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다. 창조에는 당신의 끝없는 선을 연장하고, 보급하고, 나누어주기 위한 것 외에 다른 동기가 없다. 하느님의 사랑은 지극히 광대하고 무한하므로 그것을 창조에 쏟아넣으셨다. 또한 그분은 사랑의 창조적 능력에 인간을 참여시키고자 사랑을 사랑하셨을 것이다. 부부가 자식을 낳으며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랑의 창조적인 능력에 참여시키신 것이다. “인간의 생명을 전달하고 교육하는

성사: 그리스도와의 지속적 만남

것을 부부의 고유한 사명으로 알아야 한다. 부부는 이 의무 수행을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사랑에 협력하며, 말하자면 그 사랑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사목헌장 50)그들의 서로간의 사랑은 한계를 깨뜨리고 창조를 하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모든 생존자는 늘 감사해야 한다.

## 성사

혼인의 제 3 의 선익 혹은 축복은 성사성이다. 혼인은 불가해소적인 사랑의 계약이다. 혼인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영원한 사랑을 상기시키는 거룩한 표징이다. 그 계약처럼 혼례를 마친 혼인성사는 절대로 풀리지 않으며 죽을 때까지 지속된다.

혼인성사의 집행자는 혼인 당사자들이다. 혼인식을 주례하는 사제는 “신랑 신부의 동의를 묻고 그 답을 받아야 한다”(전례헌장 77). 혼인의 완성은 인격적이고 상호 자기 양도인 성적 결합으로 날인된다. 저 자연적 사랑을 완성하고, 불가해소적 일치로 확인하며, 결혼자들을 성화시키는 은총은 교사요 거룩한 성사의 완성자인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 수난으로써 얻으신 것이다.<sup>ciii</sup>

계약된 사랑으로서의 혼인, 즉 성스럽고 장엄하고 신중한 사랑으로서의 혼인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은 풀릴 수 없는 결합이어야 한다. “부부 생활과 부부애로 깊이 맺어진 공동체는 조물주 친히 제정하셨고, 조물주 친히 그 법칙을 주셨으며, 결혼 당사자도 철회하지 못할 인격적 동의를 계약으로 성립된다” (사목헌장 제 48 항).

“부부는, 부부가 된다는 계약과 취소할 수 없는 상호 동의로써 자유로이 자신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며, 이로써 결혼이 성립된다. 남녀의 개별적 결합으로 보나 자녀들의 선익으로 보아 부부의 완전한 신의와 결혼 인연의 불가해소적 일치가 요청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과 교회와의 혼인 계약을 본받아 부부도 불가해소적 결합으로 맺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시고 용이하게 만들어주신다.”<sup>civ</sup>

전례: 파스카 신비와 성사생활

여기서 혼인을 필생의 우정으로 보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와의 새로운 계약에서 보여준 희생과 구원의 사랑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 (사목헌장 48 참조).

교회는 자연적 제도로서의 혼인도 당사자의 의사나 어느 인간의 권위에 의해서 풀릴 수 없다고 가르친다.<sup>clv</sup> 이 가르침은 물론 죽을 때까지 혼인에 충실하는 것이 쉽다고 말하거나, 혼인 당사자들이 하느님의 은총을 받지 않고도 죽을 때까지 충실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교회가 가르치는 것은 신법에 따라 혼인은 필생의 충실을 요청하고, 특수한 하느님의 권위만이 혼인 유대를 합법적으로 풀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 안 된다” (마태 19:6).

어떤 경우에 하느님은 혼인의 순전히 자연적 유대를 해소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영세하지 않은 두 사람이 맺은 혼인의 해소를 허락하신다. 비신자 부부 중에 하나가 신자가 된 경우에, 비신자 배우자가 신자와 평화롭게 살기를 거부하면 교회는 그 신자의 재혼을 허락한다. 교회는 바오로의 말씀을 (1 코린 7:12-16 참조) 그렇게 이해해왔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하느님이 교회에게 비성사적 혼인을, 즉 비신자간의 혼인을 풀 권리를 주신다고 판단하였다. 이 권리를 바오로의 특권이라 한다. 교회는 이 원리에서 출발하여 교회에게 주어진 ‘사죄권’을 상기하면서 신앙을 위하여 자연적 비성사적 혼인을 풀기에 필요한 주건이 있으면 비신자의 혼인을 푼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신자간의 혼인이 혼인성사였고, 참된 혼인 동의와 혼인 완료가 있었으며, 한 배우자가 죽지 않고서는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교회는 굳게 선언하고 언제나 그렇게 가르쳤다.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을 상기시키는 혼인성사는 평생을 지속해야 하는 강한 유대로써 표현된다.<sup>clvi</sup>

## 특수 혼인 문제



성사: 그리스도와의 지속적 만남

제 나름대로 문제를 가진 생활 영역 안에서 사람들에게 파혼보다 더 많은 곤혹과 불안을 주는 것은 없다. 가톨릭 신자들도 이런 고통을 조성하는 압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혼한 뒤 교회 밖에서 재혼한 많은 신자들은 중대하고 긴급한 사목 문제를 야기한다.

교회는 이혼을 배제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마태 19:3-12; 마르 10:1-12 참조) 충실하므로 이 사목 문제를 풀기 위해 이혼과 재혼을 허락할 수는 없다.<sup>clvii</sup> 이런 해결책은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 개인에게는 친절하게 보이겠지만 하느님의 계명에서는 금하고 있다. 거기에서 혼인 계약의 지속적 힘을 대담하게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남편, 아내, 자녀의 선익을 위한 길이다. 혼인 계약이 풀리지 않으므로 결혼 생활을 위협하는 중대한 장애를 극복하려는 노력에서 부부들이 도움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회는 부부가 공동 생활을 피하여 별거하는 것을 허락한다.<sup>clviii</sup>

어떤 극단적 사정에서는 부부가 계속 동거하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사정도 혼인성사의 유대를 풀 권리 주장이나 재혼할 권리 주장을 결코 정당화하지 않는다.

어떤 '실패한' 혼인은 겉으로는 혼인이나 사실은 참된 혼인이 아닌 것도 있다. 결혼 당사자 중 어느 한편이나 양편이 자유로운 동의를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다면, 진실한 혼인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쪽이나 양쪽이 진실한 혼인, 다시 말하면 적어도 원칙적으로 자녀를 낳을 성실한 사랑의 유대를 의도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다. 어떤 이유로든지 외관상의 혼인이 시초부터 진정한 혼인이 아니었으면, 그 사실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을 교회에서 받을 수 있다. 그 인정을 취소 혹은 더 정확하게는 무효 선언이라고 한다. 각 교구에는 혼인 사건을 심의하고 판결하는 혼인 재판소를 두어야 한다. 한 사람의 혼인이 유효하지 않았다고 결정되면 다른 사람과의 혼인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이혼을 금지하시므로 교회는 혼인 과정을 조심해서 감독하고자 한다. 보통으로 가톨릭 신자들은 사제와 두 증인이 있어야 혼인의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sup>clix</sup> 혼인식을 주례하는 사제는, 그가 주교이거나 본당 신부나 대리자라도 그 부부가 혼인할 자유가 있고, 받으려는 혼인성사의 중요성과 존엄성을 알기에 충분한 교육을 받고, 혼인의 목적과 의미를 알면서 진정한 혼인 계약을 맺으려는 것인지 보살필 의무를 갖는다.

## 장애

혼인 신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회는 혼인 장애의 존재를 선언할 권리와 장애를 설정할 권리도 갖는다. 장애란 신법이나 교회법 때문에 혼인을 무효화하거나 불법화하는 사정을 말한다.

예를 들면 혼인 전부터 성교 불능증이 있었고 그것이 영구적이면, 자연법에 따라 혼인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 교회는 가르친다. 같은 자연법에서는 일정 범위의 친척간에 혼인하는 경우는 혼인의 유효성을 무조건 배제한다.<sup>clx</sup> 다른 장애로는 적당한 연령 미달, 선행하는 혼인 유대, 신품 수령, 한쪽 당사자의 장엄 정결서원, 범죄 등이 포함된다.<sup>clxi</sup> 가톨릭 신자와 비영세자간의 관면 없는 혼인도 무효다.

또한 교회법은 어떠한 경우에 혼인이 불법이라고 선포한다. 예를 들면 가톨릭 교회 신자와 세례받은 개신교 신자와의 혼인을 금지한다. 하지만 그런 경우 결혼을 하고자 한다면, 먼저 주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다. 주교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면을 허락할 수 있다. 교회는 관면을 주기 전에 우선 신앙의 차이에서 흔히 발생하는 혼인의 성공을 방해하는 위험이 해소되었는지를 조사한다. 교회가 특별 책임을 지는 신자 당사자의 신앙을 보호하고, 각 당사자에게 도움이 될 정당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서 위험을 해소해야 한다.<sup>clxii</sup>

## 무효 혼인

## 성사: 그리스도와와의 지속적 만남

알면서 무효 혼인의 당사자가 된 신자는 하느님 앞에서나 실제적으로 현재의 배우자와 혼인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 결합 안에 이루어지는 혼인 행위는 부부애의 거룩한 표징이 아니고 오히려 잘못된 성행위다. 무효 혼인을 해서 신법이나 교회법에 심하게 불복하고, 그 결합 안에서 많은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되도록 빨리 은총지위에 돌아올 의무와 돌아올 때까지 영성체를 멀리할 의무가 있다. 아주 복잡한 경우여라도 어떤 해결이 언제나 가능하다. 어떤 때에는 상당한 정도의 자제를 수락하고 관대하게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짐이라도 하느님의 은총이 그것을 견딜 만하게 해줄 것이다. 당장에 하느님의 계명이 요구하는 것을 이행할 도덕적 용기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도 실망할 것은 아니다. 기도와 충실한 미사 참여와 그리스도교적 사랑의 활동을 통하여, 그들은 하느님의 은총의 도움으로 필요한 것을 편안한 마음으로 해낼 수 있는 용기를 서서히 얻을 것이다. 본당 신부와 교구 흔히 재판소는 무효 혼인한 사람들을 돕도록 힘쓸 것이다. 이런 문제에서 양심의 평화를 찾는 사람은 자기들의 양심이 교회 가르침의 빛에 따라 형성되어야 함을 기억할 것이다. 완성된 혼인성사는 결코 풀릴 수 없고, 풀릴 수 있는 것처럼 취급되지 말아야 한다는 그리스도의 계명과 모든 해결안은 전적으로 부합되어야 한다.<sup>clxiii</sup>

### 혼인 성소

부부애는 불가해소성으로 짝 묶여 있지만, 불가해소성이 혼인 계약이 지닌 의미의 전부가 아니다. 교회는 “결함없이 거룩하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당신 신부로 삼아 사랑하셨고, 그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셨기 때문이다 (에페 5:25-26 참조)...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모두 다 성화의 성소를 받는 것이다” (교회헌장 39 항).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는 위의 원리가 어떻게 혼인 계약을 맺는 이들에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하였다. “그리스도교 신자 부부와 부모들은 그들대로의 고유한 길을 따르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일생을 통하여 은총중에 서로 도울 것이며, 하느님께 받은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교리와 복음적 덕행으로 교육해야 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지칠 줄 모르고 너그러운 사랑의 모범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사랑의 형제적 유대를 맺어주고, 결실 풍부한 어머니인 교회의 증인이 되고 협력자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당신 신부를 사랑하시고 그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그 사랑의 표지가 되며, 그 사랑에 참여하는 것이다” (교회헌장 41).

교황 비오 11 세는 부부에 관한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가정 생활 안에 사랑의 외적 표현은 상호 협조도 포함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1 차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은 결혼한 부부가 서로 도우면서 내적 생활을 더욱 풍부히 형성하고 완성하는 것이다. 생활의 협동을 통하여 그들이 점점 더 성덕에 있어 전진하고, ‘은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는’(마태 22:40)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참사랑 안에서 성장할 것이다. 온갖 조건을 갖춘 모든 사람은 자유가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하느님께서 인간 앞에 내놓으신 가장 완전한 성덕의 모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고 본받아야 하며, 하느님의 은총으로 많은 성인들의 모범이 입증한 성덕의 절정에 도달해야 한다.”<sup>clxiv</sup>

## 혼인과 파스카 신비

성사: 그리스도와의 지속적 만남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부부애의 모형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었고, 필요할 때에는 고통도 감수하였다.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요한 15:13). 그리스도는 자기 추종자들이 상호간에, 또 당신에 대하여 이와 같은 사랑을 갖기를 기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34). 이 사랑은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는 것 그 이상이고, 황금률을 넘어 극도에까지 간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 목숨을 내놓으신 그 사실로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1 요한 3:16).

이제 이 희생적 사랑이 성사이며 신비요 예표인 그리스도교적 혼인의 표본이다. 그리스도는 이런 사랑을 통해서 부부를 축복하신다. 죽을 때까지 서로 성실히 사랑하자면, 서로 용서하고 십자가를 잘 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따라오는 온갖 기쁨과 고통을 맛보며 가정을 돌보자면 자신을 내놓을 필요가 생길 것이다.

성바오로는 이같이 충고하였다: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에페 5:25). 이렇게 결혼한 부부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에 특별한 방식으로 뛰어든다. 혼인성사를 통하여 그들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구속 신비에 참여하고, 교회 안에서 실현될 그 신비의 최종적인 완성을 표상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교적 혼인은 글자 그대로 죽을 때까지 풀리지 말아야 한다. 하느님이 결합시킨 것을 인간의 이기심이 갈라놓지 않도록 한다는 데에 결혼한 부부가 그리스도교적 사랑을 완성시킬 이유가 있다. 그런 까닭에 이런 사랑을 육성하기 위해서 특별성사가 있다. 혼인 계약은 “나는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다”(예레 31:3)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사랑의 특성과 지속성을 가져야 한다.

전례: 파스카 신비와 성사생활

혼인 집전은 “되도록 미사 중에 있어야 한다.”<sup>clxv</sup> 이것 역시 혼인성사가 파스카 신비에서 비롯된 것임을 의미한다. 혼인미사 중에 말씀의 전례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차지하는 혼인의 중요성과 부부와 자녀들의 성화에 힘써야 할 혼인의 직책과 임무를 설명한다.”<sup>clxvi</sup>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절정에 이르는 성찬의 전례에서 새 혼인 부부는 파스카 신비의 성사에 들어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이다 (1 코린 11:26). 이 예식을 통해서도 교회는 교회의 가장 고상한 소유물, 즉 신앙의 신비로써 혼인을 빛내고 거룩하게 하려 한다.

## 토론해 봅시다

1. 혼인성사에 들어가는 부부는 어떤 방식으로 파스카 신비 안에서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 사랑을 나타내는지 토론해 봅시다.
2. 성사의 품위로 들어 높여진 혼인을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고 제정한 하느님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3. 당신의 가족은 ‘가정 교회’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보다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당신은 가족이나, 교구 그리고 사회안에서 문제있는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 더 읽어 보시다

*United States Catholic Catechism for Adults: Chapter 21 “The Sacrament of Marriage.”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1601-1658.*

Pope Benedict XVI, *The Sacrament of Charity (Sacramentum Caritatis)*. Post-Synodal  
Apostolic

Exhortation, February 22, 2007.

Archdiocese of Washington, *Marriage Matters* ([http:// www.adw.org/family/marriage.asp](http://www.adw.org/family/marriage.asp)).

## 기억합시다

- 하느님은 혼인의 제정자이시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교인의 혼인을 성사의 품위로 들어  
높이셨다.
- 혼인은 고유하고 상호보완적인 선물로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다.
- 혼인성사를 통해서 배우자들은 서로에 대한 관대한 사랑을 키우고 결혼이 존재해야하는  
선익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 충실한 사랑, 자손의 기쁨, 성사적 선익. 즉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사랑과 같이 지속적인 사랑의 축복들이다.
- 그리스도는 혼인을 풀 수 있는 어떤 인간의 권위도 없다고 가르쳤다.
- 혼인을 하고자 하는 이들은 주의깊게 결혼을 준비해야 한다; 그들이 혼인할 자유가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
- 혼인성사의 집행자는 혼인 당사자들이다; 혼인을 주례하는 주교, 사제 또는 부제는

## 전례: 파스카 신비와 성사생활

배우자가 서로에게 부여하는 성사에 대한 증인의 역할을 한다.

- 혼인무효선언은 혼인을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해당 혼인이 처음부터 일부의 심각한 결함때문에 진정한 혼인이 성립되지 않았었다는 것을 공표할 뿐이다.



## 결론

‘인간’이라 함은 열망하는 것, 바라는 것이 있는 존재를 말한다. 인간의 마음 저 아래 가장 깊은 곳에는 하느님을 갈구하는 마음이 있다. 왜냐하면 하느님과 일치, 인간 서로와의 친교를 위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교회의 성사들은 그리스도와의 더욱 깊은 일치와 교회 공동체 내의 친교를 위해 특유한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성사: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만남」은 가톨릭교회의 성사 생활에 대한 이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공부와 토론, 신앙적 성찰(省察) 등은 시작일 뿐이다. 이 책에서 소개한 성사 교리공부 또한 모든 성사 예식의 중심인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의 구원 의미에 참여하고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다. 성찰(省察)이 진정한 효력을 발휘하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 성찰(省察)이 말씀과 교회의 성사를 통해서 우리들 사이에 계속해서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와의 상봉을 새롭게 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진다.

풍요로운 그리스도의 성사 생활에 참여하는 것은 그의 성사적 현존 내에서, 또 그 현존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닮아가는 것이다. 성숙한 신앙의 형성은 거룩한 신비가 거행되는 성사에 대한 참여를 통해서 일상생활이 점점 새로워지고 변화되어갈 때 풍요로운 열매를 맺는다. 공부와 토론, 성찰(省察), 기도, 매일 매일의 변화는 따로 떨어져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교황 베네딕트 16 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그리스도인 교육의 목적은 신자들에게 성숙한 신앙을 길러 주어 자신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는 그리스도교적 희망을 주변에 증언하는 ‘새 인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사 64).

교회의 사목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강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는 사랑의 성사에 참여한다. 성사는 중요한 인생의 순간, 즉 탄생, 하느님의 부르심(소명), 병, 죽음 등의 이정표를

전례: 파스카 신비와 성사생활

나타내고 있다. 또한 성사는 어딘가에 속하고 싶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싶고, 치료받고 싶고, 그리고 인생에서의 소명을 다하고 살고 싶은 인간의 가장 뿌리 깊은 욕구들과도 일맥상통한다.

교회는 매일 매일의 신앙생활의 여정에 대한 신성한 은총의 선물로서 여러분에게 성사를 제공한다. 계속해서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이러한 선물에 대한 우리 인간의 응답은, 그리스도인의 제자됨과 증거로 표현되는 신앙과 감사하는 마음이다. 교황 베네딕트 16 세는 미국 사목 방문 중 다음과 같이 흥미진진한 표현들을 사용해서 우리 모두에게 교회의 성사생활의 선물에 대해서 상기시키고 있다: “그리스도의 은총이라는 탁월한 힘을 통해서, 허약한 인간 사목자들에게 위탁되어진 그 힘을 통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다시 태어나고 우리들 각자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회개를 불러일으키고, 모든 상처를 치료하며, 분열을 극복하고, 새로운 생명과 자유를 불어넣는 성령의 힘에 대해서 우리 모두 신뢰를 가집시다. 우리가 얼마나 이 선물을 필요로 합니까!” (강론, Washington Nationals Stadium, 2008 년 4 월 17 일).

## Endnotes

- 
- <sup>i</sup>. Council of Trent, Session 22, Sept. 17, 1562, *Doctrine of the Most Holy Sacrifice of the Mass*, ch. 2 (DS 1743).
- <sup>ii</sup>. The interior quotation is from the Preface for Easter in the *Roman Missal*.
- <sup>iii</sup>. Council of Trent, Session 13, Oct. 1, 1551, *Decree on the Most Holy Eucharist*, Ch. 5 (DS 1644).
- <sup>iv</sup>. *Roman Missal*, Preface I for Christmas.
- <sup>v</sup>. Cf. Council of Trent, Session 7, March 3, 1547. *Decree on the Sacraments*, canon 1 on the sacraments in general (DS 1601).
- <sup>vi</sup>. Liturgy of the Hours, Feast of Solemnity of Mary, the Mother of God, the Octave of Christmas (January 1); first antiphon at vespers.
- <sup>vii</sup>. St. Augustine, *Tractatus in Ioannis Evangelium* 6.7 (ML 35.1428).
- <sup>viii</sup>. Cf. St. Thomas Aquinas, *Summa Thcologica* II-II, 60, 3.
- <sup>ix</sup>. Pope Paul VI, Apostolic Letter on Mass stipends (June 13, 1974) (EV 5.534).

- 
- x . Cf. *Didache* 14.1 (= ACW 6.23).
- xi . Pope John Paul II, Encyclical *Ecclesia de Eucharistia* (April 17, 2003), n. 9.
- xii . Cf. Congregation for the Sacraments and Divine Worship, Instruction, *Inaestimabile Donum* (April 3, 1980) (EV 7.288-323).
- xiii . Council of Trent, Session 22, September 17, 1562. *Doctrine of the Most Holy Sacrifice of the Mass*, ch. 1 (DS 1740). Cf. Pope John Paul II, Letter to all the bishops of the Church on the mystery and cult of the Eucharist, *Dominicae Cena*e (February 24, 1980), n. 9 (EV 7.190-198) and Pope John Paul II, Encyclical *Ecclesia de Eucharistia* (April 17, 2003), n. 11.
- xiv . Cf. Congregation of Rites, Instruction, *Eucharisticum Mysterium* (May 25, 1967), n. 3 (EV 2.1296-1303).
- xv . Pope John Paul II, Encyclical *Ecclesia de Eucharistia* (April 17, 2003), n. 12.
- xvi . Pope Paul VI, Apostolic Letter on Mass stipends (June 13, 1974) (EV 5.534).
- xvii . Cf. *Code of Canon Law*, canon 917. In danger of death one could, of course, receive Communion as Viaticum even if one had received Communion earlier in the same day; cf. the *Code of Canon Law*, canon 921, 2.
- xviii . Cf. Council of Constance, Session 13, June 15, 1415, *Decree on Communion under the Species of Bread Only* (DS 1198-1200); Council of Trent; Session 21, July 16, 1562, *Doctrine on Communion under Both Species and communion of Children*, ch. 1 and canons 1-3 (DS 1726-1727, 1731-1733).
- xix . Pope John Paul II, Letter to all the bishops of the Church on the mystery and cult of the Eucharist, *Dominicae Cena*e (February 24, 1980), n. 11 (EV 7.215).
- xx . *Roman Missal*, General Instruction, n. 62.
- xxi . *Roman Missal*, General Instruction, nn. 1-3.
- xxii . Cf. *Code of Canon Law*, canon 920.
- xxiii . Cf. *Code of Canon Law*, canon 921.1.
- xxiv . Cf. Council of Trent, Session 13, October 11, 1551, *Decree on the Most Holy Eucharist*, ch. 7 (DS 1647).
- xxv . Cf. *Code of Canon Law*, canon 916.
- xxvi . Pope John Paul II has noted certain modern pressures toward unworthy reception of Communion and has urged pastoral care to guard the faithful from so great an evil; see letter to all the bishops of the Church on the mystery and cult of the Eucharist, *Donimicae Cena*e (February 24, 1980), n. 11 (EV 7.208-209); Encyclical *Redemptor Hominis* (March 4, 1979), n. 20 (EV 6.1251-1256).
- xxvii . Cf. *Code of Canon law*, canon 919.1 and 3.
- xxviii . Cf. Pope Pius XII, Apostolic Constitution, *Christus Dominus* (January 5, 1953).
- xxix . Secretariat for Promoting Christian Unity, Instruction, *De Peculiaribus Casibus Admitendi Alios Christianos and Communionem Eucharisticam* (June 1, 1972) (EV 4.1626-1640). The National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s has issued the following “Guidelines for Receiving Communion”:
- *For Catholics*: Catholics fully participate in the celebration of the Eucharist when they receive Holy Communion in fulfillment of Christ’s command to eat His Body and drink His Blood. In order to be properly disposed to receive Communion, communicants should not be conscious of grave sin, *have fasted for an hour*, and seek to live in charity and love with their neighbors. Persons conscious of grave sin must first be reconciled with God and the Church through the sacrament of Penance. A frequent reception of the sacrament of Penance is encouraged for all.
  - *For Other Christians*: we welcome to this celebration of the Eucharist those Christians who are not fully united with us. *It is a consequence of the sad divisions in Christianity that we cannot extend to them a general invitation to receive Communion*. Catholics believe that the Eucharist is an action of the celebrating community signifying a oneness in faith, life, and worship of the community. Reception of the Eucharist by Christians not fully united with us would imply a oneness which does not yet exist, and for which we must all pray.
  - *For Those Not Receiving Communion*: Those not receiving sacramental Communion are encouraged to express in their hearts a prayerful desire for unity with the Lord Jesus and with one another.
  - *For Non-Christians*: We also welcome to this celebration those who do not share our faith in Jesus. While we cannot extend to them an invitation to receive Communion, we do invite them to be united with us in prayer.
- xxx . Cf. Congregation for the Sacraments of Divine Worship, *Instruction, Inaestimabile donum* (April 3, 1980), n. 8 (EV 7.298); *Code of Canon Law*, canon 924.2.

- xxxix . Pope John Paul II, Encyclical *Redemptor Hominis* (March 4, 1979), n. 20 (EV 6.1254).  
 xxxii . *Didache* 9.4 (= ACW 6.20).  
 xxxiii . *Roman Missal*, Postcommunion in the Easter Vigil Mass and the Mass of Easter Sunday.  
 xxxiv . *Roman Missal*, Prayer of the Mass for Monday within the octave of Easter.  
 xxxv . Pope Paul VI, Encyclical *Mysterium Fidei* (September 3, 1965) (EV 2.411).  
 xxxvi . St. John Chrysostom, *Homily on Matthew* 82.4 (MG 58.743).  
 xxxvii . Pope Paul VI, Encyclical *Mysterium Fidei* (September 3, 1965) (EV 2.424).  
 xxxviii . Pope Paul VI, Encyclical *Mysterium Fidei* (September 3, 1965) (EV 2.427).  
 xxxix . Congregation of Rites, Instruction, *Eucharisticum Mysterium* (May 25, 1967) part III (EV 1331  
 xl . Pope Paul VI, *Professio Fidei* (“The Credo of the people of God,” June 30, 1968) (EV 3.561).  
 xli . St. Cyril of Jerusalem, *Catechesis* 22(myst. 4).9 (MG 33.1104).  
 xlii . St. Cyril of Alexandria, *Epistula ad Calosyrium* (MG 76.1075).  
 xliiii . Pope John Paul II, *Ecclesia de Eucharistia* (April 17, 2003), n. 25.  
 xliv . Cf. Pope Paul VI, Encyclical *Mysterium fidei* (September 3, 1965) EV 2.433-434).  
 xlv . Cf. Congregation of Rites, Instruction, *Eucharisticum Mysterium* (May 25, 1967) part III (EV 2.1331-1341).  
 xlvi . Cf. Pope John Paul II, Leter to all the bishops of the Church on the mystery and cult of the Eucharist, *Donimicae Cena*e (February 24, 1980), n. 3 (EV 7.163-164).  
 xlvii . Council of Trent, Session 23, July 15, 1563, *Dctrine on the Sacrament of Order*, ch. 1 (DS 1764).  
 xlviii . Pope John Paul II, *Letter* to all the priests of the Church as Holy Thursday approaches (April 8, 1979), n. 4 (EV 6.1297).  
 xlix . In the ordination liturgy, Ps 110, including the verse quoted here, is recited immediately after the actual ordination .  
 l . Cf. St. John Chrysostom, *Homilia 2 in Epistulam II ad Timotheum* 2 (MG 62.610).  
 li . Cf. St. John Chrysostom, *De Sacerdotio* 3.6 (MG 48.643-644).  
 lii . St. John Chrysostom, *Homilia 50 in Matthacum* 3 ( MG 58.507-508).  
 liiii . Second General Assembly of the Synod of Bishops, *The Ministerial Priesthood* (1971) Part One, N. 4 (EV 4.1165).  
 liiv . Second General Assembly of the Synod of Bishops, *The Ministerial Priesthood* (1971) Part One, N. 4 (EV 4.1170).  
 liv .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Mysterium Ecclessiae* (“Declaration in Defense of the Catholic Doctrine on the Church against Certain Errors of the Present Day,” June 24, 1973), n. 6 (EV 4.2586). Cf. Council of Florence, Bull, *Exultate Deo* (November 22, 1439); Council of Trent, Session 7, March 3, 1547, *Decree on the Sacraments*, canon 9 (DS 1609), and Session 23, July 15, 1563, *Doctrine on the Sacrament of Order*, ch. 4 and canon 4 (DS 1767 and 1774); Second of Bishops, *The Ministerial Priesthood* (1971) Part One, n. 5 (EV 4. 1169).  
 lvi . For an explanation of “in the very person of Christ,” cf. Pope John Paul II, Letter to all the bishops of the Church on the mystery and cult of the Eucharist, *Dominicae cenac* (February 24, 1980), n. 8 (EV 7.186).  
 lvii . Cf., e.g., St. Ignatius of Antioch, *Epistula ad magnesios* 6.1 (MG 5.668 = ACW 1.70-71) and *Epistla ad Trallianos* 3.1 (MG 5.667 = ACW 1.76).  
 lviii . Pope John Paul II, Apostolic Exhortation *Pastores Gregis* (October 16, 2003), n. 6. Cf. *Adv. Haer.* III, 2, 2;3, I:PG7:847-848.  
 lix . Tertullian, *De Praescr. Haer.* XXI, 4.  
 lx . Roman Pontifical, *Rite of Ordination of Priests*, n. 14.  
 lxi .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Declaration on the Question of the Admission of Women to the Ministerial Priesthood* (October 15, 1976), n. 1 (EV 5.2115). Cf. also Code of Canon Law, canon 1024.  
 lxii .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Declaration on the Question of the Admission of Women to the Ministerial Priesthood* (October 15, 1976), n. 4 (EV 5.2131).  
 lxiii . Pope John Paul II, Apostolic Letter, *Ordinatio Sacerdotalis* (May 22, 1994) (EV 14.732-740).  
 lxiv . Cf. St. Justin Martyr, *Apologia* 1.65 (MG 6.428 = ACW 56.65); St. Ignatius of Antioch, *Epistula as Philadelphenses* 4 (MG 3.700 = ACW 1.87).  
 lxv . Cf. Council of Trent, Session 23, July 15, 1563, *Doctrine of the Sacrament of Order*, chs. 2-3 (DS 1765-1766).

- lxvi . Cf. Pope Pius XII, Apostolic Constitution, *Sedes Sapientiae* (May 31, 1956).
- lxvii . Second General Assembly of the Synod of Bishops, *The Ministerial Priesthood* (1971) Part Two, n. 4 (EV 4.1219).
- lxviii . Cf. Rescript of the Audience given by the Holy Father to the Cardinal Secretary of State, November 30, 1971 (EV 4. 1134).
- lxix . Second General Assembly of the Synod of Bishops, *The Ministerial Priesthood* (1971) Part One, n. 7 (EV 4.1175).
- lxx . Ibid., Part One, N. 4 (EV 4.1167).
- lxxi . Cf. St. Cyprian, *Epistula* 63.14 (ML 4.385-386 = ACW 46.105f.).
- lxxii . Cf. St. John Chrysostom, *Homilia 86 in Ioannem* 4 (MG 59.471-472).
- lxxiii . St. Gregory the Great, *Regula Pastoralis* 2.7 (ML 77.39 = ACW 11.68-74).
- lxxiv . Congregation for Divine Worship, *Rite of Baptism for Children*, published by authority of Pope Paul VI, May 15, 1969, General Introduction, n. 2 (EV 3.1093). A second typical edition, published on August 29, 1973, lists several significant changes in the text on page 6.
- lxv . Congregation for Divine Worship, *Ordo Initiationis Christianae Adulorum (Rite of Christian Initiation of Adults)*, published by authority of Pope Paul VI, January 6, 1972; a new edition of the *Rite of Christian Initiation of Adults*, with modifications, was approved for use in the dioces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y the National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s on November 11, 1986, and was confirmed by the Apostolic See on February 19, 1988.
- lxvi . Cf. Pope Paul VI, Apostolic Constitution, *Paenitemini* (February 16, 1966) (EV 2.625-654).
- lxvii . United States National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s, Pastoral Statement on Penance and Abstinence, n. 15 (November 18, 1966).
- lxviii . On this paragraph, cf. *Code of Canon Law*, 873-874.
- lxix . Council of Trent, Session 6, January 13, 1547, *Decree on Justification*, ch. 7 (DS 1528).
- lxxx . Council of Trent, Session 6, January 13, 1547, *Decree on Justification*, ch. 7 (DS 1530).
- lxxxi . *Rite of Baptism for Children*, General Introduction, n. 6 (EV 3.1097).
- lxxxii . *Rite of Baptism for Children*, General Introduction, n. 6 (EV 3.1097).
- lxxxiii . *Rite of Baptism for Children*, n. 49.
- lxxxiv . *Rite of Baptism for Children*, n. 49.
- lxxxv . Council of Trent, Session 5, June 17, 1546, *Decree on Original Sin*, n. 5 (DS 1515).
- lxxxvi . *Rite of Baptism for Children*, General Introduction, n. 6 (EV 3.1097).
- lxxxvii . *Rite of Baptism for Children*, General Introduction, n. 6 (EV 3.1096).
- lxxxviii . *Rite of Baptism for Children*, General Introduction, n. 6 (EV 3.1095).
- lxxxix . Cf.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De Baptismo Parvulorum* (20 October 1980) (EV 7.587-630).
- xc . Cf. Council of Trent, Session 7, March 3, 1547, *Decree on the Sacraments*, canon 13 on the sacrament of Baptism (DS 1626).
- xcI . Cf. *Code of Canon Law*, canon 867.
- xcii . Cf. Origen, *In Romanos Commentarii* 5.9 (MG 14.1047). Cf. also St. Cyprian, *Epistula* 64.5.2 (ML 3.1018 = ACW 46.112).
- xciii . Cf., e.g., St. Augustine's *Contra Iulianum Opus Imperfectum* 1.50 (ML 45.1073).
- xciv . Cf., e.g., Council of Florence, Bull, *Exsultate Deo* (November 22, 1439) (DS 1314); Council of Trent, Session 6, January 13, 1547, *Decree on Justification*, ch. 4 (DS 1524), and Session 7, March 3, 1547, *Decree on the Sacraments*, canon 5 on the sacrament of Baptism (DS 1618). Cf. also *Code of Canon Law*, canon 849.
- xcv . Cf. also Holy Office, Letter to the Archbishop on Boston (August 8, 1949) (DS 3866-3873).
- xcvi . Council of Trent, Session 7, March 3, 1547, *Decree on the Sacraments*, canon 9 on the sacraments in general (DS 1609). Cf. also *Code of Canon Law*, canon 849.
- xcvii . Cf. Pope Pius XII, Encyclical *Mediator Dei* (November 20, 1947), nn. 47-48.
- xcviii .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1300.

- xcix. Congregation for Divine Worship, *Rite of Confirmation*, published by authority of Pope Paul VI, August 22, 1971, Introduction, n. 7 (EV 4.1093).
- c. Pope Paul VI, Apostolic Constitution *Divinac Consortium Naturae* (August 15, 1971) (EV 4.1067).
- ci. Cf. St.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ca* III, 65, 1.
- cii. *Rite of Confirmation*, Introduction, n. 11 (EV 4.1099-1100). The *Code of Canon Law*, canon 891, says that ordinarily it is conferred around the age of discretion but allows for exceptions.
- ciii. *Code of Canon Law*, canon 893.
- civ. *Rite of Confirmation*, Introduction, n. 9 (EV 4.1096-1097).
- cv. *Rite of Confirmation*, Introduction, n. 13 (EV 4.1104)
- cvi. Cf. Council of Trent, Session 14, November 25, 1551, *Doctrine on the Sacrament of Penance*, ch. 1 (DS 1670), and canon 3 on the Sacrament of Penance (DS 1703).
- cvii. Congregation for Divine Worship, *Rite of Penance*, published by authority of Pope Paul VI (December 2, 1973), Introduction, n. 2 (EV 4.2677).
- cviii. Cf. Council of Trent, Session 14, November 25, 1551, *Doctrine on Sacrament of Penance*, chs. 2 (DS 1671) and 5 (DS 1679).
- cix.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Sacramentum Paenitentiae* (“Pastoral Norms concerning the Administration of General Sacramental Absolution,” June 16, 1972) (EV 4.1653). Cf. Council of Trent, Session 14, November 25, 1551, *Doctrine on the Sacrament of Penance*, ch. 6 (DS 1685), and canon 9 on the Sacrament of Penance (DS 1709).
- cx. Cf., e.g., *Rite of Penance*, Introduction, n. 9b (EV 4.2690); *Code of Canon Law*, canon 969.
- cxii. *Rite of Penance*, Introduction, n. 6b (EV 4.2683).
- cxiii. Cf. *Rite of Penance*, Introduction, n. 6 (EV 4.2681-2684). Cf. Council of Trent, Session 14, November 25, 1551, *Doctrine on the Sacrament of Penance*, ch. 3 (DS 1673), and canon 4 on the Sacrament of Penance (DS 1704);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Faith, *Sacramentum Paenitentiae* (“Pastoral Norms concerning the Administration of General Sacramental Absolution,” June 16, 1972) (EV 4.1653-1667).
- cxiiii. Pope John Paul II, Post-Synodal Apostolic Exhortation *Reconciliatio et Paenitentia* (December 2, 1984), n. 31 (EV 9.1181).
- cxv. Cf. *Code of Canon Law*, canon 916; Council of Trent, Session 13, October 11, 1551, *Decree on the Most Holy Eucharist*, ch. 7 (DS 1647).
- cxvi. Cf. *Rite of Penance*, Introduction, n. 7a (EV 4.2687); Council of Trent, Session 14, Nov. 25, 1551, *Doctrine on the Sacrament of Penance*, canon 7 on the Sacrament of Penance (DS 1707);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Sacramentum Paenitentiae* (“Pastoral Norms concerning the Administration of General Sacramental Absolution,” June 16, 1972) (EV 4.1653-1667). Cf. also *Code of Canon Law*, canon 988.1.
- cxvii. Cf. Pope Paul VI, Apostolic Constitution *Indulgentiarum Doctrina* (January 1, 1967), Norm 1 (EV 2.935). This document, also on pp. 85-118 in *Enchiridion Indulgentiarum* (Libreria Editrice Vaticana, 1986), explains the history and theology of indulgences fairly fully. Cf. also Council of Trent, Session 25, December 4, 1563, *Decree on Indulgences* (DS 1835).
- cxviii. Cf. *Code of Canon Law*, canon 996.
- cxix. Council of Trent, Session 14, November 25, 1551, *Doctrine on the Sacrament of Penance*, ch. 2 (DS 1672). Cf. St. Gregory of Nazianzus, *Oratio* 39.17 (MG 36.356); St. John of Damascus, *De Fide Orthodoxa* 4.9 (MG 94.1124).
- cx. Cf. *Code of Canon Law*, canon 989.
- cxxi. *Rite of Penance*, Introduction, n. 7b (EV 4.2687).
- cxii. Cf. Congregation for the Clergy, *General Directory for Catechesis* (August 11, 1997), nos. 177-181 (EV 16.608-1011).
- cxxiii. Cf. Congregation for the Sacraments, *Quam Singulari* (August 8, 1910), and frequently otherwise.
- cxxiv. *Rite of Penance*, Introduction, n. 5 (EV 4.2680).
- cxv. Pope Paul VI, Encyclical *Progressio Populorum* (March 26, 1967), nn. 53,74 (EV 2.1098-1119).
- cxvi. Second General Assembly of the Synod of Bishops, 1971, *Justice in the World*, Introduction and Part II (EV 4.1238-1243, 1264-1273).

- cxxvii . Cf. the outline examination of conscience in *Rite of Penance*, Appendix III.
- cxxviii . *Rite of Penance*, Introduction, n. 22 (EV 4.2703).
- cxxix . *Rite of Penance*, n. 46.
- cxxxx . Cf. *Rite of Penance*, Introduction, nn. 31-33 (EV 4.2712-2715). Cf. *Code of Canon Law*, canon 961.
- cxxxi . Cf. *Rite of Penance*, Introduction, n. 34 (EV 4.2716). Cf. also *Code of Canon Law*, canon 962.1.
- cxxxii . *Rite of Penance*, Introduction, n. 31 (EV 4.2712).
- cxxxiii . Cf. Council of Trent, Session 14, November 25, 1551, *Doctrine on the Sacrament of Extreme Unction*, ch. 1 (DS 1695).
- cxxxiv . Council of Trent, Session 14, November 25, 1551, *Doctrine on the Sacrament of Extreme Unction*, ch. 1 (DS 1695).
- cxxxxv . Congregation for Divine Worship, *Rite of Anointing and Pastoral Care of the Sick*, published by authority of Pope Paul VI (December 7, 1972), Introduction, n. 8 (EV 4.1867).
- cxxxvi . Cf. *Rite of Anointing*, Introduction, n. 8 (EV 4.1867).
- cxxxvii . *Rite of Anointing*, Introduction, n. 9 (EV 4.1868).
- cxxxviii . *Rite of Anointing*, Introduction, n. 10 (EV 4.1869).
- cxxxix . On the paragraph, cf. *Rite of Anointing*, Introduction, nn. 11-15 (EV 4.1870-1875).
- cxl . *Rite of Anointing*, n. 76.
- cxli . Pope Paul VI, Apostolic Constitution, *Sacram Unctionem Infirmorum* (November 30, 1972) (EV 4.1838-1848). Cf. Council of Trent, Session 14, November 25, 1551 *Doctrine on the Sacrament of Extreme Unction*, ch. 2 (DS 1696).
- cxlii . Cf. *Rite of Anointing*, n. 65.
- cxliiii . *Rite of Anointing*, n. 5.
- cxliiv . *Rite of Anointing*, n. 6.
- cxlv . *Rite of Anointing*, n. 7.
- cxlvi . *Rite of Anointing*, n. 26.
- cxlvii . St. Simeon of Thessalonica, *De Ordine Sepulturae* 336 (MG 155.686).
- cxlviii . St. Augustine, *De Nuptiis et Concupiscentia* 1.17.19 (ML 44.424).
- cxlix . St. Augustine, *De Bono Coniugali* 1 (ML 40.373).
- cl . Cf. St. Thomas Aquinas, *Commentarium in Librum III Sententiarum*, q. 27, a. 2, c. See also Pope John Paul II, Apostolic Exhortation *Familiaris Consortio* (November 22, 1981), nn. 18-19 (EV 7.1582-1585).
- cli . Congregation of Rites, *Rite of Marriage*, published by authority of Pope Paul VI, March 19, 1969, Introduction, n. 3 (EV 3.867).
- clii . Cf. Pope John Paul II, Apostolic Exhortation *Familiaris Consortio* (November 22, 1981), nn. 36-41 (EV 7.1638-1661).
- cliii . Council of Trent, Session 24, November 11, 1563, *Doctrine on the Sacrament of Matrimony* (DS 1799).
- cliv . *Rite of Marriage*, Introduction, n. 2 (EV 3.866).
- clv . Cf. Council of Trent, Session 24, November 11, 1563, *Doctrine on the Sacrament of Matrimony* (DS 1797-1799, 1807); Pope Pius XI, Encyclical *Casti Connubii* (December 31, 1930) (DS 3712, 3724); Pope John Paul II, Apostolic Exhortation *Familiaris Consortio* (November 22, 1981), n. 20 (EV 7.1586-1588). Cf. also GS 48-49; AA 11.
- clvi . See note 8.
- clvii . Cf. Council of Trent, Session 24, November 11, 1563, *Doctrine on the Sacrament of Matrimony*, especially canons 7 and 8 (DS 1807, 1808). Proper pastoral treatment for disordered marriage is discussed in Pope John Paul II, Apostolic Exhortation *Familiaris Consortio* (November 22, 1981), nn. 77-85 (EV 7.1768-1804).
- clviii . Cf. *Code of Canon Law*, canons 1152-1153; Council of Trent, Session 24, November 11, 1563, *Doctrine on the Sacrament of Matrimony*, canon 8 (DS 1808).
- clix . Cf. *Code of Canon Law*, canon 1108.1.
- clx . Cf. *Code of Canon Law*, canons 1084 and 1091.
- clxi . Cf. *Code of Canon Law*, canons 1083, 1085, 1087, 1088, 1089, and 1090.
- clxii . Cf. *Code of Canon Law*, canons 1124 and 1125.

clxiii . Cf. Pope John Paul II, Apostolic Exhortation *Familiaris Consortio* (November 22, 1981), n. 84 (EV 7.1796-1802). Cf. also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Letter to all the bishops (April 11, 1973) (EV 4.2383).

clxiv . Pope Pius XI, Encyclical *Casti Connubii* (December 31, 1930) (cf. DS 3707).

clxv . *Rite of Marriage*, Introduction, n. 6 (EV 3.870).

clxvi . *Rite of Marriage*, Introduction, n. 6 (EV 3.870).